

文學博士 學位論文

新羅 土偶 研究
- 現況과 變遷을 中心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孫 明 淳

2016年 12月

新羅 土偶 研究
- 現況과 變遷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孫 明 淳

孫明淳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인

審 査 委 員 인

審査委員 인

審 査 委 員

인

審 査 委 員 인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12月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3. 연구사 검토	5
II. 토우의 역사적 고찰	13
1. 토우의 기원	13
2. 동아시아 주변국 토우 사례 검토	16
3. 신라 토우의 정의	26
4. 신라 토우 · 토용 · 상형토기 비교 검토	31
III. 신라 토우 유형 검토	47
1. 신라 토우 출토 유적 현황	47
2. 출토지에 따른 토우 종류	58
3. 신라 토우 제작지 검토	87
IV. 신라 토우의 변천	106
1. 시대적 배경	106
2. 신라 토우 변천 단계설정	107
3. 신라 토우의 변화상	112
V. 신라 토우를 통해 본 상징성	122
1.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동물	123
2. 분묘유적 출토 토우의 상징성	130
3. 생활유적 출토 토우의 상징성	138
VI. 결론	144
참고문헌	149
(Abstract)	159

〈표 목 차〉

표 1. 토용 출토 유적	40
표 2. 상형토기 출토 유적	42
표 3.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른 신라 토우·토용·상형토기 계보	45
표 4. 경주지역 토우 출토 유적	51
표 5. 경주지역 토우 출토 유적 분류	56
표 6.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장식 토기 문양	70
표 7. 출토지에 따른 토우 유형 분류	72
표 8. 생활유적 유구별 분류	82
표 9. 손곡동·물천리 유적 발굴 현황표	89
표 10. 손곡동·물천리 유적 토우 분류	90
표 11. 손곡동·물천리 유적 인물 토우 유형 분류	92
표 12.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기 시문 문양	94
표 13.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유구별 토우 분류	95
표 14.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토우 유형 분류	97
표 15.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유구별 토우 분류	98
표 16. 신라 토우의 변천	111
표 17. 신라 토우 계보	121

〈그림 목 차〉

그림 1. 청진 농포동 유적 출토 토우	14
그림 2. 웅기 서포항 유적 출토 토우	14
그림 3. 무산 호곡동 유적 출토 토우	14
그림 4. 紅陶三人像壺	18
그림 5. 蛇頭人形 토우	18
그림 6. 임산부 토우	18
그림 7. 하남성 안양 소둔 묘 출토 손 묶인 노예 토우	18
그림 8. 西晉 토용	20
그림 9. 北朝 토용	20
그림 10. 隋 토용	20
그림 11. 춤·악기연주 토용	21
그림 12. 수유 중인 토용	21
그림 13. 일본 남자 토우·여자 토우	22
그림 14. 뱀 장식 토기	22
그림 15. 뱀 모양 파수 심발형 토기	22
그림 16. 뱀 장식 바리	23
그림 17. 아기를 안은 엄마	23
그림 18. 2-4세기 요트칸지역 출토 토우 및 토우장식 토기	25
그림 19. 교동 274번지 유적 출토 동물 토우	28
그림 20. 노동동 12 유적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	28
그림 21. 『大漢原陵秘葬經』 明器 配置圖	29
그림 22.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30
그림 23. 노동동 12 유적 출토 마형 토우	30
그림 24. 장산 토우총 출토 토용	37
그림 25. 황성동 석실분 출토 토용	38
그림 26. 황성동 석실분 출토 여인 토용	38
그림 27. 용강동 석실분 출토 토용	39

그림 28. 일제강점기 신라 토우 출토 위치	48
그림 29. 부산 북천동 32호분 출토 통형기대	49
그림 30. 황남동 109호분 2곽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및 고배 내부 어골뼈	59
그림 31. 황남대총 남분 봉토 출토 여자 토우	60
그림 32. 황남대총 북분 봉토 출토 토우장식 토기편	61
그림 33. 황남동 석곽묘 출토 여자 토우	62
그림 34. 여자 토우	62
그림 35. 월성로고분군 가11-1호분 노출양상	63
그림 36. 황남동 석곽묘 노출양상	63
그림 37. 쪽샘 B6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일괄	65
그림 38. 쪽샘 B6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65
그림 39. 월성로고분군 가11-1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66
그림 40. 계림로 30호분 출토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	67
그림 41. 노동동 277번지 출토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	67
그림 42. 고려시대 토광묘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	68
그림 43. 교동 94-3번지 유적 출토 토우장식대부장경호	69
그림 44. 황남동 석곽묘 출토 맹꽂이 토우	70
그림 45. 황남동 석곽묘 출토 가재 토우	70
그림 46. 황남동 석곽묘 출토 불가사리 토우	70
그림 47.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 유형	71
그림 48. 황남동 석곽묘 출토 남자 토우	74
그림 49. 황남동 석곽묘 출토 남자 토우-잡기	74
그림 50. 황남동 석곽묘 출토 여자 토우	74
그림 51. 황남동 석곽묘 출토 등에 지게 진 토우	74
그림 52. 황남동 석곽묘 출토 머리에 짐 올린 토우	75
그림 53. 황남동 석곽묘 출토 공수자세 토우	75
그림 54.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개(犬)	76
그림 55.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멧돼지	76
그림 56. 황남동 석곽묘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	77

그림 57. 황남동 석곽묘 출토 승선 토우	77
그림 58. 손곡동·물천리 유적 가야금연주 토우	78
그림 59. 황남동 석곽묘 출토 악기연주 토우	78
그림 60. 중앙아시아 출토 청동향로	79
그림 61. 황남동 석곽묘 출토 원숭이·구세계 원숭이·개미핥기 토우	80
그림 62. 월성해자 출토 인물 토우	82
그림 63. 천관사지 출토 표범 토우	84
그림 64. 천관사지 출토 인물 토우	84
그림 65. 생활유적 유구별 토우 유형 분류	84
그림 66. 생활유적 출토 토우 유형 분류	86
그림 67.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머리유형	91
그림 68. 황남동 석곽묘 출토 승선 토우	93
그림 69.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93
그림 70.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93
그림 71.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노예 토우	93
그림 72. 손잡이 상면 토우 부착흔	94
그림 73. 돌대 위의 개(犬) 토우	94
그림 74. 화곡리 유적 출토 마형 토우	97
그림 75. 생산유적 출토 인물 토우(수) 비교	99
그림 76. 화곡리 출토 인물 토우	100
그림 77. 신라왕경 4가옥 출토 인물 토우	100
그림 78. 생산유적 출토 동물 토우 유형 분류	101
그림 79.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101
그림 80.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마형 토우	101
그림 81.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동물 토우	102
그림 82. 신라왕경 출토 마형 토우	102
그림 83.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인물 토우	103
그림 84. 납석제 인장	104
그림 85. ‘漢’銘 토기편	104
그림 86. 인화문 시문 마형 토우	105

그림 87.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113
그림 88. 비과연주 인물 토용	113
그림 89. 傳 동천동 석실분 출토 인물 토용	113
그림 90.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부지 내 유적 출토 토기편	115
그림 91. 사천왕사 출토 토기편	116
그림 92. 월성해자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	119
그림 93. 월성해자 출토 마형 토우	119
그림 94. 월성해자 출토 마형 토우	119
그림 95. 월성해자 출토 염소 토우	119
그림 96. 황남동 석곽묘 출토 남자 토우	132
그림 97. 황남동 석곽묘 출토 성애상 토우	132
그림 98. 황남동 석곽묘 출토 출산 토우	132
그림 99. 황남동 석곽묘 출토 주검 앞 여자 토우	132
그림 100. 황남동 석곽묘 출토 동이 안은 토우	132
그림 101. 황남동 석곽묘 출토 탈 쓴 토우	132
그림 102. 지리산 천은사 극락보전-수달	143

<지 도 목 차>

지도 1. 호탄지역 위치	25
지도 2. 횡혈식석실고분군 및 토용 출토 석실분 위치	35
지도 3. 신라 토우·토용·상형토기 출토 위치	43
지도 4. 경주지역 토우 출토 유적 분포도(1:25,000)	55
지도 5. 손곡동·물천리 유적 지역 구분도	88

I. 서론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기원이나 바람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초기 예술품으로 동굴벽화를 들 수 있다. 이후 토기의 제작, 불의 사용과 더불어 점차 정신세계의 표현이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조형물이 제작되었다.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은 자연에 대한 숭배와 인간 죽음에 대한 의식의 바탕이 된 원시신앙이 있었다. 그 신상(神像)의 표현을 조형물로 나타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흙으로 만든 인형(人形), 토우(土偶)이다. 토우는 외래 종교의 유입보다는 토속적인 신라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소박한 정서를 비롯하여 인간과 자연의 합일에서 나오는 자연주의적인 민족정서를 반영한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인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각자의 문화를 반영한 조형물들을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사시대부터 목제(木製), 골제(骨製)로 인형을 제작하였으나 현재 전하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5세기 중후반~6세기 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신라 토우의 모본(模本)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토우의 소재로는 인형을 비롯하여 인간과 친근한 조수류(鳥獸類)를 주로 만들었으며, 민족에 따라서는 집, 돼지우리, 우물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토우는 주로 원시종교의 상징으로서, 주술용 혹은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라 토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상과 생활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유물이다. 특히 무덤 출토품이 대다수인 신라 토우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토속적인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다산과 풍요, 주술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계세사상(繼世思想) 등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는 경주 황남동 일대 제한된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 토우에 대한 연구이다. 과연 기왕의 신라 토우 연구 성과와 같이 신라 토우는 무덤에서만 출토되고 경주 황남동 일대라는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출토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최근까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토우 전반에 대한 제작시기와 출토지에 따른 토우의 종류와 유형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I 장에서는 신라 토우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연구 목적과 방법 그리고 기왕에 연구된 내용들을 살펴본다.

II 장에서는 토우의 기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근거리에 위치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제작된 토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들 토우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토우를 통해 표현해 낸 신라인들의 사상과 염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특별히 선호된 토우의 종류와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바로 신라 토우 제작자들의 염원과 사상, 생활상을 파악하는 비교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왕의 연구에서 혼용되어 사용한 신라 토우와 토용, 상형토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 상형토기와 토용의 시대별 유형의 변화상을 큰 맥락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토우를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나누어 유형을 분류해보고, 유적의 성격에 따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에서 행해지는 의례 또는 유적의 성격에 따른 토우 종류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생산유적 출토 토우를 대상으로 제작기법과 유형 분류를 통해 경주지역 출토 토우의 생산과 유통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신라 토우가 등장하는 5세기 중후반부터 통일신라 말까지를 크게 V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특징과 변천상 그리고 신라 토우가 변화·발전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V 장에서는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동물관련 기사와 신라 토우로 제작된 동물의 종류를 검토해 본 후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 VI 장에서는 앞서 각 장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라 토우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신라 토우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천 오백년 이전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자료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토우를 통해 당시의 신앙이나 민속,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신라 토우 연구에 있어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토우와 토용 그리고 상형토기에 대한 개념이 혼용된 채 연구됨에 따라 고신라 토우의 출토 묘제와 출현 시기, 소멸 시기 등에 대해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왕의 연구는 토우라는 큰 범주 속에 신라 토우는 부착형 토우, 토용은 독립형 토우, 상형토기는 용기형 토우로 명명하여 함께 연구되었다. 따라서 ‘신라 토우’라는 제목 아래 신라 토우는 무덤 부장품 가운데 토기의 장식품으로 국한된 연구에 머물렀다.

둘째, 신라 토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경주 황남동 일대 소형 석곽묘 등에서 출토된 토우를 일컬어왔다. 대다수는 학술적 발굴에 의한 것이 아닌 일제강점기에 공사 도중 이미 파괴된 고분에서 수습된 유물이거나 기증품 또는 압수품들로 출토 위치가 확실치 않은 것들이 다수이다. 더욱이 토기에 부착되었던 것을 따로 떼 내어 보관됨에 따라서 신라인들이 표현하고자 한 상징적 의미를 밝히거나 정확한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1970년대부터는 우리의 손에 의해 토우가 발굴·조사되었으나 그 수량은 극히 미흡하며,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기초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공반유물 등 전반적인 양상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

셋째, 신라 토우의 출토지는 경주 황남동 일대 무덤이라는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분묘유적 이외에서 신라 토우의 출토 예가 많지 않았으며, 출토 토우에 대한 자료 집적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주지역 곳곳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비록 그 수량은 많지 않지

만 토우 자료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라 토우에 표현된 소망이나 염원 등을 통해서 신라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춤, 악기, 의복 등은 당시의 사회, 문화,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신라 토우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토우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사상이나 기원(祈願)이 무엇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와 조형적인 변화상을 정리하여 신라 토우의 변천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 시간적 범위는 신라시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통일을 기준으로 이전을 고신라, 이후는 통일신라로 칭하고자 한다. 다만 토우 제작 목적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사시대부터 신라 이전시기 토우에 대한 내용과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를 포함하여 함께 살펴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왕에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특정시기, 특정지역 출토 토우만이 아니라 신라 전 시기에 걸친 토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신라 토우의 조형적, 상징적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왕의 연구에서 신라 토우의 범주에 포함되어 함께 연구된 토용과 상형토기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각각의 계보를 간략하게나마 밝히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신라의 수도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토우로 제한한다. 그리고 출토지가 확실한 토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출토지가 추정되는 토우는 비교자료로써 연구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경주 황남동 일대 소형 석곽묘 등에서 출토된 토우를 신라 토우의 전부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정식발굴이 아니라 수습된 것이다. 그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토우의 경우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97년과 2011년에 각각 출간한 도록에 실렸으므로 도록에 소개된 자료를 기

본으로 하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경주지역에서 정식발굴조사를 통해 보고된 토우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신라 토우와 관련된 문헌기록 검토와 더불어 발굴 보고된 토우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기초를 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물 실건을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3. 연구사 검토

신라 토우에 대한 연구는 1926년, 일제강점기 때 정식 발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 중에 경주 황남동 일대 소형 석곽묘군에서 다량의 토우를 수습한 후 1960년대 말 김원룡에 의해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1974년 경주 계림로에서 토우장식장경호가 출토¹⁾된 이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라 토우관련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에 그친 반면, 이난영²⁾은 신라 토우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토우의 유입경로, 제작시기, 분류 등에 대한 연구 성과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토우의 유입경로에 대해서 김원룡³⁾은 ‘낙랑군(樂浪郡)에서 중국인들이 제작한 가축형 명기를 낙동강구(洛東江口)지역으로 철(鐵)을 사러 드나들던 낙랑상

1) 鄭在鏞, 1976, 「慶州 皇南洞 味鄒王陵內 舊道路面內 廢古墳 發掘調査」, 『韓國考古學年報』 2:44.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4년 경주 황남동 고분공원 조성을 위해 구 경주시청 앞 도로를 따라 배수로 매설공사 중 도로 바닥에서 소형의 고분이 노출되었다. 이 도로는 일제 초기에 國道로 설치된 것이며, 고분의 봉토는 그때 이미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38m의 배수구 통과 구간에서 적석묘 31기, 석곽묘 3기, 옹관묘 8기 등 42기가 노출되었다. 墓室 사이에 구역을 만든 것도 있지만 봉토가 하나하나 고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깔려있었으며, 묘실 사이가 불과 30cm 내외의 것이 많았다 … 이 고분들은 황남동의 봉분이 큰 고분이 생기기 이전에 이 지역에 먼저 매장된 것들로서 신라 고분 중 오랜 시기의 고분이라 생각된다.’

2) 이난영, 1976, 『신라의 토우』,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난영, 1981, 「漢代 雜伎像과 一部 新羅土偶와의 關係」, 『미술자료』 28:10-18; 이난영, 1991, 『토우』, 서울:대원사; 1997, 「신라의 토우」, 『신라토우』, 서울:동천문화사, pp.138-145.

3) 김원룡, 1968, 「우리미의 재발견: 토우」, 『공간』 3(5):7-17.

인들을 통해 3, 4세기경에 신라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이달용⁴⁾은 낙랑이나 중국의 한(漢), 육조(六朝)시대의 토우와 흡사한 것을 예로 들어 대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김혜원⁵⁾은 중국의 농경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특히 신라 전기 동물형 토우는 백제와 관련이 있고 백제는 그것을 육조로부터 배운 후 우리 나름대로의 형태와 기법의 독자성을 지니고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선학들은 주로 토우의 유입을 중국과 결부시켜 해석을 하였으나 흠으로 만든 이러한 인형들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보다는 자연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II장에서 다룬 주변국의 토우 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토우의 등장시기에 대해서 이은창⁶⁾은 기원후 2세기경 발생하여 3세기경 거의 완성되었고 4~6세기에 전성기를 거쳐 6세기말경에는 토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해경⁷⁾은 3세기경 제작되기 시작하여 6세기 말에는 제작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등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소멸시점은 동일하게 보았다. 두 연구자 모두 토우의 범주에 포함시킨 상형토기의 제작시기에 대한 내용을 피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신정⁸⁾은 순수토우는 2~3세기, 토기장식 토우는 4세기, 상형토기는 5~6세기경 변화 발전한다고 보았다. 특히 순수토우란 “독립된 것으로서 토기에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우에 비해서 크며, 특히 인물 토우는 시종(侍從)이나 악인(樂人)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이은창⁹⁾의 견해를 따랐으나 오히려 순수토우(독립형 토우)는 토기장식 토우(부착형 토우)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본고 III·IV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외에도 김혜원¹⁰⁾은 장식형, 단독형, 상형토기 순으로, 유완하¹¹⁾는 부착형 토

4) 이달용, 1976, 「신라 상형토기의 조형성과 생활상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혜원, 1986, 「고대 신라 토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은창, 1981, 「신라의 용기에 관한 연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2:196.

7) 이해경, 1984a, 「신라와 가야토우의 형태 및 표현양식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문.

8) 박신정, 1986, 「신라토우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9) 이은창, 1983, 「신라토우에 나타난 민속」,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280.

우에서 단독형으로, 그리고 가야와의 접촉으로 신라식 용기형 토우로 변질되었으며, 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가 중지된 7세기를 전후하여 토우의 제작활동이 소멸되었다는 김원룡의 설¹²⁾을 따랐다. 박신정¹³⁾ 역시 토우의 제작은 2세기경 발생하여 6세기 대에는 소멸된 것으로 정리하였다.

토우의 분류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시도되었다. 김원룡¹⁴⁾, 황원길¹⁵⁾, 조영자¹⁶⁾는 이형(異形)토기의 범주 속에 토우를 포함시켜 소개하였다. 이후 고동술¹⁷⁾은 토우가 가진 성격과 유형을 통해 지역성과 영토 변화에 따른 변화 과정을 밝히려고 하였다. 특히 가야지역 출토 토우는 부장용 명기로서 소멸 시까지 용기형 토우로 이어진 반면, 신라지역의 5세기 대 부착형 토우는 신앙의 대상인 신체(神體)로서 신앙행위의 소산(所産)으로 정의하였다. 6세기 단독형 토우는 순장대용이며, 7~8세기에는 부장용 명기(明器)로서 토용과 용기형 토우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에서 다룬 토우의 형식 분류와 토우에서 토용으로의 변화발전에 대한 내용은 필자도 동감한다. 다만 용기형 토우를 부착형 토우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다. 신인주¹⁸⁾의 경우 토우보다는 상형토기가 먼저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토우와 상형토기의 계보가 다를 것을 본고 III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한병삼¹⁹⁾은 토우는 용기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으며, 고배뚜껑이나 장경호 등에 부착되어 있는 소형의 조각물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토우 자료가 부족하던 1970년대, 토우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상형토기의 범주 속에 토우를 포함

10) 김혜원, 1986, 위의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유완하, 1994, 「신라토우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원룡, 1973, 『우리미술의 특색』, 서울: 신구문화사, p. 227.

13) 박신정, 1986, 위의 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14) 김원룡, 1962, 「삼국시대 동물형토기시고」, 『미술자료』 6:5-10.

15) 황원길, 1974, 「신라, 가야 이형토기의 조형미연구」, 『마산교육대학논문집』 5:121-133.

16) 조영자, 1975, 「경주 황남리고분 출토 토우의 연구」, 『홍익미술』 4:77-84.

17) 고동술, 1979, 「삼국시대 토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8) 신인주, 2002, 「신라상형 주구부토기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기왕의 상형토기 연구에서는 가야에서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인주는 오히려 낙동강 이동, 신라지역에서 발생한 상형토기들이 가야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정리하였다.

19) 한병삼, 1974, 『토기와 청동기』 제2판,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19.

시키던 때에 토우에 대한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라 토우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조형²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다.

1980년대 이후에는 토우 속에 나타난 민속,²¹⁾ 상징성²²⁾을 비롯하여 복식,²³⁾ 두발²⁴⁾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음악사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있었다. 특히 악기에 대한 연구는 김성혜에 의해서 개진되었다. 먼저 신라 토우에서 보이는 금(琴) 11점을 연구한 결과 우륵이 신라에 가야금을 전하기 이전, 신라에는 가야금이 아닌 신라금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가야금병창도 행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신라고는 남녀가 공용한 악기라는 사실을 밝혔다.²⁵⁾ 이후 토우에 나타난

-
- 20) 이해경, 1984a, 「신라토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조각과 석사학위논문; 허건, 1981, 「신라의 소조와 조형에 관한 연구:토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해동, 1985, 「신라토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회화학과 석사학위논문; 장현숙, 1989, 「신라토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민속신앙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원섭, 1992, 『신라토우에 나타난 조형의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용순, 1993, 「韓國 흙구이의 造形性에 관한 연구:토우(土偶)와 독널(甕棺)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강경근, 1994, 「신라토우에 관한 연구:원시미술로서 신라토우의 정신성과 현대조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완하, 1994, 「신라토우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혜, 1994, 「신라토우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성기, 1999, 「토우 조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훈, 2004, 「신라 토우에 나타난 조형적 분류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재형, 2004, 「신라토우에 나타난 조형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상준, 2008, 「한국 토엠티신앙에 나타난 조형물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현아, 2009, 「신라장식토우의 특징을 응용한 도자 조형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10(4):39-49; 이정근, 2012, 「신라토우를 통해서 보는 신라인의 미감에 관한 연구:고대 신라의 토우형태에 나타난 조형미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4):473-484.
- 21) 이은창, 1983, 앞의 논문, pp. 209-213; 천진기, 1997, 「신라토우의 민속학적 연구: 性 · 動物을 중심으로」, 『특별전 신라토우』, pp. 146-158; 천진기, 1998, 「신라토우에 나타난 新羅俗 연구」, 『경주문화엑스포 기념 제1회 학술회의 특집호』 2:125-134.
- 22) 박신정, 1989, 「新羅土偶에 나타난 원시성 연구」, 『경일대학교논문집』 26:391-400; 전홍일, 1995, 「신라토우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손명순, 2002, 「신라토우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하)」, 『경북사학』 24:213-275; 심영옥, 2006, 「신라토우 인물상에 나타난 상징성과 조형미감 연구」, 『동양예술』 11:218-263.
- 23) 양경애, 1993, 「신라고분출토 토우의 복식연구」, 『충청전문대학 박물관지』 2:37-54; 최연경, 1992, 「신라토우에 나타난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권준희, 2001a, 「고신라기 토우에 나타난 복식연구」, 『복식』 51(4):57-69; 권준희, 2001b, 「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박사학위논문.
- 24) 김성남 · 김선아, 2002, 「고신라 두발장식」, 『인체예술학회지』 3(2):56-66.
- 25) 김성혜, 1998, 「신라토우의 음악사학적 조명(1): 신라고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1 · 92:61-101.

관악기 5점을 연구한 결과 5세기경 사용되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종류 그리고 신호용뿐만 아니라 춤의 반주악기로 사용된 가(笳)라는 사실을 문헌기록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관악기의 연주는 남자가 담당하였을 것이며, 보행연주가 가능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²⁶⁾ 이후 토우에서 확인된 2현 비파는 중국, 고구려와 비교하기 보다는 북방유물과 관계 지었으며, 연주 자세를 입상 혹은 보행상으로 보았다.²⁷⁾ 이외에도 토우에 나타난 무용관련 자료를 정리²⁸⁾한 결과 탈춤의 역사를 200년 이상 앞당겨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탈춤 혹은 춤추는 토우는 장례의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렇듯 김성혜에 의해서 신라 토우에 표현된 악기, 무용 등에 대한 자료를 문헌기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라 토우 연구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토우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도한 박신정²⁹⁾은 다산과 풍요, 죽음에 대한 생의 영속성을 상징한 것으로 보았고, 전홍일³⁰⁾은 토우에 표현된 가면 쓴 사람과의 성행위는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신라인이 신탁(神託)을 통해 천재(天才)나 신동(神童)을 바라는 염원의 표현으로 보았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남자상과 정중히 합장하고 있는 남자상의 표현은 태교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음악의 원리가 태교와 관련된다는 것을 고대 그리스 음악이 수리(數理)나 기하학의 공리(公理)와 같은 체계이고 동양의 궁상각치우의 음악원리 또한 음양오행의 원리, 즉 주역(周易)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토우 가운데 등짐을 지고 있는 모양이나 무엇을 안으려고 팔을 옆으로 향해 오므린다거나 머리 위에 무엇을 이고 있는 포즈들은 모두 태교의 한 풍습이라고 한 박용숙³¹⁾의 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 설에 대해서는 경주 계림로 30

26) 김성혜, 1998, 「신라토우의 음악사학적 조명(2): 신라 관악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5:136-168.

27) 김성혜, 2000, 「신라토우의 음악사학적 조명(3): 신라 비파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01:25-52.

28) 김성혜, 2007, 「토우로 보는 신라무용과 그 의미」, 『한국무용사학회』 6:61-101.

29) 박신정, 1986, 앞의 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30) 전홍일, 1995, 「신라토우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민간신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31) 박용숙, 1990, 『한국미술의 기원』, 서울: 예경산업사, p. 153

호분 출토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에 부착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입산부를 볼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내용을 사실로 보기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더욱이 태교와 관련이 있다면 고분 유적보다는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어야 맞지 않겠나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더 많은 자료의 집적을 기대해 본다. 이외에도 토우는 명기(明器)가 아니며, 무덤의 주인공들이 생시에 사용하였던 제기(祭器)를 주인이 죽으면서 함께 부장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제기는 단순히 무덤의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계의 신들을 상징하는 조형적 의미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생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김혜원³²⁾은 가면을 착용한 인물상에 주목하여 고대 가면의 기능을 종교적, 주술적 기능이나 행사의식에 사용된 경우와 매장 또는 장송의 행사에 쓰여 진 후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되는 가면으로 보았다. 이달용³³⁾은 순장대용품으로 장송(葬送)에 사용되었던 것이며, 영혼불멸설을 믿었던 당시 신앙관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덤 부장품으로 매납되었던 토우의 경우 순장대용품의 성격보다는 원시신앙의 의미가 더 크며, 순장이 금지된 지증왕 3(502)년 이전시기에 이미 무덤 부장품으로 매납되었다. 따라서 토우의 성격을 순장대용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토용의 모본(模本)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대한 내용은 IV장에서 다룰 것이다.

2000년대에는 신라 토우에서 보이는 외래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송란³⁴⁾은 신라 토우에서 보이는 동물 가운데 한반도에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하마, 원숭이, 개미핥기 등이 확인됨에 따라서 신라 토우는 남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김인회³⁵⁾는 신라 토우에 자주 등장하는 뱀과 개구리의 조합상과 관련하여 신라와 동오(東吳)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토우장식장경호에 뚫린 삼각형을 혼(魂)이 통하는 구멍

32) 김혜원 1986, 앞의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이달용, 1976, 앞의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이송란, 2000, 「고신라 고분출토 토우장식토기에 보이는 남방적 요소」, 『고고역사학지』 16:465-495.

35) 김인회, 2013, 「신라 토우장식장경호와 동오 혼병을 통해 본 동중국해 사단항로 개척시기」, 『동아시아고대학』 32:227-260. “뱀과 개구리의 조합상은 8,000년 전 중국 북방의 푸신(阜新) 차하이(查海)유적에서 출토된 도관(陶罐)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춘추전국시기 명기에서 자주 보이는 소재이다.”

으로 보았다. 그러나 계림로 30호분 출토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는 출토 당시 파손품이었으며, 이를 복원한 것이다. 따라서 구멍이 난 부분은 토기편을 찾지 못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뱀과 개구리의 도상(圖像)만으로서 기 및 지리적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뱀과 개구리의 결합상 이외에도 동물 결합상의 경우 중국에서는 새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도상이 많으며, 일본 조몬시대 토기에는 개구리와 도롱뇽의 모습 또는 돼지와 뱀의 결합상 등이 보인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생태와 특징적인 것 가운데 결합을 통해 다산이나 재생의 상징동물들을 결합시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신라 토우가 부착된 토기 문양에 대한 연구³⁶⁾를 비롯하여 인물형 토우³⁷⁾, 마형 토우³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³⁹⁾가 시도되었다. 허은아⁴⁰⁾는 동물형 토우의 기원을 선사시대 암각화에 두었으며, 동물형 토우의 제작의도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물(祭物)로서 희생의 대상, 식량의 대상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대상으로 보았다. 특히 제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며, 김해 봉황동 유적⁴¹⁾ 출토 토우 가운데 마형 토우를 제물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36) 염미란, 1998, 「신라 토우와 토기문양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 『한국공예논총(1998)』:169-192.

37) 김만수, 1994, 「인물토우 형상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정형현, 2005, 「土偶와 人物形象의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얼굴 이미지를 中心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양미경, 2008, 「마형토우 제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박신정, 1989, 「신라토우에 나타난 원시성 연구」, 『경일대학교논문집』 26:391-400.; 전영숙, 1994, 「신라토우에 나타난 한국미의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미란, 1996, 「신라토우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24:281-300; 김현정, 1999, 「신라토우에 있어서 드로잉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허은아, 1993, 「신라의 동물형 토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41) 김동수, 2017, 『신라사대계』 총서 21권, pp. 263-264. 김해 봉황동 70호 저습지유적 퇴적층에서 30여 점의 토우들이 일괄로 출토되었다. 토제품은 발·기대형 모형토기, 인물형 토우, 마형 토우 등 다양하다. 특히 인물형토우의 시선이 모두 말과 모형토기군이 놓여있는 곳을 응시하고 있고, 허리와 어깨에 휘장을 두른 인물 토우 한 점은 모형토기군과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단독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 위치를 고려해서 휘장을 두른 인물토우는 제사장, 팔을 벌리고선 인물토우는 조상신, 마형토우는 제물, 모형토기는 제기를 각각 형상화한 것으로 이는 마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미술학도들에 의해 토우를 기초로 한 현대조각 또는 인물형상 중심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⁴²⁾와 토우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⁴³⁾ 관광상품 개발⁴⁴⁾ 등에도 토우를 소재로 하였다.

이렇듯 신라 토우에 대해서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이 신라 토우의 단편적인 연구에만 그쳤다. 그리고 토우의 범주 속에 토용과 상형토기를 포함시킨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신라 또는 고신라 토우 연구라는 논문 제목과는 달리 실제 신라 토우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6세기 이후 신라 토우에 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2) 배주영, 1997, 「토우가 한국 현대 조각에 미친 영향」, 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정영현, 2005, 「토우와 인물형상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김희양, 2010, 「신라시대 토우의 제작기법 고찰」, 『백약논총』 4:1-28.

44) 이승수, 1989, 「신라토우를 응용한 관광도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경주전문대학논문집』 4:375-400; 김세원, 2000, 「신라토우를 활용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 『한국공예논총』 3:49-63; 장지성, 2008, 「신라토우를 응용한 생활용기 디자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II. 토우의 역사적 고찰

전 세계에서 이른 시기부터 토우가 제작되었으며, 점차 자국만의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있다. 구석기시대 이래 유럽·메소포타미아·흑해연안·시베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육체의 한 부위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특히 눈길을 끄는 여인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작은 머리, 얼굴에는 눈이나 코·귀가 거의 생략되고 기형(奇形)으로 보일 만큼 빈약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으나, 여성의 성적인 특징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반도와 인접한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 제작된 토우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토우 제작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체로 어떤 소재를 토우로 제작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에서 각자의 문화적 특성을 담아 만든 토우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신라 토우와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토우의 기원

흙을 소재로 만든 상(像)들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각 민족간의 자연환경 혹은 생활환경 속에서 얻은 그들 나름의 체험을 통하여 그 나라 혹은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미의식에 바탕을 두고 제작됨에 따라서 흙이라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토우가 제작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 가운데 서울 암사동 집터에서 출토된 짐승머리 토우, 울산 신암리 유적 출토 여인상, 청진 농포동 유적에서 출토된 여인으로 추정되는 토우〈그림 1〉⁴⁵⁾와 목에 구멍이 뚫려 차고 다닐 수 있는 개(犬) 머리 형상 토우가 있다. 이외에도 웅기 서포항 유적에서 토우 신체의 일부인 두부(頭部) 2개와 신부(身部) 5개가 출토

45) 김원룡, 1982, 「한국선사시대의 神像에 대하여」, 『역사학보』 94·95:2. 머리 부분이 결손 되었으며, 4 cm 정도의 몸통이 남아있다. 가슴에 두 줄을 가로 교차하여 덧붙였는데 팔장을 낀 듯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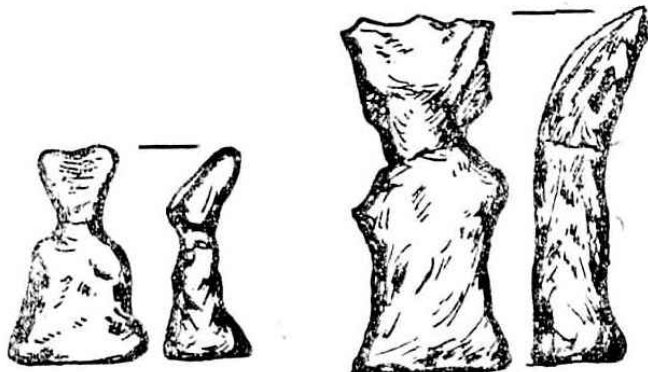
되었다. 그 가운데 어깨에서 하복부에 이르는 동부(胴部)만이 남아 있는 상은 가슴에 유방을 표현한 돌기와 허리의 곡선 등을 이유로 여인상으로 추정한다 <그림 2> .⁴⁶⁾



<그림 1> 청진 농포동 유적 출토 토우(출처: 김원룡, 1982, 역사학보 94·95, p. 2. 圖 1 인용)



<그림 2> 옹기 서포항 유적 출토 토우(출처: 김원룡, 1982, 역사학보 94·95, p. 4. 圖 2 인용)



<그림 3> 무산 호곡동 유적 출토 토우(출처: 김원룡, 1982, 역사학보 94·95, p. 10. 圖 9 인용)

46) 김원룡, 1982, 앞의 논문, p. 3.

청동기시대 유적 가운데에는 함경북도 무산군 호출읍 호곡동 유적⁴⁷⁾ 주거지에서 인형좌상(人形坐像) <그림 3>과 돼지 모양의 토우, 토제 두부(頭部) 5점이 출토되었다. 인형의 경우 세모형태의 머리에 이목구비는 표현하지 않았다. 귀에는 구멍이 뚫려있으며, 성별 구별은 불가능하다.

초기철기시대 토우로는 경남 웅천읍 자마출 유적에서 출토된 오리모양의 파수⁴⁸⁾ 등 36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반도 동·남해안에서 확인된 것이 14점이다. 대부분 토제, 단독형 무성(無性), 곰, 물개이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토층에서 확인되었지만 두만강하류에서는 대부분 퇴적층 혹은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⁴⁹⁾ 이 시기 토우의 용도에 대해서는 토우의 목에 잘록한 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몸에 착용한 호신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로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人形의 경우 풍요, 생산, 안락 등을 상징하는 무신(巫神) 또는 조상신으로, 이러한 신상(神像)을 집집마다 모셨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⁵⁰⁾ 특히 동물의 경우 단순한 먹이로써 동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주술의 일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고 여체(女體)를 만든 것은 생식본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나체상은 고대 유럽에서도 매우 성행하였다.⁵¹⁾

한반도 내 삼국 중에서 고구려, 백제에서는 토우 출토 예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야지역에서 상형토기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잔의 손잡이 부분에 동물의 얼굴이나 두상(頭狀)이 부착된 예, 그리고 김해 봉황동 유적 저습지에서 모

47) 황기덕, 1975, 「무산 범의구석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124-226. 무산읍 서쪽 두만강과 성천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집자리가 드러났는데, 청동기시대 집자리 16기와 함께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8호 집자리에서 돼지 조각품과 흙을 빚어 만든 남자 인형, 점 뼈 등이 나왔는데, 이는 신앙생활에 관한 증거와 함께 남성 인형은 청동기시대에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게 한다.

김원룡, 1982, 「한국선사시대의 신상에 대하여」, 『역사학보』 94·95:10.

48)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었으며, 높이 약 5cm이다.

49) 김재윤, 2008, 「선사시대의 극동 전신상 토우와 환동해문화권」, 『한국상고사학보』 60:44-47.

50) 김원룡, 1982, 「한국선사시대의 신상에 대하여」, 『역사학보』 94·95:10.

51) 김인환, 1994, 『누드의 조각사』, 『동서미술의 흐름』, 서울: 미술공문사, p. 9. 1909년 오스트리아 뵐렌도르프에서 약 3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 유물로써 석회석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신이 적색으로 칠해진 11cm 규모의 여성 나신상이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 여성 裸像은 대서양 해안에서 유럽을 거쳐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60여 점이나 발견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옷을 입지 않은 裸像이라고 한다.

형 토기군과 함께 인물 토우와 마형 토우 등 30여점의 토우가 일괄 출토된 예를 볼 수 있다.

다음은 한반도 주변국에서 제작된 토우의 종류와 변화상, 상징적 의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주변국 토우 사례 검토

고대인들은 종족보존의 본능 혹은 부정을 막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담은 상징물을 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흙을 빚어 만든 토우를 들 수 있으며, 토우에는 각자 민족 나름의 독창성을 띠고 있다.

전 세계에서 흙으로 만든 인형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스의 테라코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석기시대 유적, 영국의 신석기시대 유적,⁵²⁾ 멕시코나 잉카, 이스라엘 등지에서 흙을 손으로 빚거나 틀로 성형한 토우 또는 신라 토우와는 달리 소성(燒成)전에 철료(鐵料)를 사용하거나 소성 후에 안료로 채묘(採苗)한 것 등 제작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이른 시기부터 토우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조몬시대 토우, 중국의 무덤에서 출토된 토우(토용)을 비롯하여 호탄지방 출토 토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인 양소문화시대(仰紹文化時代 B.C. 4000~2000)부터 토우가 제작되었으며, 은대(殷代)에는 순장대용품인 토용이 다량 생산되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의미에서 니상(泥像) 또는 묘장(墓葬)에 쓰는 신명(神明)의 그릇이기 때문에 명기 니상(明器 泥象)⁵³⁾이라고 불려 졌

52) 김현아, 2008, 「신라토우의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 8. 대체로 거대한 남근(男根)이나 남근을 과대하게 강조한 남성상을 동시에 섬긴 곳도 있다.

53) 하늘과 땅의 神靈을 모시고 儀禮에 사용하는 그릇을 일컫는다.

으며, 주나라 말쯤부터 토우가 명기(明器)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신석기시대 홍도삼인상호(紅陶三人像壺)에는 구연부 둘레에 세 명의 남자가 마주보고 서 있으며, 사람 사이사이에는 잔의 형태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였다. 사람 얼굴에는 큰 코를 비롯하여 눈과 입에는 구멍을 뚫었으며, 간략하게나마 손가락도 표현하였다 <그림 4>. 독립형 토우의 한 예로 뱀의 머리를 한 인물상이 양손을 합장한 모습의 토우 <그림 5>를 비롯하여 요녕성객좌현(遼寧省喀左縣) 동산취(東山嘴) 유적에서는 배가 부른 임신부 모습의 토우가 출토되었다 <그림 6>. 임신부 토우가 출토된 동산취 유적은 홍산문화(紅山文化)에 속하는 큰 규모의 석조건축유적이며, 당시 종교활동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유적이다.⁵⁴⁾ 이 유적에서는 임신부상 이외에도 소형의 토제 임부상을 비롯하여 대형의 인체상이 다수 발굴되었다.

하남(河南) 안양(安陽) 소둔(小屯)의 묘에서 출토된 손이 묶인 노예 모습의 토우는 기원전 14세기말~12세기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중국 상대(商代) 노예사회의 발전시기에 해당한다. 수갑[桎]을 가슴 아래에 찬 것이 여자[右]이고 팔을 뒤로 돌려 양 손에 수갑을 찬 것은 남자[左]이다 <그림 7>. 수갑을 찬 양 손의 형태를 보면 두 손을 구멍에 넣고 끈으로 양 끝을 묶었다. 목에는 목 틀을 씌웠고 모자는 쓰지 않았다. 목둘레가 원모양이며, 아래위가 연결된 치마를 입었다. 수갑을 찬 토우는 귀족들의 살아생전 노예 주인들이 인순(人殉)을 상징하기 위하여 만든 순장물로 추정한다.⁵⁵⁾ 이것은 노예 주인들 생전의 권세와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져 지배 통치를 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순장자를 대신한 토용을 대량 제작하였다. 토용의 본격적인 제작은 춘추전국시대부터 한(漢), 당대(唐代)까지 이어졌다. 한(漢)이 쇠망한 이후 5호 16국 시기에는 장례(葬禮)는 혼란해지고 토용의 제작이 거의 없다가 진대(晉代)에 다시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북조시대에 다시 토용의

54) 東京國立博物館, 2000, 『中國國寶展』, p. 31

55) 辛夷, 1985, 「關於殷墟出土的帶手桎的陶俑」, 『史學月刊』 2:106-107.



〈그림 4〉 紅陶三人像壺

(출처: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 『중국고대토기전』, p. 16(左), p. 37(右))



〈그림 5〉 蛇頭人形 토우



〈그림 6〉 임신부 토우 (출처:

東京國立博物館, 2000, 『中國國寶展』, p. 31)



〈그림 7〉 하남성 안양 소둔 묘 출토 손 묶인 노예 토우

(출처: 辛夷, 1985, 「關於殷墟出土的帶手梏的陶俑」, 『史學月刊』 2:106)

제작이 활발해졌다.

토용의 제작 목적은 사자(死者)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이후 노예제가 봉건제로 바뀌면서 순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량의 노예 순장이 사라진 대신 사람의 형상을 본뜬 토용을 제작하여 무덤에 부장하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다. 진대(秦代)에는 크기와 규모면에서 기존의 토우와는 차이가 나는 시황제(始皇帝)의 병마용이 만들어졌으며, 한대(漢代)에는 인물, 동물, 건축물, 생활용구 등 토용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죽은 사람의 신분 따라 수량이 달라지고 각자의 격식에 맞추어 복식과 손에 든 물건까지 갖추어 표현하였다. 인물상 가운데에는 시녀상과 여러 가지 동작과 새 모자풍의 갓을 쓴 기예상, 엄한 표정을 한 무사상 등이 있다. 동물상 가운데에는 개, 소, 돼지, 닭, 양, 집오리, 올빼미, 말, 낙타 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형 토우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외에 개, 소, 닭 등의 소형 동물상은 단독의 상보다 군상(群像)을 이루어 배열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가축이 주가 되지만 사악(邪惡)을 쫓는 영명한 짐승도 제작되었다. 이 밖에도 돼지우리, 양과 오리 사육장, 양 위에 탄 목동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한대(漢代) 용(俑)의 특징은 쌀 찻는 인물, 청소와 빨래하는 하녀〔下婢〕의 모습과 農舍(탈곡·제분의 작업장, 혹은 納屋)나 곡창(穀倉) 같은 소규모에서부터 몇 층을 쌓아올린 호화로운 누각을 비롯하여 우물, 아궁이 등도 제작하였다.

진대(晉代)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끝이 뾰족한 투구〔盔〕를 쓴 모습은 한대 용에는 없었던 것으로 시대의 변화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림 8>. 옷자락이 원통상(圓筒狀), 또는 원추상(圓錐狀)으로 아래로 퍼져 그대로 땅에 닿도록 표현한 것 또한 진대(晉代) 용(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진(西晉)에서는 항아리 위에 토우를 장식하였으며, 기마인물상, 집 등 소재가 다양해졌음을 예로 들어 3~4세기 서진의 문화가 신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⁵⁶⁾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56) 김성혜, 2004, 「삼국시대 신라음악문화사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음악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p. 166.

북조시기에는 또다시 토용의 제작이 활발해졌다. 인물상은 물론이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裝馬〕, 낙타, 거마(車馬), 진묘수(鎭墓獸)에 이르는 장례 행렬 등이 있으며, 북조의 토용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무인(武人)이다 <그림 9> .

낙타가 이 시기에 등장하며, 손으로 빚어 만든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범제(范製)이며, 환원염 소성이 강하게 되어 회도(灰陶)보다 흑도(黑陶)에 가깝고 안정감이 좋도록 기관(基板)을 붙여 만든 상(像)이 많아졌다 <그림 10> .

수대(隋代) 인물상 가운데 남자는 복두(幘頭), 여자는 쌍계(雙髻), 고계(高髻) 등의 머리 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며, 호복(胡服)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형면(成形面)에서도 속이 비어 있는 원통형(円筒形)으로 만들어지며, 동물 토용의 종류로는 말, 낙타, 개(犬) 정도로 단순화되었다. 건축물의 모기(模器)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조시대와 유사한 양상이다 <그림 11·12 참조> .



<그림 8> 西晉 토용



<그림 9> 北朝 토용



<그림 10> 隋 토용

(출처: 古宮博物院, 2007, 『古代陶俑』, 北京:紫禁城出版社, p. 53(左), p. 61(中), p. 88(右))



〈그림 11〉 춤·악기연주 토용

(출처: 북경 중앙미술학원 미술사계 중국미술사교연실 편저/박은화 옮김, 1998, 『간추린 중국미술의 역사』, p. 69(左), p. 70(右))



〈그림 12〉 수유 중인 토용

(출처: 故宮博物院, 2007, 『古代陶俑』, 紫禁城出版, p. 27)

2) 일본

일본에서는 신석기시대 조몬(縄文) 중기이후부터 다량의 토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림 13〉, 인형을 흙으로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돌로써도 제작하였다. 초기에 만든 토우는 작고 간단한 것이 많고, 시대가 흐르면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주로 패총 등의 유적에서 머리과편, 동부(胴部) 상반, 하반, 다리부분 등이 파손된 채로 출토되었다.

토우의 제작 의도에 대해서는 주물설(呪物說), 안산호부설(安産護符說) [애기를 무사히 낳게 하는 부적설], 완구설(玩具說), 신상설(神像說), 장식품설(裝飾品說), 호부설(護符說) [부적] 등으로 보는 견해⁵⁷⁾가 있다.

조몬시대 초창기 유적 가운데 愛媛縣上浮穴郡美川村 上黒岩岩陰 유적에서 비너스라 불리는 작은 암우(岩偶)가 출토되었다. 약 5cm 내외의 작은 川原石片面的 녹니편암으로, 가는 선으로 긴 머리, U자형의 유방, 허리에 두른 짧은 도롱이 등을 새긴 여성상이다.

57) 小野美代子, 1984, 『土偶の知識』, 東京:東京美術, pp. 129-131.



〈그림 13〉 일본 남자 토우(左) · 여자 토우(右)

(출처: 도쿄국립박물관, 1998, 『특별전 일본의 고고학』, p. 8. 도 80(左), p. 7. 도 78(右))



〈그림 14〉 뱀 장식 토기

〈그림 15〉 뱀 모양 파수 심발형 토기

(출처: 도쿄국립박물관, 1998, 『특별전 일본의 고고학』, p. 88. 도 108(左), p. 1. 도 25(右))

이후 長野顯南半部 山梨縣, 東京都, 神奈川顯 北半部 부근을 중심으로 폭넓은 조몬 문화중기의 승판식(勝坂式) 토기 문화권에서는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쳐든 사실적인 뱀의 모습을 한 토기 <그림 14>, 뱀을 파수로 한 심발형 토기를 비롯하여 살모사를 표현한 느낌이 있는 것도 있다 <그림 15>. 이외에도 파충류의 뱀, 양서류인 영원(蟾蜍)⁵⁸⁾을 토기의 구연부에 만들어 붙인 것도 확인되었다 <그림 16>.

토우의 출토양상을 보면 주거지 내의 토기폐기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와 마쓰리⁵⁹⁾를 행한 유적의 경우 제사구역 내에서 돌과 토기



<그림 16> 뱀 장식 바리(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5, 『일본미술』, p. 57. 도 3)



<그림 17> 아기를 안은 엄마(출처: 全國埋藏文化財協議會, 1998, 『日本列島發掘展』, p. 47. 도 146)

- 58) 작은 도마뱀과 유사한 동물이다. 몸통은 길고 가늘며 도마뱀과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 피부는 물에 있을 때는 물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부드럽고 얇지만 물 밖에 있을 때는 거친 편이다. 물에 있을 때 피부가 자주 벗겨지며, 벗겨진 피부를 먹기도 한다. 산지, 구릉지대의 개천, 동굴, 연못에 서식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59) 마쓰리(まつり)는 본래 종교적 행위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하거나 축하, 선전 등을 위해 개최하는 집단적인 행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광의의 의미로는 종교적 의식 뿐 만 아니라 장례나 제사,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식, 죽은 영혼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례, 부정을 씻는 행위 등도 포함하는 말이다.

가 섞여 출토된 경우가 많다. 토우의 손과 발, 머리가 파괴되었다. 특히 동부와 팔, 허리부분이 파괴되어 마을과 광장에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는 것을 볼 때, 토우의 파괴는 의식적으로 훼손(毀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입석(立石)유적의 경우 주거지가 발견된 경우 배석(配石)지대의 둘레에서 토우가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조몬 중기의 토우에는 어린아이를 안거나, 등에 업고 있는 모습, 어린 애기를 안고 젖을 주고 있는 모습 등이 있다 <그림 17>. 그리고 동북지방에서만 출토되는 무릎 꿇고 읍하는 자세의 토우가 있다. 특히 무릎 꿇고 읍하는 모습에 관해서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휴식을 취하는 자세, 또는 동남아시아의 묘 앞에 세워져 있는 상(像) 가운데 읍하는 자세의 상을 조선신(漕船神) [배를 조종하는 신] 으로 보기도 한다.

조몬 중기이후부터는 고의로 신체의 특정 부분을 깨어 버린 것으로 보아 인간의 몸에 닥치는 병이나 재해를 토우에 전가시키려는 주술신앙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후 야요이시대 토우는 소량 확인되었으며, 『日本書紀』에 따르면 4세기 전반 수인천황시대(垂仁天皇時代) 고분 주위에 세워 둔 원통형 인형 장식인 하니와(埴輪)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를 이어 토기에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장식한 5세기 대 스에끼(須惠器) 등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었다.

3) 호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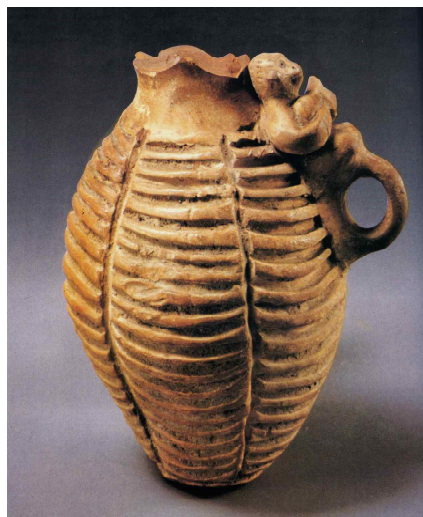
중화인민공화국 호탄지구 호탄의 요트칸지역⁶⁰⁾은 10세기 말 이슬람의 진출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도성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지하 3~5미터 지점에서 많은 테라코타가 발견되었다 <지도 1 참조>.

2~4세기경에 제작된 낙타, 말, 원숭이, 새, 뱀 등의 동물상을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인물상을 틀에 찍어 토기의 표면 등에 연속문양과 같이 부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문양이 완전하게 부착된 상태로 출토된 토기는 거의 없다.

60) 호탄 시내에서 서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유티안(Yutian: 于田) 왕국시대의 도시였다.



〈지도 1〉 호탄지역 위치



〈그림 18〉 2-4세기 요트칸지역 출토 토우 및 토우장식 토기(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3, 『西域美術』, p. 85. 도 77(左)) (新疆美術攝影出版社出版, 1993, 『中國新疆古代藝術』, p. 38. 도 59(右))

강보에 싸인 어린 아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남근을 쥐고 있는 원숭이, 남근이나 여성의 성적 특징을 강조한 동물상, 남녀합체상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⁶¹⁾ 토우에 채색을 하지 않은 점은 신라 토우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림 18〉.

이외에도 유럽, 메소포타미아, 시베리아 등 구아세아대륙 각지에서 풍만한 허리, 늘어진 유방 등 임신 중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여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는 신앙행위의 소산물로 추정되는 토우가 출토되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토우에 투영된 표현의 공통 요소는 대부분 풍요, 다산 혹은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비는 주술적인 의미 또는 신체의 특정 부분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몸에 닥치는 병이나 재해를 토우에 전가시키려는 주술신앙의 목적으로 토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우의 형태들이 다양해졌으며, 토우의 기능 또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라 토우의 정의

흙을 구워 어떤 형상을 제작한 것을 토우라 부르며, 그 가운데 신라시대 소형 석곽묘에서 출토되어 그 성격이 뚜렷한 것을 일반적으로 신라 토우라 한다. 1960년대, 토우 연구 초기부터 토우와 상형토기, 토용의 개념이 모호하여 토우라는 큰 범주 속에 상형토기는 용기형 토우, 토용은 독립형 토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라 토우는 부착형 토우로 명명하여 연구되었으나 근래에는 상형토기와 토우의 개념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추세이다.

토우에 대한 정의를 이난영⁶²⁾은 “토우(土偶)는 글자 그대로 토제(土製)의 인형을 뜻하며, 흙으로 만든 작은 인물상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활용구, 집 등 많은 것을 그 모습대로 본떠 나타낸 것을

61) 국립중앙박물관, 2003, 『西域美術』, pp. 295-296; 島田貞彦, 1937, 「中央亞細亞和關出土陶製動物小像に就いて」, 『考古學雜誌』 27・28:508-512.

62) 이난영, 1997, 「신라의 토우」, 『신라토우』, 서울:통천문화사, p. 138.

말한다” 고 하였다.

강우방⁶³⁾은 “토우(土偶)와 토용(土俑)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원래 한자 우(偶)는 허수아비, 인형 등의 의미로 쓰이며, 용(俑)은 순장하는 사람 대신으로 쓰는 인형(人形)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신라 것은 토우(土偶)가 되고 통일신라 것은 토용(土俑)이 된다” 고 하였다. 이외에도 용은 본래 순장 대체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용어이며,偶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물형이나 허수아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토기의 표면에 부착된 장식용(裝飾用)은 토우, 독립된 형태는 토용이라고 정의하였다.⁶⁴⁾

선학들이 내린 토우와 토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첫째,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토우라 하고 독립적인 형태는 토용이라 부른다. 둘째, 토우의 성격에 따라 순장대용품과 관련이 없는 고신라 토우와 순장대용품인 통일신라 토용으로 분류하였다.

고 신 라	—	토우	—	부착형	—	원 시 신 앙
통일신라	—	토용	—	독립형	—	순장대용품

이러한 개념에 따라 분류를 하면 몇 가지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첫 번째는 토기에 부착된 것을 토우, 독립적인 형태를 토용이라 할 경우 고신라 토우 가운데에서도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이 아닌 독립형 토우가 있다. 그 예로 경주 교동 274번지 유적⁶⁵⁾ 문지관련 석군 틈 사이에서 동물 토우가 출토되었고 <그림 19>, 경주 노동동 12 유적 연못에서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공반유물과 함께 독립형의 기마인물형 토우가 출토되었다 <그림 20>.

63) 강우방, 1997, 「신라 토우론」, 『신라토우』, 서울:통천문화사, p. 117.

64) 국립경주박물관, 1989, 『신라의 토용』, 서울:통천문화사, p. 57.

65) 성립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교동 274번지 남천주변 경관정비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근현대층에서 석축, 석군이 확인되었고, 삼국시대 층에서는 석열, 석군, 석축, 도로 1기씩 확인되었다. 금속류, 옥석류 등 4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대체로 6세기 전엽~7세기 중엽의 유물로 확인 된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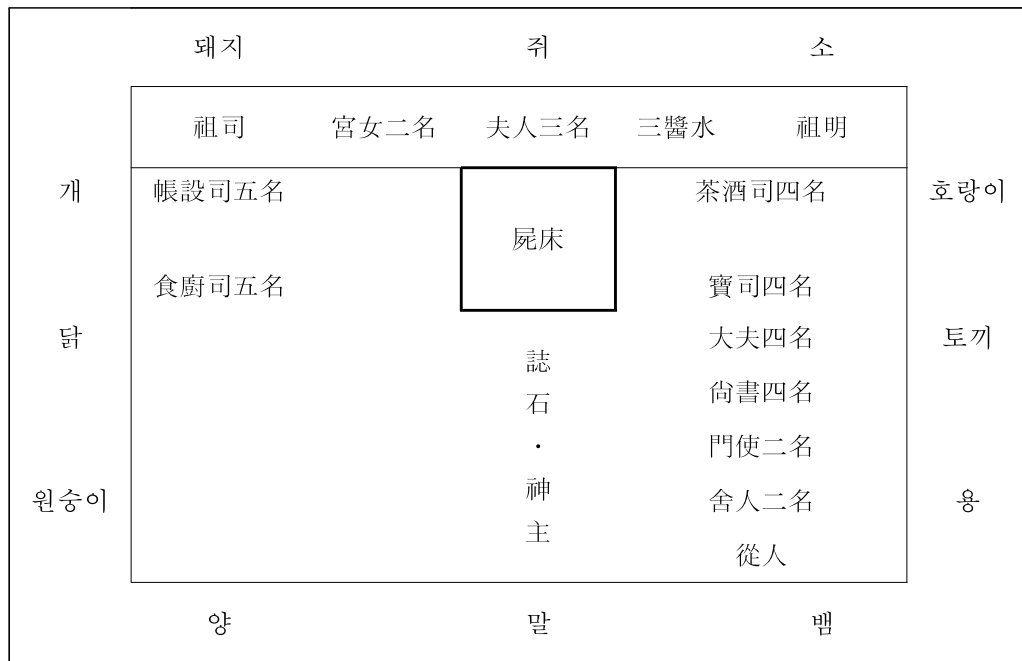
〈그림 19〉 교동 274번지 유적 출토 동물 토우(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교동 274번지 남천주변 경관정비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p. 148. 도 36)



〈그림 20〉 노동동 12 유적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
(출처: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p. 473. 도 482)

이 경우 선학들이 내린 정의를 따르자면 고신라 토우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형 토우이므로 토용이라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토우의 성격에 따라 순장대용품과 관련 없는 고신라 토우와 순장대용품인 통일신라 토용으로 분류 역시 통일신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순장대용품과 전혀 관련 없는 독립형 혹은 부착형 토우를 토용이라 불러야 된다. 이는 본래 용(俑)의 개념과도 어긋나게

된다. 그리고 부착형 토우의 경우 토기에서 떨어진 예도 있어서 독립형 토우와의 구분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토용은 순장대용품으로서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개수와 무덤에서 놓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성격이 명확하므로 토우와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



〈그림 21〉 『大漢原陵秘葬經』 明器 配置圖

(출처: 구인숙, 1989, 「경주황성동고분출토 토용의 복식사적 의미」, 『복식』 13:24. 〈그림 3〉 인용)

따라서 토우와 토용의 구분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제작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순장대용품으로 제작된 것은 토용, 그 이외의 것은 토우라 명명하는 것이 俑의 개념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기준은 출토지이다. 고신라시대 적석목곽분이나 석곽묘에서 출토된 것은 신라 토우, 통일신라시대 횡혈식석실분에서 출토된 것은 토용으로 분류한다. 이외에 신라 토우와 토용의 구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고신라 토우에서 토용으로 변화되는 과도기

의 토우 가운데 출토위치가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횡혈식석실
분에서 출토된 토용이 어느 시점에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5세기중후반
부터 제작되었던 부착형 토우에서 독립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중국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출토지가 불명확한 경우 토우와 토
용의 구분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신체 특정부위의 과장유무, 두 번째는 크
기와 중공의 여부, 세 번째는 채색의 유무와 복식이나 신체표현에 있어서 중
국화 되었는가, 등을 파악한다면 토우와 토용의 구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상형토기의 경우 앞서 보았던 토우의 정의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뿐만 아
니라 동물이나 생활용구, 집 등 많은 것을 그 모습대로 본떠 나타낸 것”이라는
내용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상형토기는 흙으로 만든 인형 [偶] 의 개념보다는 액
체 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



<그림 22>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19, 도 4)



<그림 23> 노동동 12 유적 출토 마형 토우(출처: 신라문화
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번지 유적』, p. 474, 도 484)

따라서 토우의 범주 속에 상형토기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토우와 상형토기의 계보가 달랐음을 다음 4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상형토기와 토우의 구분에 있어서 7세기이후 독립형 토우의 경우

가운데가 비어 있어도 그릇 [토기] 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성과정에서 터짐 방지를 위해 중공(中空) 형태로 제작한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3> .⁶⁶⁾

이밖에도 토기에 부착되었던 토우가 토기에서 분리된 경우 독립형인지 부착형인지의 여부가 어려운 예도 있다. 이런 경우 부착흔이 없고 크기가 10cm 이상의 경우는 독립형 토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신라 토우 · 토용 · 상형토기 비교검토

기왕의 연구에서 신라 토우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함께 연구된 토용과 상형토기의 용도 및 출현 시기, 출토지 등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발달과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선학들이 내린 토우(土偶)의 정의를 보면 인형(人形)뿐만 아니라 집, 생활용구까지도 토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토용이나 상형토기 모두 토우에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고신라시대 토기에 부착된 토우가 다량 출토되어서 문화적 특수성을 띄게 됨에 따라 신라 토우라는 대표성을 띄게 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황혈식석실분에서 순장대용품으로 매납된 경우는 토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서 토우와 토용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모호함이 발생되는 예도 앞에서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신라 토우 연구에 앞서 신라 토우와 토용, 상형토기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라 토우와 토용 그리고 상형토기는 일찍이 원삼국시대 혹은 신라 통일을 전후한 시기 등 출현 시기는 다르지만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먼저 경주지역 분묘유적의 전반적인 분포양상을 살펴본 뒤 신라 토우와 토용, 상형토기의 기능과 기물(器物)의 변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66) 특히 경주지역 출토 상형토기의 특징으로 입수구와 출수구가 따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터짐 방지를 위해서 내부를 비운 중공형태와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경주지역 분묘유적 분포양상

원삼국시대 사로국의 목관묘와 목곽묘는 탐동유적⁶⁷⁾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라 왕경 외곽지인 조양동과 사라리 그리고 월성 북쪽의 황성동 등지에 분포한다. 이후 4세기대가 되면서 월성과 인접한 곳에 왕과 그 일족의 집단묘역인 고총을 축조하였으며, 6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4세기~6세기 대 고총의 축조는 첫째, 월성 서북편 황토지대인 현재의 월성로를 기준으로 (구)팔우정로터리에서 선덕여고 사거리 사이 동쪽에 위치한 인왕동 고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확산되어 쪽샘지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마립간기의 왕을 비롯한 최상위 계층들의 고총 축조는 월성 서북편 방향의 대릉원에서 서북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조영되면서 서봉황대가 있는 노서동고분군에서 종말이 이루어진다.⁶⁸⁾

능묘제의와 관련해서 고구려의 왕릉 주변에는 장군총의 경우처럼 제단(祭壇)과 배총(陪塚)이 있고 아울러 제의와 관련된 예제(禮際) 건축물 그리고 독립적으로 신하의 묘가 배장 되어있다. 신라의 경우도 5세기~6세기 대, 월성을 기점으로 남동-북서간으로 뻗은 마립간기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대형 적석목곽분 주변에서 크고 작은 독립된 배장으로 추정되는 묘가 수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배장묘(陪葬墓)라는 고고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군신 관계를 증명하는 배장제도를 도입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릉원 주변을 왕이나 왕족, 귀족집단의 무덤이 조영된 곳이라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후 법흥왕대부터는 시내외곽지인 선도산, 충효동, 동천동, 명활산 등지로 무덤군이 옮겨가게 되며, 묘제도 적석목곽분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변화되었다.⁶⁹⁾

6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 2, 경주 탐동 21-3번지 유적』.

68) 최병현, 2014,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국고고학보』 90:120-163. “신라 적석목곽분의 배치 구도는 4세기 대에 월성에서 북쪽에 있는 인왕동 고분군에서 시작하여 팔우정로 타리 부근에서 서쪽으로 축조되어 오다가 39호분(구도갈문왕 추정)을 기점으로 90호(말구 추정), 98호(내물왕릉 추정)를 중심으로 1:2차 계획의도가 보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仇道葛文王은 味鄒尼叱今과 末仇의 아버지이며, 末仇는 奈勿王의 아버지이다.

69) 박광열, 2015, 「통일신라시대 제사와 의례」,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년 신라문화특강』, p. 1.

이러한 묘제의 변화상을 바탕으로 신라 토우와 토용, 상형토기의 출현시기와 출토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라 토우의 출현

경주 황남동 일대, 4세기~6세기 대 왕이나 귀족 계급의 고분이 밀집한 대릉원 주변과 그 인근지역에 위치한 소형 석곽묘군에서 토기에 부착된 토우가 대량 출토되었으며, 중·소형의 적석목곽분에서도 출토된 예가 확인된다.

신라 토우가 출토된 분묘는 대부분 석곽묘이고 묘제나 규모 그리고 부장품 등을 볼 때, 왕족이나 상위 계층의 무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충 주변에 입지한 것을 볼 때 특정 계층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묘역에 조성된 고분의 피장자들이 서로간의 혈연성이 전혀 닿지 않음에도 하나의 묘군(墓群)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고분군 내 묘역의 분포를 계급이나 가계 분화와 연결하여, 묘역의 분화가 뚜렷할 경우 계급이나 가계의 분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게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한다.⁷⁰⁾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신라 토우의 출토지는 황남대총을 중심으로 한 대릉원 지역을 둘러싸고 노동·노서고분군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경주시가지와 고분군의 경계와 일치한다. 동쪽으로는 월성로 대로변 서쪽, 남쪽으로는 태종로 대로변을 경계로 했을 때 남쪽 지역에 해당한다.

앞서 연구사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토우를 연구한 선학들의 대부분이 신라 토우는 6세기 말에는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경주 황남동 일대 무덤이외에서는 신라 토우가 출토된 예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경주 곳곳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경주지역 내(신라 왕경) 생활유적에서 토우가 출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새로운 토우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경우 상태가 불량하고 소량이었으므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

70) 김선주, 2010, 「신라 석실분 수용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사상과 문화』 54:183.

이다. 그러므로 6세기 말에는 신라 토우가 소멸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리라 여겨지며, 7세기 이후 신라 토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III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 토용 출토유적

토용은 중국 周나라부터 많은 양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 당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3(502)년 순장제도의 금지 이후,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死後)에도 생시(生時)와 같은 생활을 한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에 따라 시종(侍從), 노비(奴婢), 병사(兵士), 관인(官人) 등의 인형인 토용을 만들어 부장품으로 매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횡혈식석실분에서만 출토된 인형을 토용이라 부르고 있다. 이 횡혈식석실분이라는 묘제는 적석목곽분과는 달리 경주분지를 둘러싼 산지의 능선과 경사면에 고분이 형성되었다. 5세기 후반경 출현하기 시작하여 6세기 초에는 신라 왕경 내에 적석목곽분을 대신하여 주묘제로 자리 잡았다⁷¹⁾고 보기도 하지만, 6세기 후반 정도가 되어서야 주묘제로 자리잡은듯하다.

신라 왕경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고분군은 크게 일곱 군(群)으로 분류된다. 서악동고분군, 충효동고분군, 석장동고분군, 황성동고분군, 용강동고분군, 동천동고분군, 보문동고분군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서악동고분군의 경우 일찍이 6세기 말경⁷²⁾부터 8세기 중엽까지 존속되었다. 용강동고분군의 경우 그 일대는 석실분이 수용되기 이전부터 묘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석실분 수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다만 용강동고분군의 경우 서악동이나 충효동고분군에 비해서는 석실의 규모가 작은 편이며, 고분군 내에서 위계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을 특징⁷³⁾으로 들어 유품품 층이 매장된 고분군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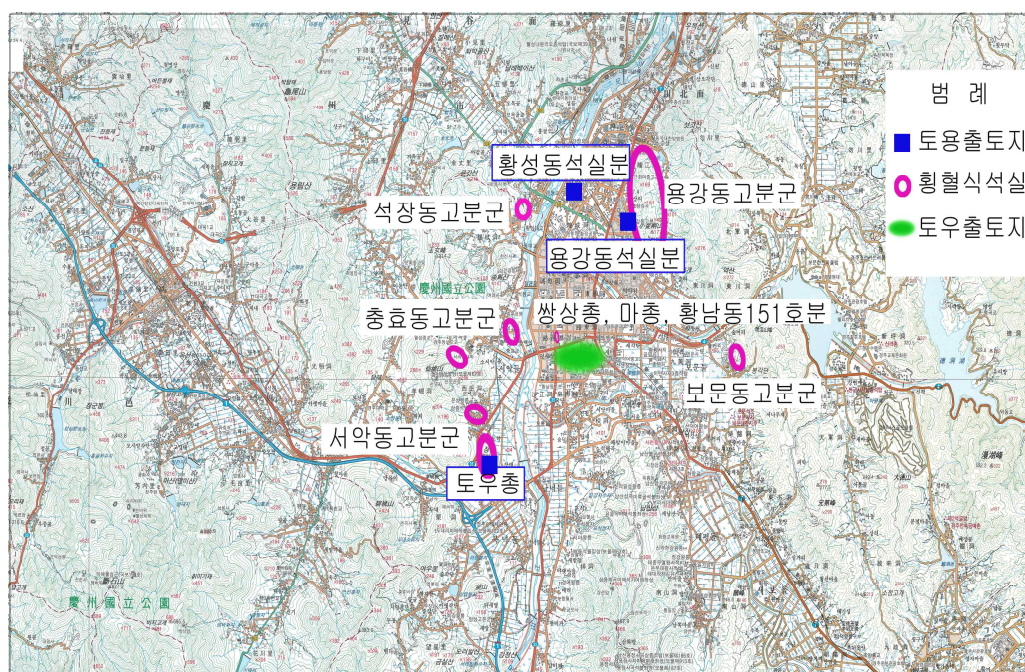
71) 강인구, 1997, 「고고학측면에서 본 삼국시대 시기구분 문제」, 『고고학으로 본 한국고대사』, 서울:학연문화사, p. 134.

72)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 3, 도판 1186-1194 및 해설에 따르면 서악동 석침총을 6세기 말경으로 보고 있다.

73) 김선주, 2010, 앞의 논문, p. 173.

경주의 외곽지만이 아니라 적석목곽분이 밀집한 노서동고분군 내에도 쌍상총(노서동 137호분⁷⁵), 마총(노서동 133호분⁷⁶), 황남리 151호분⁷⁷)등 초기 횡혈식석실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도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토용은 출토되지 않았다.

횡혈식석실분 가운데 토용이 출토된 곳은 경주분지의 외곽에 위치한 장산 토우총과 황성동석실분, 용강동석실분 등 세 곳이다 <지도 2 참조>.



<지도 2> 횡혈식석실고분군 및 토용 출토 석실분 위치

토용 역시 흙이라는 재료로 제작되었으나 조형적인 측면에서 신라 토우와는 달리 성적 표현이 전혀 없고, 신라 토우에서는 거의 생략되거나 특징적인 부분만 표현하였던 복식이나 얼굴표현, 머리모양 등을 세세하게 표현하였다. 다

74) 洪潛植, 2001, 「6~7世紀代新羅古墳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p. 180.

75) 金載元, 1955, 『雙床塚・馬塚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二冊.

76) 金載元, 1955, 위의 보고서.

77) 文化公報部, 1969, 『慶州皇南里一五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文化財管理局古蹟調査報告 二冊.

만 황혈식석실분의 초기단계부터 토용을 매납 하였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초기 토용의 경우 처음부터 중국화 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신라 토우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백토를 바른 후 채색을 하는 등 점차적으로 당(唐)화 된 것이 신라 토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토용이 출토된 유적과 토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장산(獐山) 토우총(土偶塚) 출토 토용

무열왕릉 남쪽 장산 남기슭에 위치하는 장산 토우총은 발견당시 훼손이 심한 상태였으며, 묘실내의 네 모서리에서 토우가 출토되어 토우총이라 명명하였다.

이 고분은 남벽 중앙에 널길이 있는 석실고분으로써, 사방 석축 벽은 크고 작은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서벽은 바닥에서 1미터 가량 올라가 다시 안쪽으로 좁혀 천장을 큰 돌로 막았으며, 벽면에는 흰 강회(剛灰)를 발랐다. 널길과 널방 사이에는 화강석 문을 여닫게 되어 있었다. 널방에는 3개의 시상(屍床)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에는 두 구의 시신을 놓을 수 있도록 하여 모두 4구의 시신을 안치하였다. 모두 회(灰)로 제작한 두침(頭枕)과 족좌(足座)를 갖추었다.

석실분 내에서 토용과 함께 출토된 공반유물은 8세기대로 편년되는 인화문이 시문된 완과 뚜껑이지만, 토용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 석실분 출토 토용보다는 앞 선 시기로 판단된다. 파손이 심하여 형체를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으나 당나라의 영향을 완전히 받기 전의 모습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압지에서 출토된 독립형 토우와 비슷한 유형이고 조형적인 면이 뛰어나지 않은 것을 볼 때, 토용의 초기 형식으로 판단된다 <그림 24>.⁷⁸⁾

78) 석실분은 추가장이 가능한 묘제이므로 공반유물에서 시기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공반유물은 8세기대로 편년되지만 토용만을 보았을 때는 토우에서 발전한 초기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4〉 장산 토우층 출토 토용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6, 『신라인의 무덤』, p. 114. 도 174)

(2) 황성동석실분 출토 토용

이 고분은 마을에서 말 무덤이라 전해져 왔으며,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유구가 노출 되었다. 봉분 바닥지름이 14미터에 이르는 석실분이지만 유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널방 남쪽 벽에 짧은 널길이 이어지는 ‘ㄱ’자형이며, 서벽에 남북으로 붙은 단일시상(單一屍床)이다. 석실 벽석과 호석이 놓이는 자리에는 냇돌을 이용하여 기초를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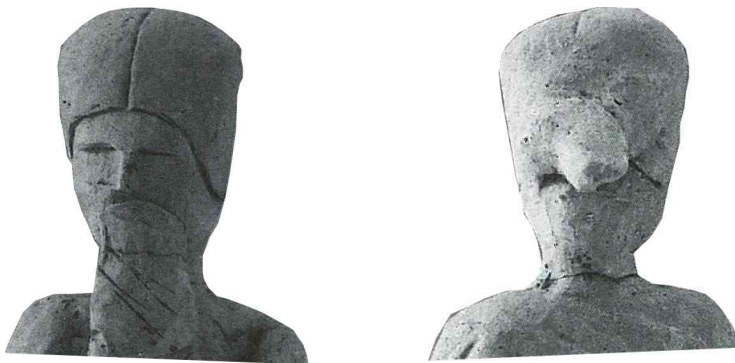
널방 안에는 주검을 눕히는 시상이 있고 그 위에 석침과 족좌가 놓였다. 따라서 관을 사용하지 않고 피장자를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반유물로는 인물용(人物俑), 동물용(動物俑), 수레바퀴와 두침(頭枕), 족좌(足座) 등이 출토되었다.

황성동석실분 출토 토용은 당나라의 영향을 일부 받은 변화과정 중의 모습으로, 7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용강동석실분 출토 토용과는 달리 채색이 되지 않았으며, 인물상에서 신라 통일 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림 25》. 특히 여인의 머리는 우리 고유의 머리 형태이다. 뒤통수 아래에 하나로 묶은 북계(北髻)이며, 남자상이 착용한 변형관모 등에서 고신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6〉.



〈그림 25〉 황성동 석실분 출토 토용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6, 『신라인의 무덤』, p. 102. 도 159)



〈그림 26〉 황성동 석실분 출토 여인 토용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89, 『신라의 토용』, p. 34. 도 21, 22)

(3) 용강동석실분 출토 토용

마을에서 개 무덤이라 구전(口傳)되어 오던 고분이 도굴로 인해서 크게 훼손된 후 발굴조사 되었다. 안팎으로 이중 호석을 돌린 지름 16m의 봉분이 남아 있었다. 동서 2.6m, 남북 2.5m, 높이 2.8m의 정방형에 가까운 석실과 그 남북 중앙에 길이 1.5m, 폭 1m 정도의 널길이 확인되었다. 널방 안에는 북벽과 서벽에 붙여 50cm 높이의 시상이 마련되었다.

이미 도굴되어 부장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나 널방 바닥부분에서 토용과 청동제십이지상 등이 출토되었다. 토용은 남성상 15점과 여성상 13점이며, 모두 백토위에 붉은색으로 채색되었다 <그림 27>.

용강동석실분 출토 토용은 당의 영향을 완전히 받아들인 모습으로, 계급에 따른 복식의 표현 그리고 표면에 채색이 되었다. 남자상의 경우 홀(笏)을 낀 문관상(文官像), 두 팔을 공손히 앞으로 모은 문관상(文官像), 택견 자세의 병사상(兵士像) 등 토용의 종류가 다양하다. 문관으로 보이는 인물상은 복두를 쓰고 소매통이 넓은 포를 착용하고 홀을 들었다. 병사와 무관으로 여겨지는 인물상은 변형 모자, 무릎 밑까지 오는 착수포(窄袖袍)를 착용하였고 포 밑으로는 바지를 착용한 것이 보인다.



<그림 27> 용강동 석실분 출토 토용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6, 『신라인의 무덤』, p. 108. 도 166, p. 109, 도 168, p. 111 도 170)

13명의 여인상 모두 두 손을 모아 공경하게 예를 표하듯 공수(拱手)자세를 취한 모습이다. 특히 정수리 위로 머리를 틀어 올린 두발(頭髮)의 표현은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엷은 머리형식의 고계(高髻)를 하고 있다. 진골(眞骨)부터 4두품까지 착용 가능한 피백(帔帛)을 어깨에 걸치고 있는 높은 지위의 여자상도 있고, 중심인물로 보이는 여자는 활수포(闊袖袍)를 입고 고비리를 착용한 듯 치마의 단 부분이 위로 돌려 올려져 있다.⁷⁹⁾

계급에 따라 복식이나 머리 형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상류층에서는 당의 복식을 다수 수용하여 애용한 반면 하층계급에서는 우리고유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⁸⁰⁾ 토용의 복식을 볼 때 7세기 후반이나 8세기 초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산 토우총을 비롯하여 황성동석실분과 용강동석실분에서 출토된 토용을 보았을 때 고신라인의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참조>.

<표 1> 토용 출토 유적

연번	유적명	묘형	토용 수량	종류	공반유물	토용 연대
1	장산 토우총 ⁸¹⁾	횡혈식석실	4	인물상 4	완, 뚜껑	7세기
2	황성동석실분 ⁸²⁾ (542-1번지)	횡혈식석실	10	남자상 3, 노인머리 1, 동체부-1, 여자상-1, 소-1, 마두 1, 수레바퀴 2	토기완, 석침, 견대	7세기 후반
3	용강동석실분 ⁸³⁾ (1130-2번지)	횡혈식석실	31	남자상 15, 여인상 13, 말 3	청동제십이지신상 7점	8세기 초반

79) 양경애, 1993, 앞의 논문, pp. 37-54.

80) 김정진, 2008, 「경주 용강동 고분출토 토용의 복식사적 의의」, 『한복문화』 11(1):20.

81) 한병삼, 1979, 「統一新羅の土器」, 『世界陶磁全集』 17;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서울: 일지사, pp. 460-46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4, 『경주서약지역지표조사보고서』, pp. 460-468; 洪潛植, 2001, 앞의 논문, p. 154에서 8세기 중엽으로 비정하고 있다.

82) 李康承・李熙濬, 1993, 『慶州皇城洞石室墳』,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7세기 후반초두에 축조되었을

4) 상형토기 출토유적

상형토기는 일찍이 원삼국시대 경주 외곽지역 수장급의 목곽묘 부장품으로 매납 되었으며, 5세기 말까지는 이러한 양상으로 존속되었다. 이 시기 상형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사라리 5호·55호, 구어리 20호, 덕천리 1호·16호·70호·80호·120호 등 주로 경주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이후 점차 신라 왕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바로 원삼국시대 수장급의 목곽묘에서 경주시내 왕릉급 고분으로의 이동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라 왕경지역으로의 권력 집중, 그리고 경주지역 묘제의 변화와 궤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지도 3 참조>.

초기 덕천리 지역에서는 단곽식 목곽의 경우 상형토기의 출토위치가 서단부로 일정하고, 주부곽식일 경우에는 부곽에 위치하는 것을 볼 때, 제의(祭儀)와 관련하여 제기를 놓는 위치 등 일정부분 규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상형토기의 유형에 있어서 3세기~4세기까지는 오리형(鴨形) 토기만 보이다가 5세기로 접어들면서 집모양 토기 [家形土器], 기마인물형 토기, 서수형(瑞獸形) 토기 등으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 역시 앞서 보았던 묘제의 변화 등 당시 신라사회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궤를 함께 한 듯하다.

4세기 후반 마립간기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이고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5세기 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요소가 대거 등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5세기대가 되면서 오리형(鴨形) 토기는 쇠퇴하고 기마인물형 토기의 제작이 늘어나는 것은 새 신앙 전통에서 시조신앙과 결부된 말 신앙으로 변모와 동시에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마립간기 후반에 이르러 신궁제사와 같이 신(神)에 대한 관념과 국가제사의 형식이 형이상학적, 추상화적 관념으로 변화하였고 불교와 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종교가 전래

것으로 추정하며, 복식연구자들에 따르면 7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 83) 구인숙 등 복식연구자들에 따르면 7세기 후반~8세기 초로 비정하고, 文化財研究所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90, 『慶州龍江洞古墳發掘調査報告書』에는 8세기 초중기; 최병현, 1988, 앞의 책, p. 62에서 무덤 양식만으로 봤을 때 황성동 석실분은 7세기 초반, 용강동고분군은 7세기 전반에 축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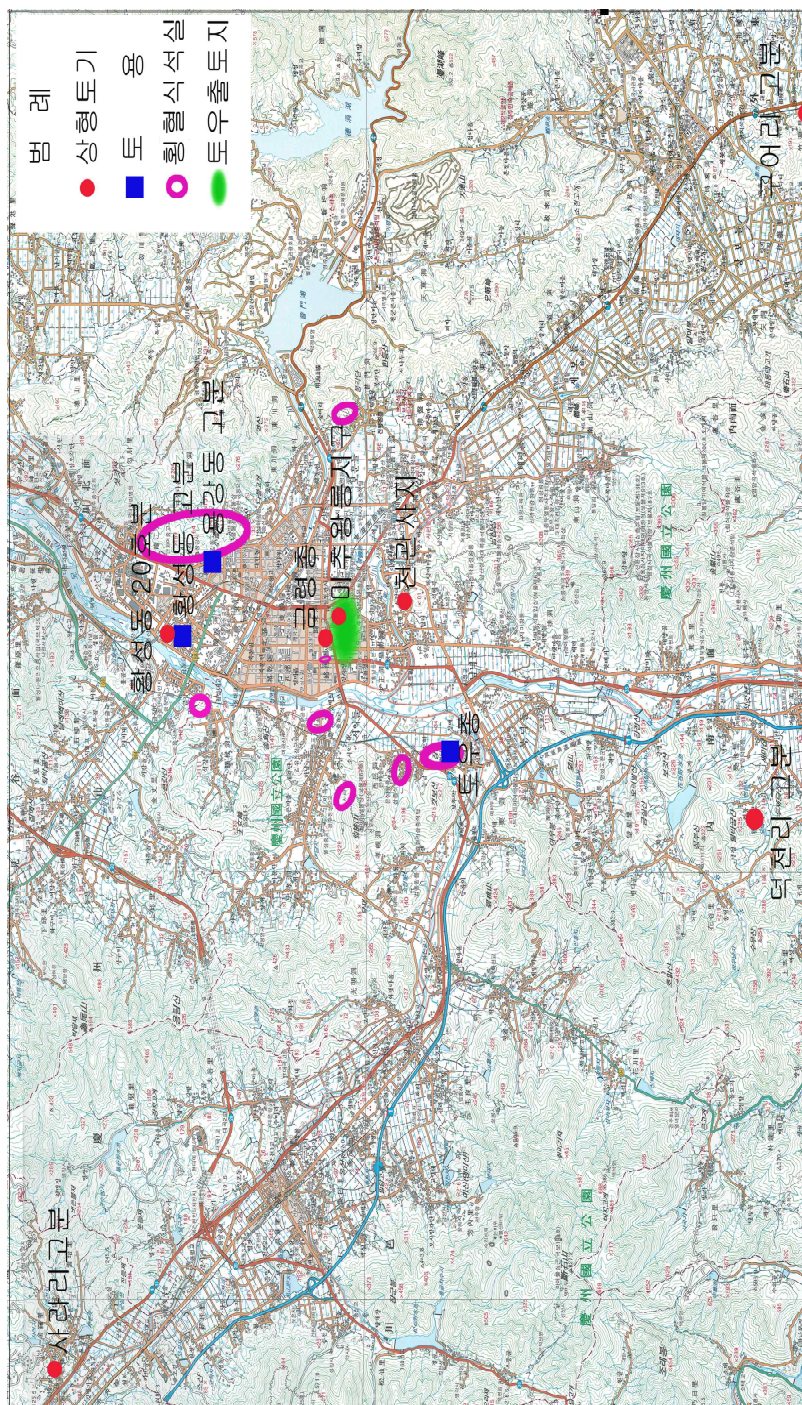
되면서 신라의 원시종교는 점차 쇠퇴하고 제기(祭器)의 변화를 비롯하여 상형토기 또한 소멸되었다고 생각한다.⁸⁴⁾

특히 7세기 대 황혈식석실분에서 상형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것은 불교공인 이후 신라사회 장례의식의 변화상 가운데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상형토기 출토 유적

연번	유구명	무덤형식 (출토위치)	수량 (점)	형태	공반유물	연대
1	경주 덕천리 16호	목곽 (부곽)	2	오리	신선로형토기	3세기 중~후엽
2	경주 덕천리 70호	목곽 (서단부)	3	오리	신선로형토기, 방추차, 경식, 유자이기	3세기 중~후엽
3	경주 덕천리 80호	목곽 (서단부)	3	오리	신선로형토기, 경식, 철모	3세기 중~후엽
4	경주 덕천리 120호	목곽 (서단부)	4	오리	신선로형토기, 철모	3세기 중~후엽
5	경주 사라리 55호	목곽 (주곽)	2	오리	갑옷	3세기 중~후엽
6	경주 황성동 20호	목곽 (부곽)	3	오리	채갈, 교구	4세기 초엽
7			1	수리부엉이		
8	경주 사라리 5호	목곽 (남단벽)	1	집	갑주, 유자이기	5세기 초엽
9	경주 덕천리 1호	적석목곽 (부곽)	1	기마인물	등잔형토기, 이형토기, 주구부용기	5세기 중~후엽
10	경주 구어리 20호	적석목곽 (주구)	1	집		5세기 후엽
11	경주 미추왕릉 C지구 3호	적석목곽 (북단부)	1	서수	투조영락부고배	6세기 초엽
12	경주 금령총	적석목곽 (동단부)	2	기마인물	주구부용기	6세기 초엽
			2	승선		
13	천관사지	건물지주변	1	기마인물		신라~고려

84) 신인주, 2002, 앞의 논문, p. 144.



〈지도 3〉 신라 토우·토용·상형토기 출토 유적 위치

5) 신라 토우, 토용, 상형토기의 계보

토우의 광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신라 토우와 함께 연구되었던 토용, 상형토기의 출현시기와 묘제, 사용 계층, 용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제작된 것은 상형토기이며, 신라 토우와는 출현 시기나 묘제, 사용 계층 또한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삼국시대 경주 외곽지인 덕천리나 사라리 등 지역 수장급 무덤에서 출발하여 마립간기에는 신라 왕정에 위치한 고총의 왕릉급 혹은 귀족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을 볼 때 상형토기를 사용한 계층은 일정계급 이상의 귀족층이라 할 수 있다.

3세기 대 목곽묘에서 출토된 상형토기는 오리형(鴨形) 토기에서 5세기에는 집모양(家形) 토기와 기마인물형 토기 등으로 종류는 늘어났지만 출토지는 제한적이다. 이후 6세기대에는 기마인물형 토기, 서수형 토기, 승선(乘船) 토기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됨은 당시 신라사회의 원시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물 출토양상이나 문헌상에 나타나는 신화 등을 볼 때 삼국시대에는 천조신앙(天鳥信仰)과 천마사상(天馬思想)이 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사자(死者)의 영혼을 내세로 인도하는 장송의례의 도구로 짐작된다.⁸⁵⁾

신라 토우와 토용 역시 무덤 부장품이라는 점은 상형토기와 공통적이지만 왕릉급이나 귀족층의 무덤에 부장되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⁸⁶⁾ 다만 신라 토우와 토용 역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던 부장품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제작 동기에 있어서는 사상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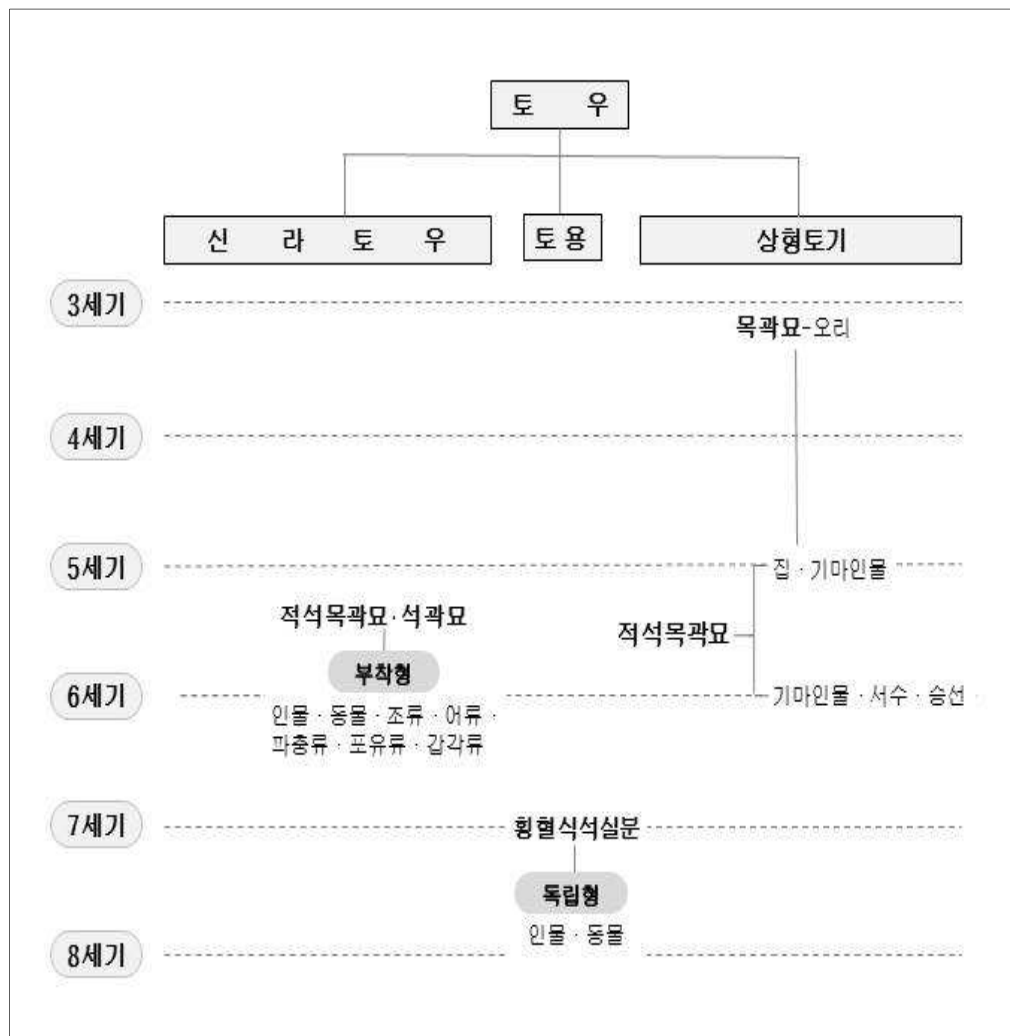
신라 토우는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지증왕 3(502)년 순장제도의 금지로 인해 순장대용품인 토용으로 변화·발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조형적인 측면에서 토용의 초기 형태에는 고신라 토우의 잔영이

85) 신인주, 2002, 앞의 논문, pp. 143-144.

86) 현재까지 출토된 신라 토우 가운데 왕릉급 무덤의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예는 없고,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의 봉토 표면에서 출토된 두 예 뿐이다. 그리고 토용의 경우 이미 도굴된 상태였으나 무덤의 규모나 남아 있던 부장품을 볼 때 왕릉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아있다. 그러나 신체의 특정부위를 과장되게 표현한다거나 얼굴이나 의복, 머리의 표현을 간략하게 혹은 생략하였던 부분 등이 토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신라 토우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순장대용품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채색을 하고, 서역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중국의 복식제도를 따르는 등 변화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표 3〉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른 신라 토우·토용·상형토기 계보



다음 III장에서는 신라 토우와는 계보가 달랐던 상형토기를 제외한, 신라 토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기왕의 연구 성과에서 알려졌던 바와 같이 6세기 이후 신라 토우는 소멸되었는가? 신라 토우의 출토지는 황남동 일대로 제한적인가? 출토지에 따른 토우의 종류에는 변화가 있었는지 등등 5세기 후반부터 통일신라말까지 신라 토우의 변화상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III. 신라 토우 유형 검토

신석기시대에는 주거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던 토우가 5세기 중후반~6세기 대에는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 비록 그간의 공백 기간은 길지만 토우의 제작 목적 혹은 사용 용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왕에 선학들에 의한 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이후 최근까지 발굴조사된 토우 자료를 집적하여 신라 토우 출토 유적의 현황과 유적의 성격에 따른 토우의 종류, 시대에 따른 변천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라 토우 출토 유적 현황

신라 토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량은 일제강점기 파괴된 고분에서 정식발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습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거의 없고, 당시 공사현장에서 토우를 긴급 수습하였던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의 회고록⁸⁷⁾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황남대총 북쪽 일대라는 대략적인 위치 파악은 가능하다 <그림 28 참조>.

이후 1970년대 대릉원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발굴조사에서 토우장식장경호

87)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編曆-發掘調査三十年回想』, 東京: 六興出版, pp. 47-50. 신라토우의 대부분이 이 구역에서 출토되었으나 정식발굴조사에 의한 보고서가 없으므로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한 회고록의 내용을 적었다.

‘大正十五年(1926년)五月, 경주에서 土木工事を 하다가 고분이 출토되었다. ... 土木工事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흙을 채취하는 작업으로 從來의 대구로부터 慶州, 蔚山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狹軌鐵道를 廣軌로 改修하며, 경주역에 기관고를 併設하기 위하여 用地埋立에 대량의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慶州 邑 郊外의 味鄒王陵 근처의 皇南里大古墳群 사이의 발흙을 探掘하여 약 1km 정도 떨어진 기관고용지까지 十數台의 鑛車를 이어 운반하는 대규모의 공사였다. ... 이 지역 고분은 길이 약 2m, 폭 70~80cm 정도의 겨우 한사람을 눕힐 수 있을 정도의 竪穴式石槨으로, 裝身具도 없이 이따금 유리구슬 [琉璃玉] 이나 반지가 발견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부장품은 大小의 壺形蓋付土器나 뚜껑달린 高杯類였다. 특히 ... 이 地區에서 出土된 것은 各種土偶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특히 高杯 뚜껑의 손잡이 주위에 부착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토우의 종류도 실로 다종다양하여, 우선 동물부터 말해 보면, 개, 말, 소, 사슴, 돼지, 범, 멧돼지, 해산물로는 물고기, 거북, 게, 불가사리, 게다가 뱀, 개구리, 도마뱀 등의 과충류에 이르는 풍부한 것이다. 물론 인간의 토우도 많아, 승마나 배를 짓는 인물 혹은 지게로 물건을 나르는 農夫같은 사람 등 당시의 풍습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으나, 우리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인물상의 대부분이 남녀의 성적행위를 지나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림 28〉 일제강점기 신라 토우 출토 위치(서→동)

2점⁸⁸⁾이 출토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월성로고분군에서 토우장식고배뚜껑 3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쪽샘지구에서 토우장식고배뚜껑 8점⁸⁹⁾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라 토우의 출토위치는 황남동 일대 무덤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에 재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선사시대 이후 토우가 많이 출토되어서 그 문화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 바로 신라 토우이다. 하지만 아직 토우에 대한 편년 안이 없으므로 토우가 부착된 토기 또는 공반유물의 편년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라 토우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4세기설이 보편적이다. 빠르게는 2세기 경 발생하여 3세기에는 거의 완성되었으며, 4~6세기에 전성기를 이룬 것으로

88) 계림로 30호분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와 노동동 277번지(노동동 11호분)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이며, 두 점이 함께 국보 제195호로 지정되었다.

89) 보고서 발간 중에 있으므로 유물 수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8점은 현장설명회 자료에 보고된 내용임을 밝혀둔다.

보는 경우⁹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상형토기를 토우에 포함한 경우이고 실제 가장 이른 시기 신라 토우로는 5세기 1/4분기로 편년되는 부산 북천동 32호분⁹¹⁾ 출토 통형기대에 장식된 개와 멧돼지이다 <그림 29>.



<그림 29> 부산 북천동 32호분 출토 통형기대
(출처: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북천동고분군 V』, p. 209. 도 79)

이 토우장식 기대는 주곽의 관상 내에서 출토되었으며, 공반유물로는 발형기대, 고배류, 꺾쇠, 철정 등이다. 관을 고정 시키는데 사용한 꺾쇠나 철정을

90) 이은창, 1981, 앞의 논문, pp. 125-197.

91)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북천동고분군』 V, pp. 157-158. 북천동 32호분은 북천동고분군 북쪽 구릉 중앙정선부에 조성되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봉토는 목가구를 설치하고 쌓은 구조이며, 묘광 사이와 목곽 상부 모두를 돌로 채우는 적석목곽묘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혈주부곽식목곽묘이다. 주부곽 모두 지하식이고 주곽은 남쪽, 부곽은 북쪽에 위치하며 주부곽간 간격은 약 80cm 정도이다. 묘광의 크기는 주곽 710×480cm, 부곽 600×390cm, 깊이는 주곽 265cm, 부곽 215cm이다. 주곽은 흙과 다량의 돌을 섞어 보강한 데 비해 부곽은 흙만을 채워 보강하였다. 토우가 부착된 통형기대는 주곽의 목곽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석곽 내부에 목곽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관을 넣어 시신을 안치하였다.

제외하면 모두 관의 상부에 놓였던 유물이다. 관상 외에는 시신의 두부(頭部)와 우편(右便)에는 고배를 비롯한 다종의 토기가 배치되었으며, 철기는 철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경주지역 신라 토우 출토 유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유적은 황남동 109호분 2곽이다. 이 고분의 축조시기를 300년~350년으로 보는 견해⁹²⁾를 들어 토우장식장경호는 적어도 4세기 초반에는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⁹³⁾ 그러나 황남동 109호분은 다곽분으로, 4개의 곽이 확인되었다.⁹⁴⁾ 토기 편년안에 따르면 황남동 109호분 3곽과 4곽은 330년~40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⁹⁵⁾ 그러나 뱀 장식 토우가 출토된 2곽은 475년~500년 사이로 편년되며,⁹⁶⁾ 금속류 역시 토기 편년안과 동일하므로 신라 토우의 등장시점은 대체로 5세기 중후반으로 여겨진다.

일제강점기 황남동 일대 소형 석곽묘군⁹⁷⁾에서 출토된 신라 토우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경주지역에서 토우가 출토된 유적은 총 40개소이며, 확인된 토우는 451점이다. 아래에서는 토우가 출토된 유적을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표 4>.

토우가 출토된 유적 40개소를 정리해 본 결과 적석목곽분의 경우는 대략 5세기 중후반~6세기 초, 석곽묘는 5세기 후반~6세기 대, 생활유적은 7세기 이후로 분류된다.

92) 최병현, 1981, 「고신라 적석목곽분의 변천과 편년」, 『한국고고학보』 10·11:141.

93) 김인희, 2013, 앞의 논문, pp. 250-251.

94) 朝鮮總督府, 1937, 『昭和 九年度 古蹟調査報告』 1:1-71.

95) 김용성, 2009,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서울:학연문화사, p. 54. <표 3> 주요 신라고분의 편년안 참조. 이희준은 350~375년, 伊藤秋男은 350~400년, 김용성·이한상은 375~400년, 藤井和夫는 350~400년을 제시하였다.

96) 김용성, 2009, 위의 책, p. 54 <표 3> 주요 신라고분의 편년안 참조; 박광열, 2014,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고고학지』 20:71. 伊藤秋男과 藤井和夫는 출토유물 가운데 금속류를 중심으로 편년하였고, 박광열은 토기를 중심으로 편년하였다.

97) 일제시대에 수습된 황남대총 북쪽의 소형고분군, 일명 ‘황남동 석곽묘군’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유적 1개소로 표기하였다.

〈표 4〉 경주지역 토우 출토 유적(표의 연번과 지도 4의 번호 일치)

연번	유적명	출토위치	시대	유형	점수	공반유물
1	황남대총 남분 ⁹⁸⁾	적석목곽분/ 봉토	5세기중반	여자	1	흑색 토기호, 발형기대
2	황남대총 북분 ⁹⁹⁾	적석목곽분/ 봉토	5세기중후반	남자	5	대형 경질토기편
3	황남동 109호분 2곽 ¹⁰⁰⁾	적석목곽분	5세기중후반 ~6세기초	뱀	1	철지은장행엽, 윤등, 철지은장십금물, 철제도자, 철제유자이기, 철제교구, 신라토기
4	쪽샘 B6호분 ¹⁰¹⁾	적석목곽분/ 부곽	5세기중후반 ~6세기초	인물, 동물	14	태환이식, 경식, 유자이기, 철검
5	교동 94-3 일원 유적 ¹⁰²⁾	부장갱	5세기중후반 ~6세기초	개구리	2	蓋, 고배, 소옹, 대부장경호, 철촉
6	쪽샘 F지구 ¹⁰³⁾	수습	-	인물다리, 소	2	
	소 계				25	
7	계림로 30호분 ¹⁰⁴⁾	석곽묘	5세기후반 ~6세기	인물, 동물	19	보고서 미발간
8	노동동 277번지 ¹⁰⁵⁾	석곽묘	6세기	남자, 동물	8	보고서 미발간
9	월성로고분군 ¹⁰⁶⁾	석곽묘	6세기	남자, 뱀, 개구리, 말	4	유개고배, 대부완, 원저호, 대부장경호, 토우부착고배뚜껑, 유개연질발
10	황남동 석곽묘군 ¹⁰⁷⁾	석곽묘	6세기		329	〈표 3〉 참조
11	동천동유적 ¹⁰⁸⁾	토광묘	고려	기마인물	1	옥 장식 검, 동 경
				인물	1	
	소 계				362	
12	교동 274번지 ¹⁰⁹⁾	문지관련 석군	삼국	동물	1	완, 파수대부완, 단경호
13	노동동 12번지 역사문화관 건립부지내유적 ¹¹⁰⁾	연못	삼국	기마인물	1	보고서 작성중
		빨층	통신	기마인물	1	
		소토층	통신	인물, 말2	3	
14	서부동 19번지 ¹¹¹⁾	표토	7세기	말	1	
15	동산리 401번지 ¹¹²⁾	폐기장	6세기말 ~8세기	말	1	수막새, 대부완, 암기와, 백자완
16	월성해자 ¹¹³⁾	토층	통신	기마인물, 인물	2	
		수습		말	1	
	월성해자 ¹¹⁴⁾	수로 주변	통신	인물	1	蓋, 골제품, 갈판, 어망추, 기와류
	월성해자(4호해자) ¹¹⁵⁾	표토	삼국~통신	인물	2	
		1차 북벽		인물	1	박자, 도가니, 수정, 곡옥

		서편					
	월성해자(5호해자) ¹¹⁶⁾	표토		통신	악기연주, 개구리	2	문양전, 막새류, 백자접시, 동전, 어망추, 병, 무문전(근대 정비를 위한 층)
		퇴적층			기마인물, 말, 염소	3	벼루, 토령, 고배뚜껑, 토구
		소토층		7~8세기	멧돼지	1	고식수막새, 배, 완, 방추차, 토구, 철부
17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 ¹¹⁷⁾	연못 앞		통신	기마인물	1	와전류, 연화문전, 방추차, 금동신장상, 자수정
18	동천동 774번지 ¹¹⁸⁾	우물		통신	동물	1	인화문토기, 평저호, 연화문수막새
19	황남동신라건물지 ¹¹⁹⁾	적심건물지		9세기말	말	1	인화문토기, 청동제 과대금구, 당삼채편
		수습		통신	인물	1	연화문수막새, 蓋, 대부완, 주름무늬병
20	신라왕경 ¹²⁰⁾	제3 가옥	수습	통신	인물	2	고배, 완, 蓋, 벼루
			토층		동물		납석제 추, 납석제품
		제4 가옥	수습	통신	인물	2	완, 蓋, 장경호, 벼루
			토층		동물		완, 蓋, 등잔, 방추차, 토구, 벼루, 도가니
		북편 완충지대		통신	동물	1	완, 蓋, 주름무늬병, 토령
		남편 동서도로		통신	동물	1	단각고배, 납석제품, 백자완, 철정
		수습		통신	동물	1	고배, 합, 장경호, 대호, 방추차, 벼루
21	분황사 ¹²¹⁾	석군		통신	인물, 과충류	2	토구, 벼루, 철제품
22	성건동 204번지 ¹²²⁾	도로 상면/수습		통신	말	1	인화문토기병, 저부편, 대각편, 어망추, 사자문수막새, 전돌, 암키와편
23	황남동376번지 ¹²³⁾	수습	6세기후반~ 7세기후반	현악기	1	완, 蓋, 고배	
				개, 인물	2	대부완, 유리도가니, 개뼈	
24	교동56-4번지 ¹²⁴⁾	건물지		통신	새	1	고식수막새, 단판, 중판타날기와, 벼루
25	인왕동 왕경유적 I ¹²⁵⁾	건물지		통신	동물	1	蓋, 과수, 시루, 토구, 대각
26	왕경지구내가스관매설지 ¹²⁶⁾	조사갱		통신	취	1	전돌, 당초문 내림새, 사자문 막새
27	성동동 201-1번지 ¹²⁷⁾	수혈		통신	동물	1	투창 3개의 고배, 대호
28	안암지 ¹²⁸⁾	수습		통신	인물, 거북, 동물	3	토기류, 금속류, 와전류
29	천관사지 3차 ¹²⁹⁾	담장		통신~고려	표범	1	중판타날 기와, 호 동체부편
		건물지			인물	1	蓋, 토구, 도가니, 인화문 대부완편, 원반형 토제품

30	인용사지 4130)	십자형 건물지	8세기후반	인물	1	곡옥, 소형불상, 백자, 청자
31	사천왕사 2131)	건물지	통신	백	1	청자, 청자 잔, 중국 백자잔, 청자대접
				수달	1	귀면와
32	금장리유적 ¹³²⁾	수습	8~9세기	동물	1	귀면와, 기와, 토제품
33	인왕동 412번지 유적 ¹³³⁾	우물	8~9세기	동물	1	연화문수막새, 무문전, 인화문병
34	동천동고대도시유적 ¹³⁴⁾	우물	7후반~ 10세기전반	동물	1	특수기와, 평저호편, 사각편병편, 대부장경호편, 줄무늬병편, 주름무늬병편, 대호, 인화문 토기편
		우물	7후반~ 11세기전반	동물	1	벼루편, 편병편, 대부편구병, 인화문토기편, 대호편, 평기와편
35	재매정지 ¹³⁵⁾	조사경	통신~고려	새, 사슴	2	소형절구, 합, 단경호, 무개고배
		기타	삼국~고려	남자, 여자, 인물	3	보고서 작성중
36	노서동 26번지유적 ¹³⁶⁾	수습	통신~조선	인물	1	청자, 백자, 분청사기, 사자문수막새, 연화문수막새
37	불국사경내정보박물관 부지 ¹³⁷⁾	부식토층	고려~조선	수달	1	청동도장, 향로, 거울, 중국자기, 기와
38	인왕동 왕경유적Ⅲ ¹³⁸⁾ (경고진입로)	건물지	8세기 전반	동물	1	인화문토기, 수기와, 암기와
39	동궁과 월지 ²¹³⁹⁾	석축유구	통신이전	인물	1	토구, 대각편, 이형와
		남-북트렌치		말	1	뚜껑편, 대부완
40	충효동 100-14번지 유적 ¹⁴⁰⁾	지표	청동기~신라	인물	1	토구, 어망추, 토기편
소 계					65	
합 계					451	

9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a,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9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b,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100) 朝鮮總督府, 1937, 「慶州皇南洞第百九號墳」,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10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경주 쪽샘유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성과, pp. 36-40.

102)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교동 94-3번지 일원 유적』.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고 부장갱만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분묘는 5~6세기대로 추정되며, 대릉원지역 이외에도 남천 남쪽지역 에도 고분군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10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Ⅳ』.

104) 경주 계림로 30호분, 보고서 미발간.

105) 경주 노동동 277번지, 보고서 미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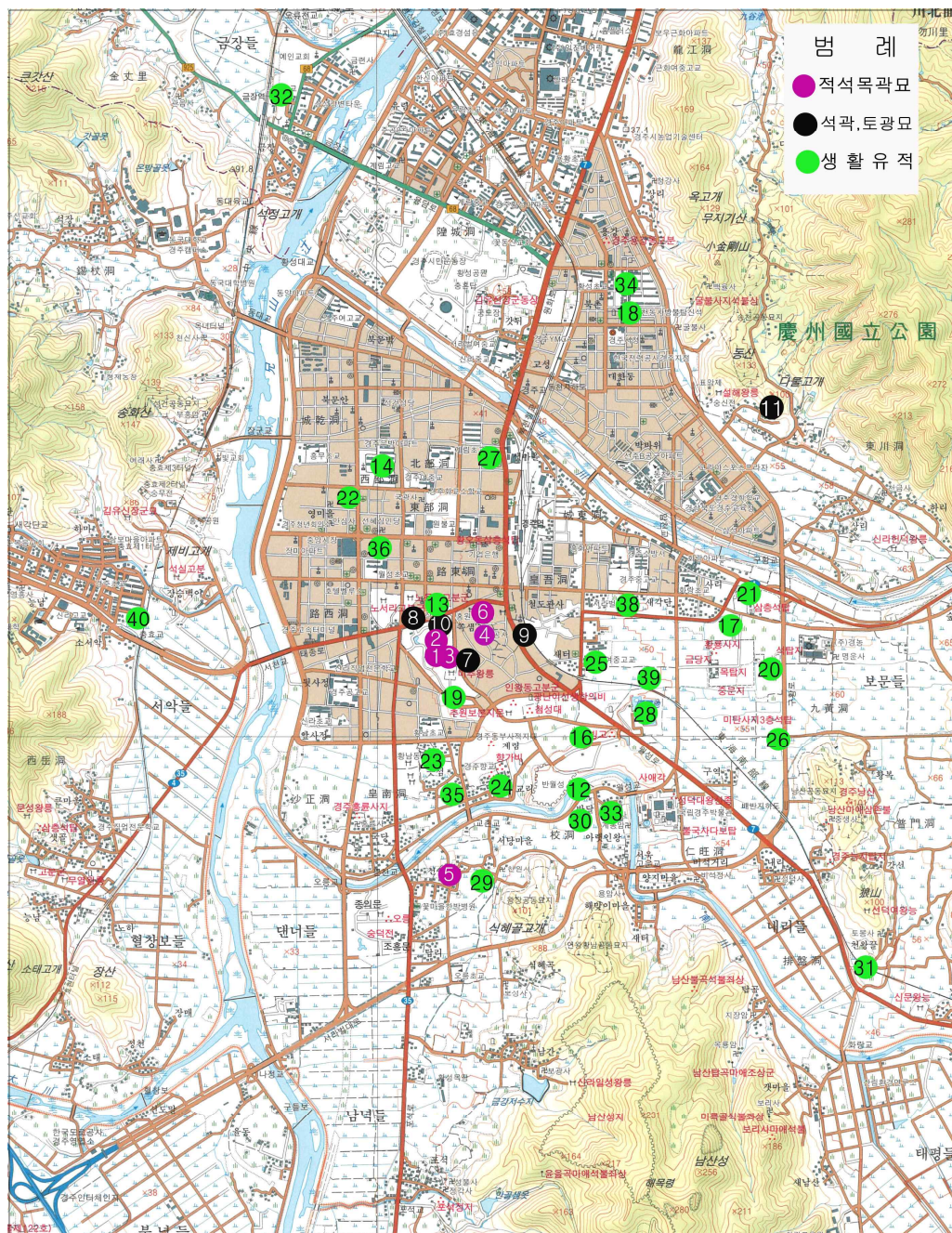
106)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1990, 『경주시 월성로고분군』.

107) 일제시대 수습된 신라토우 일괄 - 전체 토우 수량과와이 여의치 않아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 박물관에서 발간한 신라토우 도록에 실린 토우 가운데 출토지가 황남동으로 명시된 토우를 <표 3> 으로 정리하였다.

108) 대구대학교박물관, 2002, 『경주시 동천동유적』.

토우 출토 유적의 분포양상을 보면 월성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집중되었다. 넓게는 東으로 낭산 이서, 西로는 형산강 이동, 南으로는 도당산 이북, 北으로는 소금강산 이남에서 확인된다. 더욱이 분묘유적의 경우 대릉원을 중심으로 황남동 일대에 집중되었으며, 생활유적은 월성주변에서 북천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지도 4 참조> .¹⁴¹⁾

-
- 109) 성립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시 교동 274번지 남천주변 경관정비공사 구간내 유적』.
 - 110)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번지 유적』.
 - 11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b, 『경주 서부동 19번지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112)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e, 『경주 동산리유적』.
 - 1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0,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Ⅰ』.
 - 11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b,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 11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Ⅲ(4호해자)』.
 - 1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a,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Ⅳ(5호해자)』.
 - 1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
 - 11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a, 『경주 동천동 774번지 유적』.
 - 1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a, 『경주 황남동 신라건물지 194-11·12번지 대릉원화장실신축부지발굴조사보고서』.
 - 12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신라왕경발굴조사보고서Ⅰ』.
 - 12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5,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Ⅱ』.
 - 1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소규모발굴조사보고서3권-대구·경북』Ⅰ.
 -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경주 황남동 376 통일신라시대 유적』.
 - 12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경주 교동 56-4번지 유적』.
 - 125) 성립문화재연구원, 2013,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Ⅰ』.
 - 12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b, 『왕경지구내가스관매설지발굴조사보고서』.
 - 127)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b, 『경주 성동동 201-1번지 유적』.
 - 12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9,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 129)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천관사지발굴조사보고서』.
 - 13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a, 『전 인용사지발굴조사보고서』.
 - 13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b, 『사천왕사Ⅱ-회랑내곽 발굴조사보고서』.
 - 132) 경북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금장리유적』.
 - 133)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c, 『경주 인왕동 412번지 유적』.
 - 134) 경주대학교박물관, 2009, 『경주동천동고대도시유적-경주시택지조성지구내 7B/L-』.
 - 13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a, 『재매정지 발굴조사보고서』.
 - 13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d, 『경주 노서동 26번지유적』.
 - 137) 경주대학교 박물관, 2006, 『경주 불국사경내 성묘박물관건립예정부지발굴조사보고서』.
 - 138) 성립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Ⅲ』.
 - 13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경주 동궁과 월지Ⅱ 발굴조사보고서』.
 - 140) 경주대학교박물관, 2010, 『경주 충효동 100-14번지 -B지구 유적』.
 - 141) 15번 동산리 402번지 유적과 37번 불국사경내성묘박물관 부지내 유적의 경우 신라 왕경 외곽에 위치하므로 지도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지도 4〉 경주지역 토우 출토 유적 분포도(1:25,000)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체 토우 451점 가운데 절대다수인 386점(85.6%)이 분묘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표 5>. 전체 토우 451점 중에서 359점(79.6%)은 석곽묘, 25점(5.6%)은 적석목곽묘, 2점(0.4%)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생활유적에서 토우가 출토된 예는 29개 유적에서 65점(14.4%)이 출토되었다. 유적 수에 비해서 출토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표 5> 경주지역 토우 출토 유적 분류

구 분	분묘유적			생활유적	합 계
	적석목곽묘	석곽묘	토광묘		
토우(점)/유적(개소)	25 / 6	359 / 4	2 / 1	65 / 29	451 / 40
백 분 율(%)	5.6%	79.6%	0.4	14.4%	100%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5세기 중후반~6세기 대에는 토우의 사용처가 황남동 일대 분묘유적 중심이었다면, 7세기 대에는 신라 왕경내의 생활유적 중심으로 토우 출토지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분포 범위는 확대되어졌으나 출토량은 줄어들었다.

둘째, 분묘유적 가운데서도 토우 출토 유적을 경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볼 경우 황남동에 집중되었지만, 황남동이라는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볼 때는 대릉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월성로, 북쪽으로는 태종로를 경계로 남쪽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이 일대는 고분밀집지역으로, 고분 수에 비해서 토우가 출토된 분묘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신라 토우는 특정 가계(家系) 혹은 (종교)집단에 의해 선호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뒤에서 다룰 토우 제작(생산)지 주변의 적석목곽분이나 장인(匠人)의 무덤에서 토우장식 토기 또는 토우가 출토되지 않았다. 당시 토기 생산지는 왕경인이 관리하였고, 일정 지위에 있던 관리(官吏)가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생산유적 주변의 적석목곽분은 관리의 무덤으로 보고되었다.¹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유적 주변 적석목곽분에서 토우장식 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토우장식 토기는 일반적인 무덤 부장품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토우를 무덤에 부장했던 계층은 적어도 적석목곽분을 조영할 수 없는, 신분이 낮은 계층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왕릉급의 무덤이 즐비한 고분군 내에 무덤을 조영하였다는 이유이다. 비록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토우의 수는 적지만 신라 토우의 등장은 적석목곽분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토우가 석곽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적석목곽분을 조영할 수 없는 신분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묘제가 적석목곽분에서 석곽묘로 이행되는 단계에 무덤을 조영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본다. 그 이유로 황남동 109호분 2곽이나 쪽샘 B6호분 등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토기의 편년이 475년~50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석곽묘에서 출토된 계림로 30호분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의 공반유물인 고배뚜껑과 고배의 경우 6세기대로 넘어가지 않는 5세기말로 편년됨에 따라,¹⁴³⁾ 적석목곽분과 석곽묘에 토우장식 토기가 부장되는 시기 차이는 10년 내외이다. 이는 5세기 후반 무렵 적석목곽분의 쇠퇴와 경주 중심지역으로 석곽묘의 도입¹⁴⁴⁾이 어우러진 시대상황을 반영한 무덤 조영의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넷째, 왕이나 왕릉급 대형고분의 경우 매장주체부에서는 토우가 출토되지 않았으며, 중·소형급의 적석목곽묘 또는 석곽묘에서 주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왕의 연구 성과에서 간혹 신라 토우의 출토지는 왕릉급의 적석목곽분이라고 밝힌 예도 있으나 이는 토우의 범주 속에 6세기 대 상형토기를 포함한 연구 결과에서 나온 오류라고 할 수 있다.

14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a, 『경주 손곡·물천리 유적-경주경마장예정부지 A지구』 본문, p. 894. “신라의 상위계층의 무덤으로 알려진 적석목곽묘가 이곳에 축조되어 있음은 이 무덤의 피장자가 당시 요업집단의 운영·관리를 관장했던 왕경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분을 가진 자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고, 확인된 와증조석건물지 또한 이들의 거주공간으로 판단된다.”

143)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 『神奈川考古』 6:121-170. 고배와 장경호를 중심으로 나눈 편년에 의하면 계림로 30호분에서 출토된 공반유물의 편년은 제Ⅳ기에 속하는 480~500년에 해당한다.

144) 조수현, 2003, 「경주지역 초기 수혈식석곽묘의 검토」, 『고문화』 61:52.

2. 출토지에 따른 토우 종류

신라 토우를 시대에 따라 분류해 보면,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토우는 황남동 일대에 위치한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반면에 7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토우는 생활유적을 중심으로 왕경 내에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앞의 <표 4>에서 정리한 토우 가운데 출토위치가 확실한 토우를 중심으로 출토유적의 성격에 따른 토우의 종류와 유적이나 유구의 정형성 유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유적의 성격별로 분류한 후 토우의 종류, 출토양상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1) 분묘유적

(1) 적석목곽분

토우가 출토된 유적 가운데 묘제가 적석목곽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황남동 109호분 2곽을 비롯하여 쪽샘 B6호분 그리고 황남대총 남·북분의 봉토 표면에서 출토된 토우를 포함하여 총 25점이다. 대부분 고배뚜껑이나 장경호에 장식된 부착형 토우이다.

먼저 고분의 편년을 보면, 황남동 109호분과 황남대총 남분의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반유물의 편년안을 참고할 때, 황남동 109호분 2곽은 5세기 중후반이고 황남대총의 경우 현재까지 피장자 연구 성과에 따라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공으로 내물왕(402년 사망),¹⁴⁵⁾ 실성왕(417년 사망),¹⁴⁶⁾ 눌지왕(458년 사망),¹⁴⁷⁾ 자비왕(479년 사망)¹⁴⁸⁾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지만 황남동 109호분 2곽과의 선후관계에서는 최소한 동시기이거나 황남대총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의 경우 매장주체부가 아닌 봉토

145) 최병현, 1981, 「고신라 적석목곽분 연구(하)-묘형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2:1-83.

146) 박광열, 2014, 「신라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금관총과 이사지왕』, pp. 53-76.

147) 김용성, 2003,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42:57-85; 박천수, 2016, 「경주 황남대총의 역연대와 신라 능원의 형성 과정」, 『신라문화』 47:1-18.

148) 김창호, 2000, 「경주 황남대총의 축조 연대」, 『영남고고학』 27:75-84.

표면에서 토우가 출토되었으므로 편년이 확실한 유적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신라 토우 출토 유적 가운데 경주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황남동 109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 되었으며, 네 기의 곱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뱀 모양 토우가 부착된 고배뚜껑은 2곽의 매장주체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고배뚜껑에는 4치구의 집선문(集線文)이 시문된 위에 또아리를 튼 뱀 토우가 부착되었다. 뱀 등에는 원문을 찍었으며, 고배 내부에는 어골(魚骨)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0> .



<그림 30> 황남동 109호분 2곽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및 고배 내부 어골뼈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81. 도 165(左), p. 97. 도 5-2(右))

황남대총 출토 토우의 경우 남·북분 모두 봉토 표면에서 출토되었으며, 공반유물로는 삼국시대부터 근대 유물까지 출토됨에 따라 정확한 편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황남대총 남분¹⁴⁹⁾ 출토 춤추는 여자 토우는 출토 당시 토기에 부착되지 않

14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a, 앞의 보고서, pp.51-52. “봉토 표면 가까이에서 이 고분의 조성 시기와 그다지 멀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물들이 약간 출토되었다. 앞의 봉분 정상부 동쪽 토기류 일괄유물이 출토된 위치의 바로 동쪽에 인접하여서는 無文의 黑色土器壺와 鉢形器臺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上半身이 裸身으로 춤추는 모습의 女性像 土偶가 출토되었다. 봉분 정상부 가까이의 표토 바로 아래에서는 土器 高杯가 출토되었고 봉토 표면 여기저기서 삼국시대 大形 土器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大形 土器의 파편이거나 小形 土器가 단독으로 출토되어 원래와 매장상태를 알 수 없어 이 고분의 조성과 직접 관련되어 매장된 유물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은 채 출토되었으나, “발바닥에는 세워서 소성(燒成)한 것인지 부착되었다가 떨어진 자국이 남아 있다”¹⁵⁰⁾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역시 부착형 토우의 가능성이 크다 <그림 31> .



<그림 31> 황남대총 남분 봉토 출토 여자 토우

(출처: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a,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p. 352. 도 359-4, 5)

황남대총 북분¹⁵¹⁾ 봉토 표면에서 출토된 토기편에는 파상문과 원문이 시문된 위에 남자 토우가 부착되었다. 머리에는 고깔을 쓴 듯 끝이 뾰족하고 오른 손에는 몽둥이, 왼손에는 무언가 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2> .

황남대총 남·북분 출토 토우의 경우 과연 이 토우들을 고분 축조 당시의 것으로 볼 수 있는냐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토우의 편년안이 없으므로 공반유물의 편년을 참고하는 정도인데 고분 봉토 표면에서 출토되었으므로 공반유물의 편년을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남분의 춤추는 여자 토우와 관련하여

15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a, 앞의 보고서, p. 221.

15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b, 앞의 보고서, pp. 42-44. “북분 정상부 기준점으로부터 동으로 약 16m떨어진 지점에서 四方 약 6m 범위의 封墳 표면 가까이에서는 大形 硬質土器들의 파편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 波狀文, 圓點文이 施文된 鉢形器臺의 臺足部 파편들 4~5개에는 人物形의 土偶가 붙어 있었다. 이 大形土器들의 파편은 封墳 표면의 잔디층 바로 아래에 심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각기 다른 토기의 파편들이 겹쳐져 있기도 하였고, 그 겹쳐지고 흩어진 상태로 보아 출토된 위치보다 약간 위에서 파손되어 흘러내린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토기편들은 表土에 위낙 가까이 묻혀 있었고 또 복원 불가능한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 원래 이 고분 봉토 중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럴 경우 어떤 상태로 매장되었던 것인지 이 토기 파편들의 출토상태 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고분축조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장례 의식과 관련 있는 것¹⁵²⁾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런 예가 많지 않으며, 황남동 일대 중·소형의 석곽묘와 석곽묘의 경우 대부분 무덤 내부에서 토우장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춤추는 여자 토우가 고분축조 단계에 매납된 것 인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이 토우는 고분 축조 당시의 유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 황남대총 북분 봉토 출토 토기장식 토기편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59, 도102)

황남대총 남분 봉토 출토 여자 토우의 경우 토기에서 떨어진 상태로 출토되었으므로 토기의 편년을 참고할 수 없다. 따라서 토우만을 보았을 때 첫째, 여자 토우가 입은 치마의 주름 표현은 이른 시기 분묘유적 출토 토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묘유적에 토우장식 토기를 매납했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단계별 변화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황남대총 남분 봉토 출토 여자 토우의 치마에 표현된 주름의 경우 신라 토우가 대량 출토된 황남동 석곽묘군에서 출토된 여자 토우의 치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 옆으로 벌린 팔의 굴곡과 손가락의 자세한 표현 등은 5세기 후반 석곽묘 출토 토우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다. 특히 황남동 석곽묘군 출토 치마 두른 여자 토우의 한 예를 보면, 얼굴이나 옷의 자세한 표현은 생략되었으며, 제작기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림 33〉. 따라서 이 두 점의 토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황남대총 남분 봉토 출토 여자 토우는 발달된 형식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토지가 확실하지 않은 여자 토우 중에서 치마에 주름이 표현된 한 예가 있다

152) 이난영, 1997, 앞의 논문, 서울:동천문화사, p.142. “춤추는 모양의 토우나 잡기를 실연하는 모습은 삼국사기 등 고대기록에 나타나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고대잡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 토기들이 죽은 자를 보내는데 필요한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¹⁵³⁾

성적인 특정부위를 강조한 모습이며, 황남동 석곽묘군 출토 토우에서는 보이지 않는 배꼽부분에 뚫린 구멍, 두께가 얇은 부조(浮彫)의 형태를 띠는 등 제작기법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고할 때 경주지역 출토품이 아니거나 동시기의 토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 황남동 석곽묘 출토 여자 토우(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p. 84. M482)

〈그림34〉 여자 토우(출처: 국립경주박물관, 2009, 『신라토우』, p. 53. 도 83)

두 번째는 토우의 출토위치가 매장주체부가 아닌 봉토 표면이라는 점이다.

신라 토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부산 복천동 32호분 출토 통형기대의 경우 관상에 놓였던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월성로 가11-1호분과 토우장식 토기가 대량 출토된 황남동 석곽묘 노출 사진자료를 보면 토우장식 토기는 무덤 내부에 매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36〉. 따라서 고분축조 단계의 장례절차에서 토우장식 토기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의 축적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3) 이 여자 토우의 경우 출토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다만 경남지역 출토품으로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5〉 월성로고분군 가1-1호분 노출양상(출처: 국립경주 박물관·경주시, 1990, 『월성로고분군』, p. 54 도 46)

〈그림 36〉 황남동 석곽묘 노출양상(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4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p. 187 도 3)

셋째, 고분 축조이후 무덤 주변에 부장품을 추가로 매납했거나 후대에 휩쓸려 들어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訥祗王條(435년) 역대릉에 대한 수증(修葺)기사 내용이다.

訥祗麻立干 十九年 二月 修葺歷代園陵

눌지마립간 19(435)년에 이미 왕릉을 수증하였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봉토에서 출토된 이 토우들을 수증 당시 매납된 것으로 보기에 토우의 형식이 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미 435년부터 수증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 후대에도 수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매장주체부가 아닌 봉토 표면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황남대총 축조 단계의 유물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신라 토우가 다량 출토된 석곽묘군의 위치가 황남대총과 인접한 북쪽이고, 황남대총 부근에 무덤을 조영할 수 있었던 집단에 의해 후대에 묻혔을 가능성 혹은 후대의 수증 과정에서 묻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적석목곽분은 묘제의 특성상 매장주체부 내부에는 후대 유물 유입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봉토 표면에는 후대 유물의 유입이 가능하

다고 여겨진다.

황남대총 북분 출토 토우장식 토기편 역시 신라 토우의 소멸기 양식으로 보고 있는 노동동 277번지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에 시문된 토기문양을 비롯하여 부착된 남자 토우와 유사하다 <아래참조> .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로 추정되는 왕 가운데 가장 늦은 자비왕(479년 사망)의 무덤으로 가정해 보아도 토우의 제작기법이나 형식에서 황남동 109호분 2곽 출토 고배뚜껑에 부착된 뱀 모양 토우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황남대총 남·북분 봉토에서 출토된 토우는 무덤축조 당시에 묻힌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쪽샘 B6호 부곽에서 출토된 8점의 고배 뚜껑 외면에는 간략한 집선문 혹은 사격자문(斜格子文)이 시문된 위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성기가 강조된 남자와 여자 등의 인물 토우와 뱀, 자라, 새 등의 동물 토우가 부착되었다 <그림 37> . 토우가 결실된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두 점씩 대칭되게 부착하였으며, 모두 14점이 확인되었다. 토우의 조합상을 보면 성기가 강조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성별이 불확실한 사람, 남자와 새, 뱀과 자라, 새 두 마리, 자라 두 마리로 조합되었다. 인물 토우 가운데 여자상의 경우 머리를 둥글게 표현하고 세부 표현은 하지 않았다. 성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토우, 양 팔로 가슴 앞의 악기를 안고 있는 토우는 남자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악기를 안고 있는 토우는 정수리 부분이 뽕족하여 머리에 무언가 쓴 것 같고 얼굴표현은 생략하였다 <그림 38> . 이 토우의 정수리에 뽕족하게 표현된 부분을 절풍형 모자로 보기도 하며, 이와 유사한 모자 표현을 토용에서는 弁形冠帽¹⁵⁴⁾로 보기도 한다.

동물 토우 역시 표현이 간략하여 구체적인 종류는 판단할 수 없으며, 자라인지 거북인지도 모호할 정도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다만 오리로 추정되는 것들은 꼬리 부분의 아래 위를 눌러서 납작하게 표현하였다.

154) 최연경, 1992, 앞의 논문, pp. 9-11.



〈그림 37〉 쪽샘 B6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일괄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전문가검토회의자료집)



〈그림 38〉 쪽샘 B6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전문가검토회의자료집)

(2) 석곽묘

신라 토우 출토의 대표 묘제이다. 해당 유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황남동 석곽묘군을 비롯하여 월성로고분군 가11-1호분, 계림로 30호분, 노동동 277번지(노동동 11호분) 등에서 토우장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유적의 위치는 황남동 일대에 집중되었다.

월성로고분군 가11-1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에는 5치구의 종집선문이 시문된 위에 남자 토우와 마형 토우 각 한 점씩, 그리고 토우부착흔이 남아있는 고배뚜껑을 비롯하여 삼각집선문(三角集線紋)과 원점문(圓點文)이 시문된 위에 뱀과 개구리 한 쌍이 부착된 고배뚜껑 한 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39> .



<그림 39> 월성로고분군 가11-1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22. 도 13(左), p. 80. 도 159(右))

특히 신라 토우의 조합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림로 30호분 출토와 노동동 277번지 출토 토우장식장경호를 통해서 신라 토우의 조합상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계림로 30호분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에는 집선문과 원점문이 시문된 위에 뱀과 개구리의 조합 세 쌍을 등 간격으로 두고 가야금연주자, 남녀, 거북, 물고기, 오리, 새 등 19점의 토우가 조합되었다 <그림 40> . 이 장경호에 부착된 토우 가운데 남녀의 결합상에 대해서 성행위의 본질이 인간의 성 결합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며, 그러한 과정을 모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원하는 내용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⁵⁵⁾ 이외에도 이 장경호

155) 이종철·김종대·황보명, 1997,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로서의 성」, 『性, 숭배와 금기의 문화:민속학에서 바라본 한국의 성』, 서울:대원사, p. 253.

의 전체적인 상징의미에 대해서 원점문과 집선문은 천지(天地)를 나타내며, 동물과 사람은 천지만물을 뜻하고 음악과 가무로써 신(神)을 즐겁게 하여 死者의 재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한 바 있다.¹⁵⁶⁾

계림로 30호분 출토 장경호와 유사한 노동동 277번지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에도 뱀과 개구리의 조합 세 쌍을 등 간격으로 부착한 후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남자 토우 두 점을 대칭되는 위치에 부착하였다. 남자 토우의 얼굴은 험악하게 생겼으며, 개구리와 뱀의 눈을 각이 진 꼬챙이로 찔러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그림 41>. 토기에 부착된 토우의 경우 대체로 얼굴은 정면을 향하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동동 277번지 출토 장경호에 부착된 토우의 경우 개구리와 뱀의 조합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향하는 모습이다.



<그림 40> 계림로 30호분 출토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41> 노동동 277번지 출토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출처: 손명순 촬영)

156) 손명순, 1999, 앞의 논문, pp. 213-275.

(3) 토광묘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토우가 출토된 예는 대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동천동 유적이 현재까지는 유일하다. 이 유적은 신라 토우가 주로 출토된 황남동 일대와는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지도 4 참조>, 157) 분묘유적에 신라 토우를 매납 한 시기의 하한을 짐작케 한다. 토광묘에서 기마인물형 토우 한 점과 인물 토우 한 점이 각각 출토되었으며, 공반유물로는 옥장식 검, 동경 등이 출토되었다. 지표상에서 청동기 시대 마제석검, 환상석검이 채집되었다. 기마인물형 토우의 경우 양팔과 마두(馬頭)가 결실되었으며 <그림 42>, 인물 토우 역시 양팔과 양 무릎이하가 결실되었다.



<그림 42> 고려시대 토광묘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출처: 대구대학교박물관, 2002, 『경주 동천동유적』 p. 152. 도판 33-4)

이밖에도 천관사지 북쪽에 위치한 교동 94-3 유적¹⁵⁸⁾ 부장갱¹⁵⁹⁾에서 출토된 두 점의 장경호에는 견부(肩部)와 경부(頸部)에 각각 파상문이 시문되었으며, 견부에는 간략하게 표현된 개구리 한 마리씩을 부착하였다 <그림 43>.

토기에 시문된 파상문과 펀칭기법으로 제작된 토우 등을 보았을 때 토우 제작의 초기단계 유물로 추정되며, 대부장경호의 편년을 비롯하여 공반유물의 편년을 참고하여도 5세기 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⁶⁰⁾

157) <지도 4>에 표시된 11번이 경주시 동천동 유적의 위치이다.

158)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교동 94-3 일원 유적』, p. 144. 이 유적은 문천의 남쪽 천원마을에 입지하며, 주변에는 천관사지, 도당산토성 등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는 분묘가 들어서는 고분지역이었다가, 삼국통일 이후 왕경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고분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159)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위의 보고서, p. 77. 매장주체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부장갱만 확인되었다. 부장갱의 규모는 길이 90cm, 너비 85cm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유구 내부에 괘이나 상자를 설치한 흔적이 없는 것을 볼 때 굴광 후 바로 유물을 부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물부장은 비교적 크기가 큰 호와 장경호 등을 먼저 바닥에 배치하고 빈틈과 남은 공간에 연질소용, 뚜껑, 고배 등 비교적 소형의 토기류를 부장하였다. 유물은 토기류 100점과 금속류 5점 등 총 105점이 출토되었다.

160)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위의 보고서, p. 138. 삽도 5 참조.



〈그림 43〉 교동 94-3 유적 출토 토우장식대부장경호
(출처: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교동 94-3 일원 유적』, p. 236. 사진 90-382(左), 383(右))

이렇듯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는 대부분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이지만 고려시대 토광묘 출토 토우의 경우 독립형으로 확인된다.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토기의 문양이나 토우의 유형에 있어서 적석목곽분 출토품과는 달리 석곽묘 출토 토기에 시문된 문양과 토우의 유형이나 조합상이 훨씬 다양하다. 토기에 시문된 문양의 예를 보면 적석목곽분 출토 토기에는 집선문 또는 사격자문 가운데 한 가지만 시문되었다. 반면에 석곽묘 출토 토기

〈표 6〉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장식 토기 문양

문양 기종	사격자문	사격자문 + 원점문	파상문	파상문+ 원문	집선문	집선문 + 원점문	삼각집선문	합계
뚜껑	4	3	6		3		1	17
장경호				6		1		7
잔			1		1			2
토기편	1							1
합계	5	3	7	6	4	1	1	27

문양에는 원점문과 삼각집선문의 조합을 비롯하며, 사격자문, 집선문 등 두 가지 문양 이상을 조합하거나 한 가지 문양만을 시문할 경우 뚜껑 전면(全面)에 시문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기의 기종별로 선호한 문양이 있었던 듯하다. 특히 불가사리와 가재, 맹꽂이가 부착된 토기 세 점의 경우 모두 원점문과 사격자문을 조합하여 시문되었으며, 뚜껑 손잡이 역시 동일하다 〈그림 44~46〉.



〈그림 44〉 황남동 석곽묘
출토 맹꽂이 토우



〈그림 45〉 황남동 석곽묘 출토
가재 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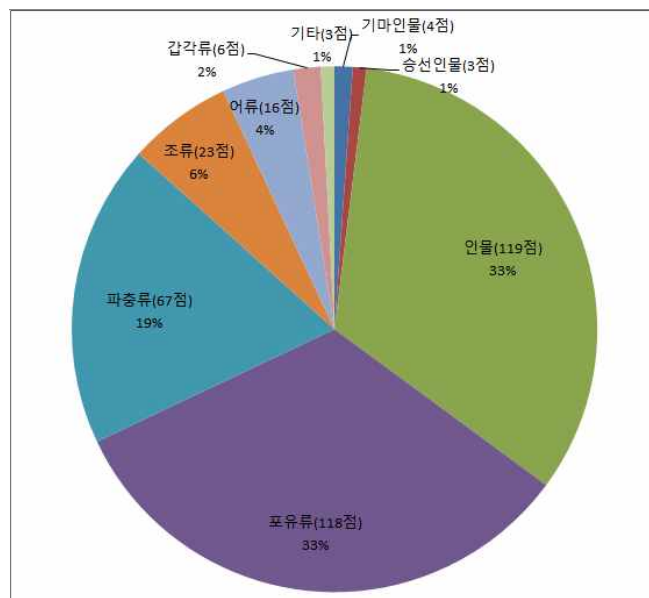


〈그림 46〉 황남동 석곽묘 출토
불가사리 토우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82. 도 166(左), p. 88. 도 187(中), p. 92. 도 198(右))

고배뚜껑에는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었으며, 장경호에는 과상문과 원문 또는 집선문과 원문을 조합하여 시문하였다. 토기에 시문된 문양 가운데 사격자문과 삼각형의 기호는 조화, 양과 음의 합일을 상징하며 우주의 기본 생성 원리를 뜻한다. 그리고 원은 전통적인 태양의 이미지로 반원의 모습일 경우 달의 구조로도 사용되며, 환생, 생성, 순환의 반복을 의미¹⁶¹⁾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출토지에 따른 토우의 유형을 정리해 본 결과 총 40개 유적에서 451점의 토우가 출토되었다 <표 7 참조>. 451점의 토우 가운데 359점이 분묘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분묘유적 가운데에서도 적석목곽분에서는 인물(14점), 조류(3점), 파충류(7점) 등이 확인된 반면에 석곽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토우를 토기에 부착하였다. 석곽묘 출토 토우의 유형으로는 기마인물과 승선인물을 비롯하여 인물, 어류, 조류, 갑각류, 포유류, 파충류 등이며, 이 가운데 인물과 포유류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47> .



<그림 47>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 유형

161) 신민경, 1996, 「원시가면에 나타난 기호성과 상징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 석사학위논문, p. 35.

〈표 7〉 출토지에 따른 토우 유형 분류

토우 유형		분묘유적			생활유적				
		적석목곽	석곽묘	토광묘	월성해자	사찰	건물지	연못, 우물	기타
인물	기마인물	-	4	1	2			1	2
	승선인물	-	3						
	남자	8	51	1					2
	여자	2	22						1
	불명	4	46		6	3	1	1	7
	소계	14	126	2	8	3	1	2	12
조류	가마우지	-	2						
	독수리	-	1						
	새	3	7				1		1
	오리	-	8						
	올빼미	-	1						
	후투티	-	1						
	원앙	-	3						
	소계	3	23				1		1
파충류	거북이	-	10					1	
	맹꽁이	-	2						
	뱀	2	21			1			
	이구아나	-	1						
	자라	3	9						
	개구리	2	19		1				
	용	-	3						
	기타	-	2			1			
	소계	7	67		1	2		1	
어류	불가사리	-	2						
	물고기	-	3						
	메기	-	4						
	말뚝망둥어	-	1						
	십각류	-	1						
	잉어	-	5						
	소계	-	16						

토우 유형		분묘유적			생활유적				
		적석목곽	석곽묘	토광묘	월성해자	사찰	건물지	연못, 우물	기타
포유류	개	-	43						1
	고양이	-	1						
	당나귀	-	1						
	두더지	-	2						
	쥐	-	-						1
	말	-	8		2		1		7
	멧돼지	-	24		1				
	물개	-	1						
	사슴	-	1						1
	소	1	6						
	여우	-	2						
	하마	-	1						
	원숭이	-	7						
	토끼	-	3						
	표범	-	3			1			
	호랑이	-	2						
	개미핥기	-	11						
	족제비	-	1						
	수달	-	1			2			
	염소	-	-		1				
갑각류	소계	1	118		4	3	1		10
	가재	-	2						
	게	-	4						
기타	소계	-	6						
	동물	-	3				3	4	7
	악기	-	-						1
	소계	-	3				3	4	8
합계		25	359	2	13	8	6	7	31

총 계 : 451

유형별로 보면 인물상 126점 가운데 남자상이 51점이다. 그 가운데 31점은 성기를 과장한 모습이며 <그림 48>, 더하여 잡기(雜伎) 혹은 춤을 추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이 22점이다 <그림 49>.¹⁶²⁾



<그림 48> 황남동 석곽묘 출토 남자 토우
(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49> 황남동 석곽묘 출토 남자 토우-잡기
(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50> 황남동 석곽묘 출토 여자 토우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40. 도 48, p. 52. 도 80)



<그림 51> 황남동 석곽묘 출토 등에 지게 진 토우

162) 이난영, 1981, 「漢代 雜伎像과 一部 新羅土偶와의 關係」, 『미술자료』 28:10. ‘漢代의 雜伎는 百戲라 총칭되는데 그 내용은 대단히 풍부해서 이 漢代의 百戲는 角力 馴獸 魔術 등 까지도 모두 雜舞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어 周 秦 以來의 雅舞와 區別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雜伎는 宴會의 뒤에는 반드시 필요되는 것으로 특히 賓客의 접대나 兵士의 위안에 뒤따른다고 하였다.’



〈그림 52〉 황남동 석곽묘 출토 머리에 짐 올린 〈그림 53〉 황남동 석곽묘 출토 공수자세 토우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52. 도 81, p. 51. 도 76)

여자 토우의 경우 22점 가운데 19점은 가슴 혹은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하였으며, 그 가운데 8점은 잡기 혹은 춤을 추는 듯한 자세이다 〈그림 50〉. 이 외에도 짐 혹은 물건을 등에 지거나 〈그림 51〉, 머리에 이고 있는 토우 〈그림 52〉와 손을 앞으로 내밀고 공수(拱手)하는 듯한 모습 〈그림 53〉의 토우에는 성기를 표현하지 않았다.

인물 토우 다음으로 많은 양이 출토된 것은 네 발 가진 포유류이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43점) 〈그림 54〉와 멧돼지(24점) 〈그림 55〉 토우가 5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개미핥기, 말, 원숭이, 소, 표범, 호랑이 순이다.

특히 개(犬) 토우의 경우 꼬리 부분이 결실된 것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부터 짧게 표현하였다. 이는 손곡동·물천리 생산유적에서 출토된 다수의 개(犬) 토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짧은 개 꼬리와 관련한 문헌기록이 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는 머리 뒤에 쪽을 찢다. 신라 국토의 북쪽이 텅 비었으므로 여자들이 뒤통수에 머리채를 땄었다. 그로 인하여 머리 뒤에 쪽을 찢다는 이름이 불리어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개의 꼬리가 짧은 것을 세상에서 동경개라 말하는데 또한 북쪽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¹⁶³⁾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동경의 지형(地形)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형상으로서, 이 지방에 나는 개들은 대부분 꼬리가 없다. 그러므로 항간에서 꼬리가 없는 개들을 속칭 동경견(東京犬)이라 부른다”하였다.¹⁶⁴⁾

위의 기록들을 보면 경주지역이 지형적으로 북쪽이 비었으므로 여자들이 머리 뒤를 쪽 찢다는 일종의 방편(防便)의 풍속을 기록한 것으로, 지형지세에 따른 풍속이나 동물의 형상에 관한 기록이다. 위의 기록들은 민주면의 『東京雜記』(1669년)에 근원을 둔 고려나 조선시대 기록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황성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여자 토용의 쪽진 머리모습 <그림 26>이나 꼬리가 짧은 개 토우의 출토양상을 볼 때 위의 기록들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며, 당시 경주 개의 모습을 토우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는 서식하지 않고 지구 반대편인 멕시코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미핥기 토우도 실견을 한 뒤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라 토우에 개미핥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풀지 못한 부분이며, 앞으로 신라 토우 연구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림 54>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개

<그림 55> 황남동 석곽묘 출토 토우-멧돼지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65 도 118(左), p. 67. 도 124(右))

163) 조철제 역, 2003, 『慶州邑誌』 경주학술 총서 3권, 원문 p. 53, 번역본 p. 161.

女子北髻 羅時以國都北方虛缺 女子結髻於腦後 因明北髻 至今猶然 狗之短尾者 世謂之東京狗 亦以北方之虛故也

164) 이유원, 1871, 『林下筆記』 제11권 文獻指掌編.

과충류 67점 가운데 뱀과 개구리가 40점(60%)이며, 거북이와 자라가 19점(28%)이다. 이밖에도 조류(23점), 어류(16점), 갑각류(6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어류와 갑각류는 다른 종류에 비해서 수량은 적지만 분묘유적 가운데서도 석곽묘에서만 출토된 것이 특징적이다.

토기에 부착되었던 토우를 분리한 채 보관되어 원형은 알 수 없지만 석곽묘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우와 승선 토우를 비롯하여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 성기를 과장한 모습, 가면을 쓴 듯한 모습, 악기연주, 양손을 앞으로 모아 공수(拱手)하는 모습, 잡기를 하는 모습, 물건을 이고 진 사람들의 모습 등을 조합해보면 장례의식 장면을 표현한 듯하다. 즉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저 세상으로 이동하는 수단의 표현 그리고 장례절차에 필요한 행위들을 이들 토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56·57>. 특히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토우의 모습 등은 장례의식에서 진혼과 부활의 기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림 58·59>,¹⁶⁵⁾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V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56> 황남동 석곽묘 출토 기마인물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57> 황남동 석곽묘 출토 승선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165)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상장례」, 『한국고대사연구』 65:56 각주 91 재인용;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서울:지식산업사, pp. 110-111. “예도의 엄숙함을 넘어 삶의 활력을 표현하는 노래와 춤을 포함한 놀이의 성격을 띤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림 58〉 손곡동·물천리 유적
가야금연주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59〉 황남동 석곽묘 출토 약기연주 토우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47. 도 67)

신라 토우에 표현된 주악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양상들을 살펴 토우의 기원을 북방미술 혹은 중앙아시아와의 연관성을 찾는 등 외래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4~5세기 신라사회에는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함께 북방계 유물로 보는 금관, 금동제품, 유리제품 등이 등장하였고 신라 토우의 출현 역시 이와 동시기로 보아 북방계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이식-쿨 호 지방에서 출토된 청동향로(B.C. 5~3세기)의 경우 신라 토기 가운데 굽다리 접시와 유사하며 굽다리에 뚫린 투창과 구연 가장자리에 동물상을 얹어 놓은 모습이다 〈그림 60〉. 이러한 양상들을 신라 토기와 유사성으로 보고 신라에 유입되어 있는 북방적 성격의 미술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북방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하거나,¹⁶⁶⁾ 적석목곽분을 신라 땅에 도입한 김씨 왕권을 북방에서 왔다고 추정하기도 한다.¹⁶⁷⁾ 그러나 최근 적석목곽분과 김씨 왕권의 북방설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¹⁶⁸⁾ 신라 토우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유물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166) 권영필, 1997, 「신라인의 미의식: 북방미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실크로드미술』, p. 198.

167) 최병현, 1991, 앞의 책, pp. 413-415.

168) 강봉원, 2013, 「신라 적석목곽분 출현과 기마민족 이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검토」, 『신라문화』 41:9-133.

때 시간적, 거리적 괴리 등을 감안하면 상관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0〉 중앙아시아 출토 청동향로(출처: 권영필, 1997, 『실크로드미술』, p. 190 도 147)

신라 토우를 외래의 영향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하나는 신라 토우의 출토 묘제를 적석목곽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앞서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왕의 연구에서 신라 토우의 범주 속에 상형토기를 포함하였고, 황남대총 봉토에서 토우장식토기편이 출토됨에 따라 신라 토우 출토 묘제를 왕릉급의 적석목곽분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듯하다. 그러나 실제 신라 토우의 양적인 대부분이 출토된 묘제는 석곽묘이고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예는 있지만 공반유물이나 무덤의 규모를 보았을 때, 왕이나 귀족의 무덤이 아닌 중·소형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라 토우의 출현은 적석목곽분의 소멸단계에 해당되므로 북방에서 유입된 것과는 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하마, 원숭이·구세계 원숭이, 개미핥기 토우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신라 토우는 남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 〈그림 61〉,¹⁶⁹⁾ 뱀이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토우를 예로 들어 북

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그림 39 참조> .¹⁷⁰⁾

예로부터 “동국무원(東國無猿)이라 하여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아 원숭이에 얽힌 이야기가 그리 흔치 않다” 고 하였다.¹⁷¹⁾ 원숭이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 왔는지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다만 『三國遺事』에 따르면 법흥왕 14(A.D.527)년 이차돈이 처형된 뒤에 나타난 자연이변을 묘사한 기사에 “... 곧은 나무가 부러지고 원숭이가 떼 지어 울었다.”¹⁷²⁾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사를 보면 늦어도 527년 이전에는 신라인들이 원숭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림 61> 황남동 석곽묘 출토 원숭이(左) · 구세계 원숭이(中) · 개미핥기 토우(右)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73. 도 141(左) · 도 137(中), p. 74. 도 143(右))

169) 이송란, 2000, 앞의 논문, pp. 465-495.

170) 김인희, 2013, 앞의 논문, p. 240. 뱀과 개구리의 조합상은 “중국 전국시기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朝陽) 링위안(凌源) 산관(三官) 덴즈(甸子) 청동단검묘(靑銅短劍墓)에서 발견된 사합와형동마식(蛇銜蛙形銅馬飾)은 뱀이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문양은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중국 북방의 푸신(阜新) 차하이(查海)유적에서 출토된 도관(陶罐)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춘추전국시기 명기에서 자주 보이는 소재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뱀과 개구리의 도상(圖像)만으로 시기 및 지리적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171) 천진기, 2003, 「한국문화에 나타난 원숭이(申·猿)의 상징성」, 『국립민속박물관』, p.14 재인용.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우리나라(東國)에는 원숭이가 없으므로, 古今의 시인들이 소리를 표현한 것은 모두 틀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72) 『三國遺事』第二 原宗法興 胃犬 滅身條 “獄吏斬之 白乳湧出一丈…… 直木先折 遠 群鳴”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물개, 수달 등을 당시 신라인들이 어떻게 이들의 생태적인 외형특징을 간파해서 표현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¹⁷³⁾

이렇듯 신라 토우에서 나타나는 조합상이나 종류를 예로 들어 토우의 기원을 외래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기도하지만 한반도 내에서도 신라 영토 내에서만 주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시간과 거리 등의 요소를 극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않다. 그리고 앞의 II장에서 동아시아 지역 출토 토우 사례를 보았지만 실제 고대 여러 나라에서 토우를 제작하였으며, 각 민족의 정서에 부합되게 제작되어왔으므로 신라 토우 역시 어디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현재로서는 자체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2) 생활유적

6세기 말이 되면 신라 토우는 소멸된 것으로 보았던 기왕의 연구 성과와는 달리 신라 왕경 내 생활유적에서도 토우가 출토됨을 알 수 있다 <표 7>. 특히 월성 북쪽을 중심으로 월성해자 및 황룡사 동편 신라왕경(S1E1유적) 유적에서 토우가 출토되었으며, 현재 경주시내 지역으로 분포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수량은 많지 않다.

생활유적의 경우 출토지 성격이 분명한 단일유구에서 출토된 경우보다는 표토나 토층 등 불확실한 위치에서 수습되거나 건물지 주변을 비롯하여 월성해자 내부의 퇴적층이나 교란층에서 확인된 예가 많다.

총 29개소의 생활유적에서 65점의 토우가 출토되었으며, 유구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173) 백제의 금동용봉대향로에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과 악어상이 판각되어 있다. 코끼리와 악어 역시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에 서식하는 동물이므로 이 역시 신라 토우의 개미핥기와 유사한 예이다. 어쩌면 6세기 전후시기 신라와 백제의 활동반경이 넓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밝혀야 할 연구과제이다.

〈표 8〉 생활유적 유구별 분류

출토지	안압지/연못/우물	월성해자	건물지/도로	사찰건물지	수습 및 기타 ¹⁷⁴⁾	합계
점(수)	3/1/4	13	6/1	8	29	65
백분율(%)	12	20	11	12	45	100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 가운데 29점(45%)은 표토 혹은 유구의 성격이 불확실한 곳에서 수습되었다. 토우의 종류로는 인물, 말, 추정 동물 순으로 많고 기마인물, 새, 쥐, 개 등 대부분 독립형 토우이다.

특히 월성해자에서 토우의 출토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종류로는 인물, 기마인물, 말, 염소, 멧돼지 등이다.

4호 해자에서 출토된 인물상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수(拱手)하는 듯한 자세이다. 얼굴은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임(右衽)의 저고리 깃 표현과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일곱 개의 작은 구멍을 찍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62〉.



〈그림 62〉 월성해자 출토 인물 토우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II(4호 해자), p. 213. 도 1645)

174)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모르는 퇴적층, 소토층, 표토, 조사갱, 수혈 등에서 출토된 유물을 포함하였다.

5호 해자 표토에서 수습된 토기편은 집선문과 원점문의 문양 위에 약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개구리가 부착된 것으로, 계림로 30호분 출토 토우장식장경호와 거의 유사하다. 주로 7~8세기 대 유물이 출토된 5호 해자 소토층에서는 멧돼지 토우가 출토되었으며,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보다는 큰 형태의 독립형 토우이다. 이러한 양상들을 볼 때, 시기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해자 내부가 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건물지 주변에서도 동물, 말, 새, 인물 등으로 추정되는 토우 편이 수습되었다.

사찰유적 가운데 사천왕사¹⁷⁵⁾와 불국사경내 정보박물관부지 내 유적¹⁷⁶⁾에서는 수달과 뱀이 부착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아래참조). 출토위치를 보면 사천왕사의 경우 서회랑지와 서회랑지 북편 적심에서 출토되었으나 이 구역은 대지조성을 위해 성토한 부분이다.¹⁷⁷⁾ 불국사경내 정보박물관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편의 출토위치는 석축 주변 부식토층이며, 주변에서 고려시대 평기와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천관사지¹⁷⁸⁾ 3차 조사에서도 표범 토우와 인물 토우가 출토되었다 <그림 63·64>. 비록 출토위치는 담장과 건물지이지만, 천관사지의 사역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토우의 출토위치가 외곽에 해당되므로 천관사지 사역(寺域)내에 포함되는 담장과 건물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구별 토우의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대부분 지표에서 수습된 경우가 많고, 출토위치가 확실하거나 시기를 알 수 있는 예는 많지 않다 <그림 65>.

출토위치가 비교적 분명한 유구 가운데 공반유물을 통해 시기 편년이 가능

17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b, 『사천왕사 II(회랑내곽 발굴조사보고서)』, p. 143.

176)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경주불국사경내정보박물관건립예정부지발굴조사보고서』, p. 38.

17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c, 『사천왕사 발굴조사보고서 I(금당지)』, pp. 66-68. 사천왕사를 조영하기 위해 낭산 남쪽 끝부분의 구릉부는 삭평(削平)하고, 삭평한 흙을 외곽의 계곡부에 성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성토층 내부에서는 토기편, 기와편 등이 유입되어 있었으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178)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천관사지 3차 발굴조사보고서』.

한 예로는 교동 274번지 유적의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석군에서 출토된 동물 토우 <그림 19>와 노동동 12 유적 연못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우 <그림 20>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우물 네 개소¹⁷⁹⁾에서 각 한 점씩의 토우가 출토되었다. 우물에서 출토된 토우의 경우 출토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물 토우로 추정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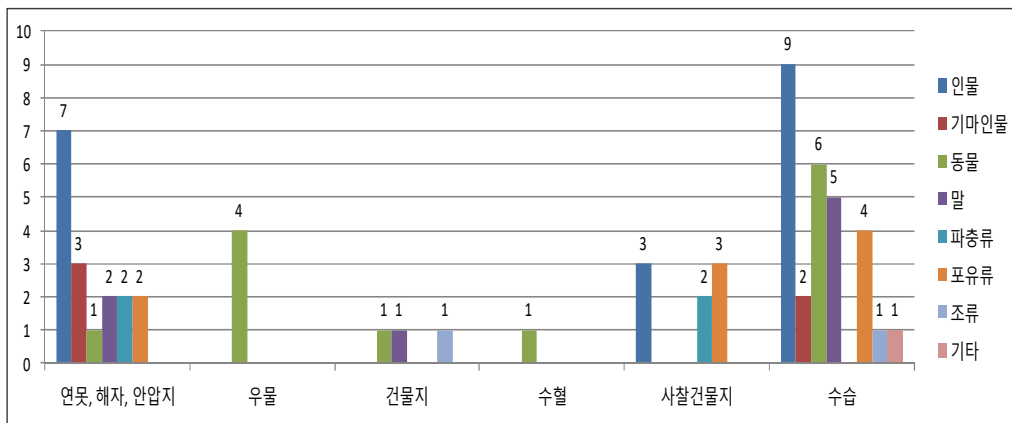


<그림 63> 천관사지 출토 표범 토우



<그림 64> 천관사지 출토 인물 토우

(출처: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천관사지 3차 발굴조사보고서』, p. 481. 도 353(左), p. 489. 도 435(右))



<그림 65> 생활유적 유구별 토우 유형 분류

179) <표 4>의 18번 동천동 774번지 유적과 33번 인왕동 412번지 유적 우물 각 1기씩과 34번 동천동 고대도시유적 우물 두 기에서 동물 토우 각 한 점씩 출토되었다.

출토위치가 분명하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토우의 경우 주로 물과 관련된 유구에서 확인되었다.

물은 특히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사에 의존하던 고대에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물이 존재하는 우물, 하천은 신성스러운 곳으로 여겨 제사가 이루어졌다고도 전하고 실제 우물 내부에서 관련 유물도 확인이 되었지만,¹⁸⁰⁾ 우물 제사와 토우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로는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우물 (기)수에 비하면 우물 내부에서 출토된 토우의 양이 소수에 그치며, 우물에서 출토된 토우 역시 대부분 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물 네 기에서 출토된 공반유물을 통해서도 딱히 제사와 관련될 만한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물과 토우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동 274번지 유적은 월성 뒤흘에 흐르는 남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동동 12 유적의 경우 연못 내부에서 토우가 출토되었으므로 물과 관련된 제사와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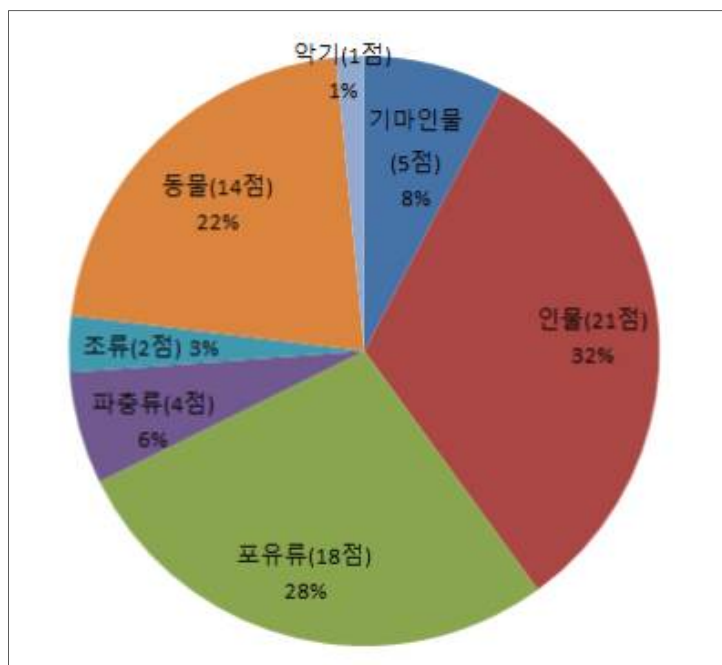
토우의 제작기법 면에서 보면 고신라의 독립형 토우와는 달리 통일신라시대 독립형 토우는 가운데를 비운 중공(中空)형태로 제작기법에 변화가 보인다.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 65점 가운데 마형 토우 여섯 점 중에 다섯 점, 기마인물형 토우 다섯 점 중에 세 점, 동물 토우 여섯 점 중에 네 점, 인물 토우 열 점 중에 두 점 등 총 14점에서 중공형태가 확인되었다. 이는 분묘유적의 부착형 토우보다 크기가 커짐을 뜻하며, 단면상에서 중공 여부를 알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면 그 양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종류를 보면 인물 토우 21점(32%) 가운데 17점(81%)은 신체의 일부분만 남은 정도로 파손이 심하다. 포유류 18점과 형체를 알 수 없는 추정 동물 토우 14점을 포함한 32점(49%) 가운데 15점(46%)은 유형을 알 수 없다. 이렇듯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는 원형을 알

180) 국립경주박물관, 2002, 『국립경주박물관부지 내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b, 『경주 동궁과 월지 I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a, 『전 인용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출토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정형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토우의 종류를 분류해 본 결과 분묘유적의 표지유물인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가 생활유적에서도 지속적으로 출토되며, 분묘유적에서 보다 출토량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4, 그림 66 참조>.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마형 토우 14점(22%) 가운데 다섯 점은 기마인물형 토우로 분류된다. 말 등에 인물상이 부착된 완형의 상태로 출토된 경우는 없지만 말 옆구리에 신체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거나 말안장에만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인물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동 12 유적 1호 연못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우 역시 인물상은 결실되었으나 말 옆구리에 인물상의 발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기마인물형으로 분류가능하다 <그림 20 참조>. 아홉 점의 마형 토우 가운데 대부분이 통일신라시대 유적의 표토나 출토위치가 불확실한 곳에서 수습되었으며, 한 점은 적심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그림 66> 생활유적 출토 토우 유형 분류

3. 신라 토우 제작지 검토

경주 지역에 소재한 생산유적 현황¹⁸¹⁾에 따르면 대략 40여 개 소 정도이다. 이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이 12개소이며, 토우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 유적은 손곡동·물천리 유적과 화곡리 생산유적이다. 본 절에서는 생산유적 두 곳에서 출토된 토우를 비교·검토해 보고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토우의 제작지와 소비지 관계(생산, 유통)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손곡동·물천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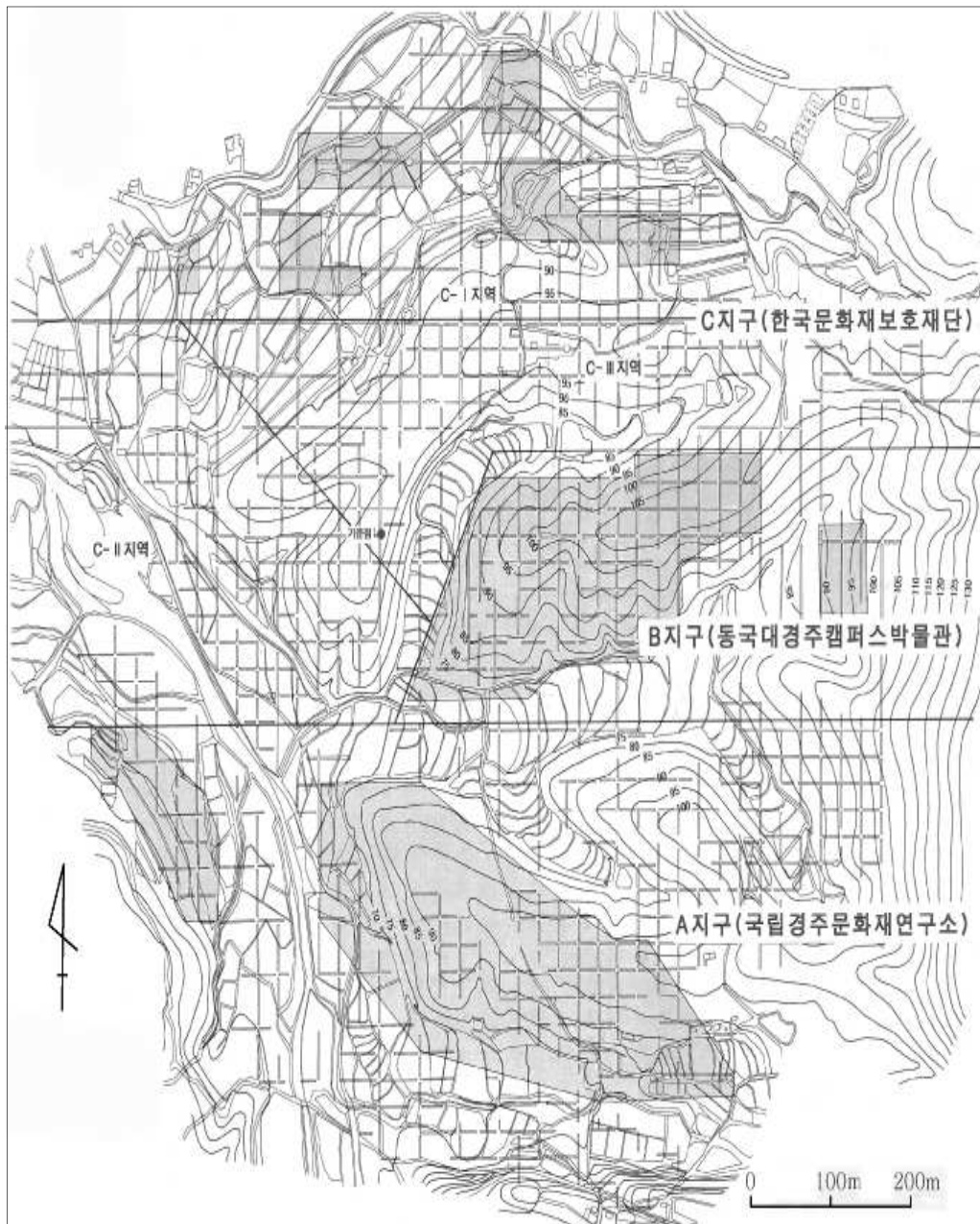
(1) 손곡동·물천리 유적 개요

손곡동·물천리 유적(경주경마장예정부지)은 동편의 동대봉산(해발 465m)과 서편의 소금강산(해발 268m) 사이에 형성된 분지에 위치한다. 구릉과 평지가 만나는 지역에는 남에서 북으로 비교적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유적 주변에는 요업에 필요한 양질의 점토와 물, 풍부한 연료, 그리고 적당한 경사면을 가진 구릉 등을 갖춘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또한 신라시대 이래 조선시대에도 이곳 일대가 요업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¹⁸²⁾

전체면적 176,883㎡를 A, B, C지구로 구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지구와 B지구, 그리고 C지구가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이것은 요(窯)의 입지가 시기에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실제로 손곡동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조업연대가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요의 운영에 필수적 요소인 연료의 공급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도 5 참조>. A지구에서는 가마 및 관련시설물들이 주로 확인된 생활공간이다. B지구에서 확인된 고분군은 A지구 요업집단과 관련된 매장공간으로, 2호 적석목곽묘 내부에서 요체편(窯體片)이 출토되어 공인집단의 무덤으로 추정하였다.

18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a, 앞의 보고서, p. 896.

18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a, 위의 보고서, p. 10. 이곳 일대가 신라시대이래 요업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토기제작에 필요한 풍부한 태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지리적인 요인, 즉 왕경과 이곳이 명활산과 소금강산에 의해 요업 시 생성되는 연기와 냄새 등의 요소가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도 5〉 손곡동 · 물천리 유적 지역 구분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경주 손곡동 · 물천리유적-경주경마장예정부지 A지구』 본문, p. 3 배치도 인용)

특히 적석목곽묘가 이곳에 축조되어 있음은 당시 요업집단의 운영·관리를 관장했던 왕경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분을 가진 자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고, 확인된 와즙초석건물지 또한 이들의 거주공간으로 여겼다.¹⁸³⁾

C지구 가운데 C-I 지구는 6~7세기대의 가마와 고분, C-II 지구는 6~7세기대 가마밀집지역, C-III 지구에는 6~7세기대의 가마와 건물지를 비롯하여 고분이 집중되어 있다 <표 9>.

이와 같이 손곡동·물천리 유적은 생산공간, 생활공간, 매장공간이 세트화 되어 있으면서 서로 구분되고 있어 그들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A지구에서만 토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이들 유구는 대체로 5세기 중후엽~6세기 중후엽에 해당된다.

<표 9> 손곡동·물천리 유적 발굴 현황표

조사 지역	주요노출유구							토우 수	비고
	토기요	기와요	탄요	건물지	석실묘	석곽묘	목곽묘	(백분율)	
A	47	1	17	64	1	1		99	·5세기중후엽 요적 ·6세기중후엽 요적 및 관련시설물
								(97%)	
B	3	1	6		1	9	5	-	·5세기후엽~6세기전중엽 고분
C-I	5		1		7	27		3	·6세기후엽~7세기초엽 요적 및 관련시설물 ·6세기전중엽~7세기중엽 고분
								(3%)	
C-II	17			1		3		-	·6세기대 요적
C-III	11			8	1	10		-	·6세기대 관련시설물 및 고분
계	83	2	24	73	10	50	5	102	

183) 김유식, 2000, 「7~8세기 신라 기와의 需給」, 『경주문화』 7:27-49. 실제 『三國史記』 職官志에 보이는 여러 생산과 관련된 職名들 중 ‘瓦器典’은 기와와 토기의 생산과 공급을 관장하던 부서이고, 8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官瓦 東窯’銘 기와에서도 이미 관영수공업이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우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는 대체로 5cm 내외의 크기이며, 토기에 장식되었던 부착형 토우로 추정된다. 토우가 부착되었던 토기 기종은 대부분 고배와 고배뚜껑이며, 5세기 2/4분기에서 5세기 3/4분기로 편년되기도 한다.¹⁸⁴⁾ A지구에서 출토된 토우는 이미 토기에서 분리된 채 출토된 예가 많으며, C-1지구에서는 뚜껑과 호(壺), 기대(器臺)에 부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우를 인물과 동물로 분류하여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

<표 10>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우 분류

분류	인물	여자		기마인물			성교상			성별불명	불명	소계
		1		4			1(쌍)			30	18	54
	동물	새	오리	뱀	거북	지네	호랑이	말	소	멧돼지	개	소계
		4	10	7	3	1	2	10	1	1	9	48
합계 : 102점												

출토된 토우 수는 총 102점이며, 이 가운데 A지구에서 99점, C지구¹⁸⁵⁾에서 말 토우 1점과 새 토우 2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A지구에서 출토된 토우 가운데 인물 토우로 추정되는 것은 36점(35%)이다. 대부분 성(性)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성교중인 남녀 한 쌍을 제외하면 성별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자 토우 1점뿐이다. 인물 토우의 경우 얼굴에는 가면 혹은 무언가 쓴 듯한 모습에

184) 이희준, 1998, 「4~5세기 신라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 81-83. 편년적 특징은 먼저 개는 모두 대각도치형 뚜껑꼭지를 갖추고 드립턱이 아래로 곧장 직향한다. 고배는 채두원추형(在頭圓錐形)의 직선화된 대각의 중앙에 2줄 돌대를 돌려 대각을 2단으로 구분하고, 장방형투창을 서로 엇갈리게 뚫어 놓았다. 이러한 양식의 신라 토기로는 월성로 가 11-1호, 나 12호가 속하는 IIb에서 월성로 가 4호, 다 12호가 속하는 IIIa기에 해당되는 5세기 2/4분기에서 5세기 3/4분기의 어느 시점에 속하는 것으로 손곡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와 동시기대로 여겨진다.

18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경주경마장예정부지 C- I 지구』, p. 200, 291, 408. 토기요지에서 새 토우 1점, 수혈유구에서 새 토우와 말 토우 각 1점씩 출토되었다.

잡기 또는 춤을 추는 듯한 모습 등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데 주력한 듯하다. 악기 연주상으로는 관악기 연주상 1점, 가야금 연주상 1점이다. 인물 토우의 머리부분 표현 유형을 크게 네 종류로 분류 가능하다 <표 11, 그림 67>.¹⁸⁶⁾



A유형



B유형



(C-①)유형



(C-②)유형

<그림 67>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머리유형(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경주 손곡동·물천리 유적 도판』, p. 348. 도 10, p. 395. 도 13, p. 396. 도 1, 손명순 촬영)

18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a, 앞의 보고서, p. 891. 제작수법상 2종류로 구분하였다. 춤추는 듯한 모양을 한 토우는 모두 머리부분을 양옆에서 눌러 뽕족하게 처리하였고, 눈·코·입 등 세부표현을 생략하였으며, 표면이 거칠다. 죄수형과 한 손을 들고 있는 토우는 머리를 앞뒤에서 눌러 놓았고, 눈을 세로로 그어 표현하였다. 코를 표현하지 않은 점, 그리고 턱을 뽕족이 처리하였고,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였다.

A유형은 머리의 양옆을 눌러 정수리 부분을 뽕족이 처리하고, 눈·코·입 등 세부표현을 생략한 6점, B유형은 머리를 앞뒤에서 눌렀고, 눈을 세로로 그려 표현한 유형 7점, C유형은 머리에 두건을 쓴 듯한 모습이며, 16점으로 가장 많다. C유형의 경우 정수리 표현을 세모꼴로 하여 끝이 뽕족한 유형 5점, 둥그스름한 유형 11점이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인물 토우는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토우의 양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쪽샘유적 〈그림 38(右)〉과 황남동 석곽묘군 등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와 유사한 유형이며, 독립형이 아닌 부착형 토우에서 확인된다. 〈그림 68〉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부분이 결실된 경우를 제외하면 얼굴 표현을 하지 않은 예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얼굴 표현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팔을 벌리고 어떤 행위를 표현한 예가 많이 확인된다 〈그림 69·70〉.

〈표 11〉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유형 분류

유 형	얼굴표현		자 세				기타
	○	×	양팔벌림	앞으로 나란히	한손 허리, 한손 얼굴	불명 (결실)	
1. A유형(좌우누름)	2	4	5			1	
2. B유형(앞뒤누름)	3	4	2	3	2		
3. C유형 (두건)	①세모	3	1	3		1	
	②방형		12	7	2		1
불 명	9		3	1	1	4	
소 계	8	21	20	6	4	6	2
백분율(%)	21%	55%	53%	16%	11%	16%	5%
합 계	38		38				

특히 머리에 두건 혹은 가면을 쓴 듯 표현한 경우는 얼굴의 세부표현을 하지 않은 예가 많다.

이외에도 중국 하남(河南) 안양(安陽) 소둔(小屯)의 묘에서 출토된 손이 묶인 노예 토우와 유사한 예가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그림 71>. 이 토우 역시 얼굴의 세부표현은 하지 않았다. 상체는 앞으로 숙였으며, 양 팔을 뒤로 뻗쳐 손목을 묶은 모습이다.



<그림 68> 황남동 석곽묘 출토 승선 토우(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p.97)



<그림 69>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70>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71>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노예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토우가 부착되었거나 부착흔이 남아있는 토기 기종은 뚜껑(20점), 기대(2점), 장경호(1점)이며, 토기에 시문된 문양은 여섯 가지 정도이다 <표 12> .

<표 12>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기 시문 문양

문양	사격자문+원문	삼각집선문	삼각집선문+원문	점열문	수지형	종집선문	합계
점(수)	1	8	1	1	4	5	20

그 가운데 삼각집선문과 종집선문이 많으며, 수지형 문양을 시문한 뚜껑에는 개 토우와 동물 토우를 부착하였다. 이외에도 뚜껑 손잡이 상면에 토우 부착흔이 있는 3점 <그림 72> , 삼각집선문+원점문이 시문된 기대의 돌대 위에 개(犬) 토우를 부착한 경우도 확인된다 <그림 73> .

출토위치를 보면 102점 가운데 94점이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표 13> .¹⁸⁷⁾



<그림 72> 손잡이 상면 토우 부착흔
(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73> 돌대 위의 개(犬) 토우
(출처: 손명순 촬영)

18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a, 앞의 보고서, p. 890. 수혈V-12호에서는 인물 토우와 동물 토우가 주를 이루며, 파편이 복원되지 않는다. 이는 수혈외부에서 토기가 1차 파쇄된 뒤 그 중 일부가 수혈 내에 일시에 매몰된 것이다.

102점의 토우 가운데 인물 토우는 36점이며, 성별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성교중인 1쌍을 제외하면 1점에 불과할 정도로 성별표현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황남동 일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인물 토우 가운데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유형과 어떤 자세〔雜技〕를 취한 경우 성기 표현을 하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손곡동·물천리 유적 인물 토우의 경우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둘째,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우는 크게 두 개소의 수혈에서 집중 출토되었다. 이는 인위적으로 폐기한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물 토우의 경우 대체로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폐기시킨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13〉 손곡동·물천리 유적 유구별 토우 분류

유구	토기가마	공방지	초석건물지	건물지(주혈)	수혈	합계
사람	1		1		28	30
남					1	1
여					2	2
말				2	9	11
기마인물					3	3
새	1				2	3
뱀					7	7
개					9	9
오리					10	10
호랑이					2	2
거북					3	3
지네					1	1
소					1	1
멧돼지					1	1
불명(부착흔)	1	1		1	15	18
합계	3	1	1	3	94	102

황남동 일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인물 토우의 경우 과장되게 성을 표현한 예가 많은데, 이 폐기된 토우에서는 신체의 과장된 표현이 없는 것을 볼 때 인위적으로 폐기된 것과의 상관관계로 생각해 볼만하다.

2) 화곡리 유적

(1) 화곡리 유적 개요

화곡리 유적은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의 금실산(해발 191m)과 오리발산(해발 156m)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소구릉 사이에 형성되었으며, 양쪽 가장 자리에 자연수로 2개소를 두고 그 중심에 대규모의 토기 및 기와 공방지가 입지하였다.

삼국시대인 5세기말부터 9세기경까지 조업이 이루어진 신라의 공방유적으로 토기 생산에 관련된 가마, 공방, 태토저장시설, 폐기장 등 일괄 생산공정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¹⁸⁸⁾ 확인된 유구는 공방지와 관련한 자연수로 및 구, 가마(토기, 기와), 회구를 비롯하여 녹로축혈, 수비시설, 집수시설, 연토장(토련), 태토저장시설, 폐기장 외 고상식건물지, 건물지, 우물, 삼가마 등이 확인되었다. 조업의 중심연대는 7~8세기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토기들과 유사한 기종이 월성과 월지 등지에서 확인¹⁸⁹⁾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 왕경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궁궐과 관련된 곳에 생산품을 납입한 관요¹⁹⁰⁾로 보고하였다.

(2) 화곡리 출토 토우

화곡리 유적에서는 토우의 대부분이 자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기와무지와 회구, 건물지 주변 등에서 소량 출토되었다. 토우의 종류는 동물 16점, 인물 7점 등 총 25점이다 <표 14> .

188)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189)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위의 보고서-II구역 본문(자연수로 2). p. 548. 폐기장과 수로에서 확인된 녹유토기, 고품격 한자의 명문토기, 화려한 문양진, 보살부조상, 사자형거푸집, 기마인물상을 비롯한 각종 토우류, 월성과 안압지, 왕실관련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문양의 인화문토기류, 와전류 등에서 볼 때, 통일신라시대 격조 높은 유물을 생산하였던 관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위의 보고서, p. 548.

〈표 14〉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토우 유형 분류

분류	사람	남	여자	성별불명	기마인물	소계
		1	1	2	3	7
	짐승	말	개	동물		소계
		8	1	7		16
합 계		23점				

화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토우의 경우 유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예가 많다. 인물상의 경우 서역인상을 닮은 토우도 있고, 또 다른 인물상의 경우 제작기법에 있어서 다리를 표현하지 않고 원추형으로 처리하였다(아래참조).

동물 토우의 경우 네 발 짐승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등에는 선각이나 인화문을 시문하였다. 토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가운데 구멍을 뚫은 예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마형 토우로 추정되는 토우의 경우 마갑을 표현한 듯 말의 등 위에 덧씌운 것이 확인된다 〈그림 74〉.



〈그림 74〉 화곡리 유적 출토 마형 토우(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Ⅱ구역사진」, p. 436. 도 Ⅱ-1991)

토기에 부착된 예는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독립형 토우이다. 전체적으로 토우의 수량과 종류가 간략해졌지만 말과 기마인물형 토우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곡리 생산유적에서는 자연수로에서 대부분의 토우가 출토되었으며, 자연수로의 퇴적층 형성 시기의 공반유물은 7세기 전반에서 9세기 대에 이르는 유물이 주류를 이룬다 <표 15> .¹⁹¹⁾

<표 15> 화곡리 생산유적 유구별 토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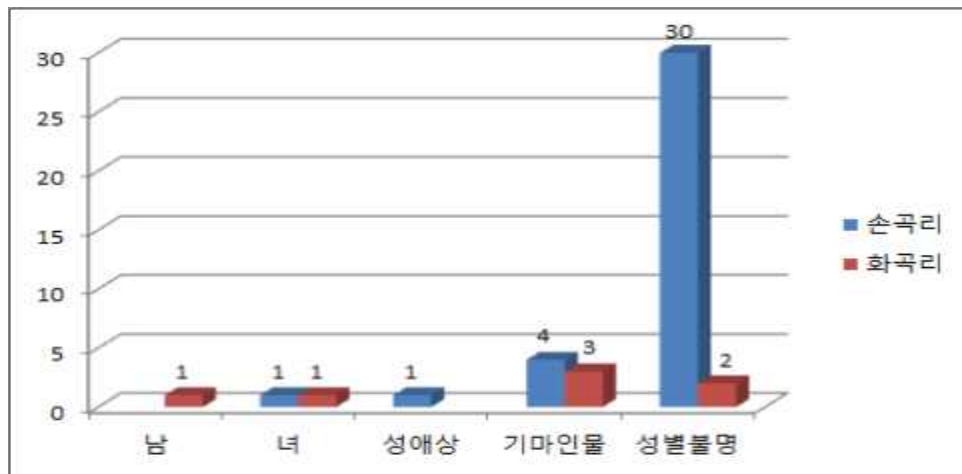
유구	자연수로	기와무지	회구	건물지	합계
사람	1			1	2
남	1				1
여	1				1
기마인물	3				3
말	7	1			8
개	1				1
동물	6		1		7
합계	20	1	1	1	23

3) 생산유적 출토 토우 비교 검토

(1) 인물 토우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는 36점(35%), 화곡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는 8점(35%)으로 전체 토우 수에 대한 비율은 유사하지만 토우의 제작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손곡동·물천리 유적출토 인물 토우의 경우 성별구분을 확실히 하지 않은 예가 많으며, 기마인물형 토우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5> .

191)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Ⅱ구역본문』, p. 546.



〈그림 75〉 생산유적 출토 인물 토우(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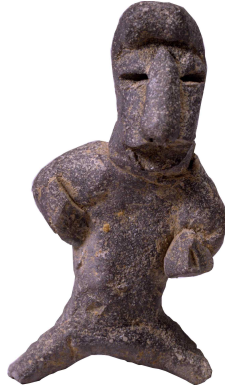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인물 토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그림 67-A유형〉는 쪽샘유적과 황남동 석곽묘군 등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종류와 유형이 유사하며,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 토우이다 〈그림 38, 그림 68〉. 얼굴의 세부표현은 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특징만을 살린 표현 등이 유사하다. 반면에 화곡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의 경우 얼굴의 윤곽이 강하고 뚜렷하게 묘사되었으며, 서역인상으로 추정된다. 이마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머리에 쓴 관모의 표현인 듯하며 〈그림 76〉, 신라왕경 4가옥에서 출토된 인물 토우와 유사하다 〈그림 77〉.

손곡동·물천리 유적과 화곡리 유적 출토 토우를 비교해 보면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부착형 토우가 제작된 반면에 화곡리 유적에서는 부착형이 아닌 독립형의 토우가 제작되었다.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우에서 보이는 다양하게 취한 역동적인 모습 혹은 공수자세가 화곡리 유적 출토 토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인물 토우의 얼굴을 서역인의 모습으로 표현¹⁹²⁾하는 등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모습 등은 신

192) 편의상 서역인상이라 명명하였으나 실제 서역인의 얼굴을 조형한 것인지 아니면 당나라에서 정형화된 서역인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 있다.(임영애, 2002, 「서역인인가 서역인 이미지인가」, 『고고미술』 236:45-67 참조)



〈그림 76〉 화곡리 출토 인물 토우
(출처: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I 구역 사진』, p.214. 도 I-946)



〈그림 77〉 신라왕경 4가옥 출토 인물 토우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신라왕경-유물
도판』, p.92. 도 650)



라 통일 이후 왕릉의 석인상에서 유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동물 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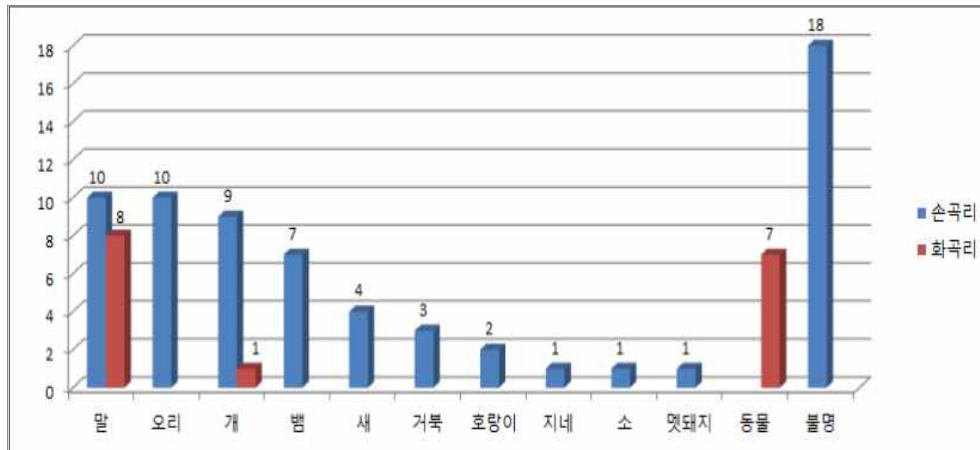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토우의 경우 황남동 일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 종류와 유사하다. 5cm 내외 크기의 부착형이며, 조류, 포유류, 파충류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반면에 화곡리 생산유적에서는 말(8점), 새(1점), 개(1점) 등 토우의 종류가 단순하다 〈그림 78〉. 그러나 마형 토우는 두 곳 생산유적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손곡동·물천리 유적에 비해 화곡리 유적에서의 토우 출토량이 적은 것은 수요가 줄어들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우의 양상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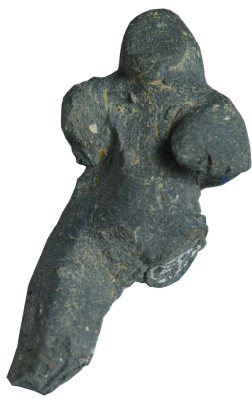
토우의 이러한 출토양상과 더불어 제작 기법에서도 생산지와 소비지 관계의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점토를 꼬집듯이 성형하는 핀칭기법은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토우에 주로 사용된 기법이며, 특히 인물 토우에서 많이 보인다 〈그림 79〉.

화곡리 유적 출토 토우에서는 점토를 말아서 돌려쌓는 coilling기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내면 양상을 볼 때 테쌓기 한 후 비튼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 <그림 80> .



<그림 78> 생산유적 출토 동물 토우 유형 분류



<그림 79>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80> 화곡리 유적 출토 마형 토우(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p. 341. 도 II-1191)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묘유적 출토 토우의 경우 5cm 미만의 소형이고,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의 경우 편칭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에,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독립형의 경우 크기가 커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이는 토기제작기법의 발달로 고온에서의 터짐 방지를 위해 구멍을 뚫었거나 내부를 비워 중공(中空)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신라 왕경의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양상과 유사하다 <그림 81, 그림 82> .

<그림 81, 그림 82> 는 마형 토우로 추정되며, 머리·다리 등이 잘려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인물 토우의 경우 내부를 원추형으로 비운 중공의 또 다른 예이다. <그림 83>

이렇듯 토우의 종류나 크기, 제작기법 등을 볼 때,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 생산된 토우는 대체로 이른 시기 분묘유적에 부장된 부착형 토우와 유사하고, 월성 주변을 비롯한 신라 왕경 내의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는 화곡리 유적에서 생산된 독립형 토우와 유사하다. 그리고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는 토기 뚜껑이나 장경호에 토우 부착흔이 남아 있는 경우가 18점(18%) 확인된 반면 화곡리 유적에서는 토기에 토우 부착흔이 남아 있는 예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표 13 참조>



<그림 81>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동물 토우
(출처: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I 구역 사진』, p.401. 도 I-2216)



<그림 82> 신라왕경 출토 마형 토우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신라왕경-유물 도판』, p.92. 도 653)



〈그림 83〉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인물 토우

(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I 구역 사진』, p. 401. 도 I-2216)

토우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자료로 신라왕경 제3가옥에서 출토된 인장(印章)을 들 수 있다.

말각타원형의 방곽 내에 문자를 새긴 납석제 인장과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토기에 압인한 ‘漢’字銘의 테두리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림 84〉.¹⁹³⁾ 이는 토우를 비롯한 물품들이 화곡리 생산유적에서 제작되어 신라 왕경 지역 내에 납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85〉.¹⁹⁴⁾

따라서 5세기 중후반~6세기대의 황남동 일대 분묘유적 부장품으로 매납된 토우의 종류나 제작기법 그리고 토우가 부착된 토기의 편년 등을 고려해 볼 때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화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중공형태의 독립형 토우는 신라 왕경 내의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와 유사하다.

193) 토기의 저부 대각 안에 인장으로 ‘漢’자를 찍었다. 토기의 기종은 굽완이며, 漢자를 거꾸로 새긴 인장으로 압인하였다. 면을 타원형으로 다듬은 다음 문자만 음각으로 파낸 형태이며, 문자의 압인은 토기의 건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94) 김재홍, 2014, 「신라왕경출토 명문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대사연구』 73:146. “왕경유적에서 출토된 인장은 토기나 토우의 생산과정에서 공인이나 주문자의 귀속을 보여주는 인장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장은 고대 율령국가를 상징하는 징표로서 국가 및 관인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84〉 납석제 인장(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신라왕경-유물 도판』, 원색사진 23)



〈그림 85〉 ‘漢銘’ 토기편(출처: 국립경주박물관, 2002, 『문자로 본 신라』, p. 152 도 343)

이러한 사실은 화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한 기종이 월성과 그 주변의 동궁과 월지 등지에서 확인된다고는 하나 아직 신라 왕경의 토기 생산과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토기는 대략 신라 통일기를 중심으로 하며 왕경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¹⁹⁵⁾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손곡동·물천리 유적과 화곡리 생산유적에서는 생산공간, 생활공간을 비롯하여 요업집단을 운영·관리한 왕경인의 매장공간이 확인되었으나 생산유적 주변 무덤에서는 단 한 점의 토우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손곡동·물천리 유적의 경우 B·C-I 지구에서 적석목곽묘와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나 토우는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화곡리 생산유적 역시 인근에 위치한 신라분묘군 발굴조사¹⁹⁶⁾결과 신라시대 목곽묘 3기와 43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나 단 한 점의 토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긴 목에 날렵한 얼굴을 한 동물 모습의 이형토기 한 점이 출토¹⁹⁷⁾되었다. 그리고 삼엽환두대도, 제사(제의)관련 행위에 통형기대, 발형기대가 사용된 점

195) 김재홍, 2014, 앞의 논문, p. 127.

196) 성립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화곡리 신라분묘군』, pp. 331-332. 5세기중후반이후~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토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197) 성립문화재연구원, 2007, 위의 보고서, pp. 316-317.

등을 볼 때, 특정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다. 이는 토기 생산자의 장례 공간으로, 생산유적의 공방지내 폐기 수혈의 출토품과 비교해 볼 때, 유물속성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조업과 조영시기가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곡리 신라분묘군 역시 생산유적과 관련한 장례문화의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인집단의 무덤¹⁹⁸⁾으로 볼 수 있다.

손곡동·물천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화곡리 생산유적에서는 토우를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요업집단 운영 혹은 관리자의 무덤에 토우를 부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토우 사용의 제한적인 성격으로 판단되며, 이는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나 종교 혹은 계급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의 조업시기 <표 9 참조>와 경주시내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유사성을 보았을 때, 손곡동·물천리 유적에서의 토우 제작은 신라 통일 이전 7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점에 끝이 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화곡리 생산유적에서는 구상문(具象文)과 종장연속문(縱長連續文) 또는 다변화문(多弁花文) 등의 인화문이 시문된 토우가 출토된 것을 볼 때, 인화문(印花文) 시문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토우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86> .



<그림 86> 인화문 시문 마형 토우

(출처: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I 구역 사진』, p. 258. 도 I-1245)

198) 성립문화재연구원, 2007, 앞의 보고서, pp. 336.

IV. 신라 토우의 변천

앞의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왕의 연구 성과와는 달리 6세기 말 이후에도 신라 토우의 제작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비록 그 수량은 많지 않지만 7세기 이후 유적에서 출토된 신라 토우를 중심으로 출토유적에 따른 토우의 종류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대적 배경

신라 토우가 분묘유적에 매납되던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신라사회는 변화가 주목되는 시기이다. 마립간기부터 시작된 이 시기의 변화는 지배체제 정비와 왕위계승체계의 확립, 통치조직의 정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었다.¹⁹⁹⁾ 특히 마립간기 이후에는 니사금기와는 구분되는 통치형태가 발현되어 마립간 자신을 고구려의 대왕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여 정형화된 왕명 시행이 가능하였다.²⁰⁰⁾ 또한 김씨 왕족의 왕위 계승이 확립된 것을 시작으로 지증마립간에 이르러서는 우경 실시, 순장제도 금지,²⁰¹⁾ 斯羅·斯盧 등으로 불리던 國號를 ‘新羅’로 확정하였으며, 喪服法을 제정하여 반포,²⁰²⁾ 왕호의 개정, 주군현제도의 실시 등 다방면에 걸친 개혁정치가 이루어진다. 즉 마립간기는 이전 니사금기 신라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자체의 모순으로 등장한 마립간들에 의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로서 왕권 강화에 주력하던 시기였다.²⁰³⁾

마립간기 이후에도 왕권강화의 다양한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법흥왕 4년에 병부(兵部)를 처음 설치²⁰⁴⁾하였고, 7년에는 율령을 반

199) 선석열, 1987, 「신라 골품제의 성립기반과 그 구조」, 『부산사학』 11:73.

200) 양정석, 1998, 「신라 마립간기 왕의 통치형태」, 『신라문화』 15:28-32.

2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譯註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三年 春三月條 “下令禁殉葬”

2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위의 책,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四年 十月條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五年 夏四月 制喪服法 頒行

203) 양정석, 1996, 「신라 마립간기 왕권강화과정과 지방정책」, 『한국사학보』 1:260.

포하고,²⁰⁵⁾ 14년(527)에는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통하여 신라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재편되고 왕권의 지배기반이 형성되어 중앙집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이후 진덕여왕 3년(649)에는 김춘추가 당에서 허락받은 의복을 착용하게 하였으며, 남자의 의복제도를 당제(唐制)로 고치고 문무왕 4년(665년)에는 부녀자의 의복제도 역시 당제를 따르는 등 순차적으로 중국문물을 흡수하게 되었다.

668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제왕권 체제 강화 및 지방행정 조직을 재편성하여 정치·경제·예술분야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유입된 불교문화를 크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고유 토착신앙의 표현인 토우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라 토우 변천 단계설정

신라사회에 있어서 5세기~6세기 대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였다. 특히 순장제도의 금지와 율령의 반포는 관습법에 따른 사회가 아닌 법령의 규제를 받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후 7세기 대에는 삼국을 통일하는 등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묘제를 비롯하여 무덤 부장품으로 매납되던 신라 토우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앞의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묘유적에 고신라 토우를 매납했던 시기는 실제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토우 자료 역시 의도치 않게 원형을 잃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출토지를 알 수 없는 자료들도 다수이다. 따라서 신라 토우의 변화상에 대한 검토가 여의치는 않지만, 출토지가 분명한 토우를 대상으로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한다.

2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앞의 책,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四年 夏四月條 “始置兵部”

2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위의 책,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七年 春正月條 “頒示律令”

1) I 단계

신라 토우 가운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5세기 중후반에 해당되며, 적석목곽분에서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 토우가 주로 출토되었다. 황남동 109호분 2곽과 쪽샘 B6호분 출토 토우장식고배뚜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토기에는 사격자문이나 집선문 등 한 종류의 문양을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그리고 뱀과 개구리, 사람, 새 토우 한두 점을 대칭되는 위치에 부착하였다. 인물상의 경우 얼굴 표현은 간략하게 줄을 긋거나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 것처럼 세부표현을 생략하였으며, 신체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표현하였다. 조류나 파충류 역시 특징적인 부분만을 표현하였다. 이 단계 토우의 특징은 대체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며, 친근감 있게 표현하였다. I 단계 말기부터는 토우의 표현이 점차 사실적으로 변화되며, 특히 뱀과 개구리 결합상의 경우 뱀이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거나 물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한 예가 대부분이며, 대체로 진행방향은 시계반대방향이다.

2) II 단계

신라 토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으며, 5세기 말~6세기에 해당한다. 황남동 일대 소형 석곽묘 출토품과 계림로 30호분 출토 토우장식장경호, 노동동 277번지 출토 토우장식장경호가 이 단계에 속한다. 토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문양 혹은 단일문양의 경우 토기 전면(全面)에 시문하였으며, 부착형 토우의 종류와 조합상이 다양해졌다.

인물상의 경우 두건을 쓴 것처럼 얼굴표현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표현한 대신 신체의 성적인 부위는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춘듯하였다. 악기연주상, 잡기상, 성애상, 지게나 동이를 이고진 모습, 기마인물, 승선인물 등 다양한 모습의 토우가 등장한다. 동물상 역시 조류, 파충류, 어류, 갑각류, 포유류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다.

II단계의 특징은 토우 제작에 있어서 펀칭기법의 사용이다. 특히 멧돼지나 개구리, 자라 등 동물류의 표현에 있어서 두드러진다.

이렇듯 I·II단계에는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부착형 토우가 출토되었다.

3) III단계

신라 토우의 제작용도에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7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며, 생활유적에서 독립형 토우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이다. 분묘유적의 부장품으로 토우장식 토기를 사용하던 풍습은 쇠퇴한 반면 생활유적을 중심으로 독립형의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의 출토 예가 증가한다.

생활유적 출토 토우 가운데 편년이 가능한 예로는 노동동 12 유적 연못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우, 월성해자와 신라왕경(S1E1) 유적에서 출토된 인물 토우이다. 분묘유적 출토 토우보다는 크기가 커져 10cm 이상이며,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 보다는 토우의 표현이 더 상세해졌다.

인물 토우의 경우 신체의 성적인 부분을 과장되게 표현하던 것은 점차 소멸되었다. 다만 남자 토우의 경우 코를 크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성적인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거나 초기 외래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라왕경(S1E1) 유적 출토 인물 토우의 경우 눈, 코, 입이 크며, 머리에는 복두(幘頭)를 쓴 것처럼 표현하였다. 월성해자 출토 인물 토우의 경우 비록 얼굴표현은 생략하였지만 옷의 깃과 주름을 표현하는 등 앞선 단계보다 상세해졌다.

4) IV단계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에서 독립형 토우가 확인되는 단계이다. 분묘유적에서는 초기 토용이 등장하며, 그 예로 동천동 석실분 출토로 전하는 토용〈표 16-⑨〉이다.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양 손을 앞으로 모아 공수(拱手)의 자세를 하고 있다. III단계까지와는 달리 인물상의 표현에 있어 사자(死者)에게 예(禮)를 표하는 시봉자(侍奉者)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토용의 얼굴이나 의복의 표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과도기적인 표현이 나타나며, 황성동 석실분

출토 토용 역시 이 단계에 해당한다.

생활유적에서는 토우의 종류가 단순해지며,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의 제작이 늘어나는 것 역시 이 단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IV단계에서는 토우 제작기법에 변화가 나타난다. 토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중공형태(中空形態)의 독립형 토우가 제작되었다.

5) V 단계

8세기를 포함한 그 이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횡혈식석실분에서는 완전한 중국풍의 토용이 등장하며, 얼굴도 서역인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단계에는 불교의 보편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토우의 제작량은 줄어들었지만 토우의 제작 목적이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였다.

사찰유적에서는 수달과 뱀이 부착된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입체감이나 율동감은 사라지고 평면화되었다.



I 단계 황남동 석곽묘군



V 단계 용강동 석실분

〈표 16〉 신라 토우의 변천

구분		475		500		600		650		700		800		900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IV 단계		V 단계				
분류	유적	부착형	 ① ② ③ ④ ⑤				 ⑭									
		독립형					 ⑨ ⑩ ⑫									
생활	유적	부착형					 ⑬									
		독립형					 ⑥ ⑦ ⑧ ⑪									
비고		① 황남동 109호분 2곽 ② 쪽샘 B6호분 ③ 월성로 가11-1호분				④ 계림로 30호분 ⑤ 노동동 277번지		⑥ 노동동 12유적 ⑦ 월성해자 ⑧ 신라왕경		⑨ 傳 동천동 석실분 ⑩ 황성동 석실분 ⑪ 신라왕경		⑫ 용강동 석실분 ⑬ 사천왕사 ⑭ 동천동유적				

3. 신라 토우의 변화상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던 신라 토우는 왕릉급의 대형고분 매장주체부에는 매납되지 못했어도 특정 계층의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의 성행 이전, 기원이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인물과 어류, 동물류의 토우를 토기에 부착하였을 것이다. 이후 불교의 유행, 사회규범의 변화에 따라 분묘유적 중심으로 매납되었던 다종다양한 토우의 제작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불교의 유행과 중국의 영향 등으로 원시적인 표현은 쇠퇴하였으나 토우의 조형이나 상징성은 당시의 시대상에 맞게 분묘유적에서는 순장대용품인 토용으로 그리고 생활유적에서는 어떤 목적의 의례용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토기 기술의 발달로 내부를 비운 중공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적어도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초기까지는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7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후 신라 토우의 변화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분묘유적

(1) 횡혈식석실분 토용으로 발전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 토우에서 7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독립형 토우로 변화되었으며, 횡혈식석실분에 매납된 토용으로 제작기법과 제작목적이 변화되었다.

토용이란 순장대용품으로, 토우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토우에서 변화 발전하였다. 석실분이라는 묘제의 특수한 상황으로 도굴의 가능성도 크며, 원래의 자리를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토용이 놓였던 본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한능원비장경(大漢原陵秘葬經)의 기록에 따르면 용(甬)이 놓이는 위치가 결정되어있으며, 신분에 따라 매납할 수 있는 토용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림 21 참조>. 경주지역에서 토용이 출토된 세 곳의 석실분 모두 이미 훼손된 후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토

용이 놓였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장산 토우총의 예를 보면 석실 네 모서리에서 확인된 것을 볼 때, 당제 유입의 흔적으로 추정해 볼 만 하다.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가운데는 장산 토우총 출토 토용의 다리와 발끝부분이 유사한 모습의 토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7>. 그리고 횡혈식석실분에서 출토된 토용의 경우 완전히 중국화 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신라인의 복식과 얼굴모습에서 황성동석실분, 용강동석실분 순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당나라의 복식과 서역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앞서 II장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 횡혈식석실분에 매납된 토용은 당나라의 토용이 경주지역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순장이 금지된 503년 이후부터 고신라 토기에 부착되었던 토우에서 점차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토용으로 변화 발전하였으며,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도 일반 서민들의 복장은 고신라식을 지속하는 것을 볼 때 신라 나름의 독창성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시신앙의 표현으로 신체의 특징적인 부분을 과장되게 표현하였던 고신라 토우에서 점차 피장자에 대한 시봉자의 개념으로 변모되면서 그들의 모습도 점차 서역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등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87> 손곡동·물천리 유적 출토 인물 토우 <그림 88> 비파연주 인물 토용 <그림 89> 傳동천동 석실분 출토 인물 토용
(출처: 손명순(左),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p. 49. 도 70(中), p. 61. 도 104(右))

그러나 기왕의 자료들을 보면 출토지가 확실하지 않은 독립형의 토우들 가운데 5세기 중후반~6세기대의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와는 달리 독립형이며, 얼굴 표현이 확실해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그림 89> 과 시봉자로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예를 표하는 듯한 傳동천동 석실분 출토 토용 역시 초기 토용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림 88> .

(2) 골호의 등장

불교의 유행과 더불어 불교적인 장례풍속에 따라 무덤 대신 뼈 항아리 즉 골호(骨壺)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8세기 대에는 화장(火葬)이 성행함에 따라 유골을 담은 골호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골호는 유골을 안치한 석함 주위에 십이지상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경(銅鏡)이나 골호에는 십이지와 팔괘 등이 함께 시문된 것을 볼 수 있다. 십이지 혹은 팔괘 등의 문양이 든 동경은 생전에 사용하거나 사후에 부장품으로 부장됨으로써 천문, 오행사상의 우주관적인 심오한 哲理에 힘입어 길흉, 수복, 수호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²⁰⁶⁾ 따라서 유골을 담은 골호의 외면에 십이지 문자와 팔괘를 표현한 것도 동경의 의미와 같이 死者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⁰⁷⁾

이렇듯 무덤 부장품의 일종인 골호의 외면에 십이지상 등을 배치하는 것 역시 신라 토우의 초기 부착형 토우에서 변화 발전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2) 생활유적

(1) 부착형 토우

일찍이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에 매납되었던 부착형 토우는 통일신라 이후 분묘유적에서는 보이지 않고 8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사찰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므로 해당 유적과 토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206) 김리나, 1987, 「高麗時代의 四神十二生肖 36禽鏡」,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p. 367.

207) 박방룡, 1990, 「신라십이지명골호에 관한 소고」, 『신라문화』 7:198.

①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부지 내 유적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건물지, 옛 길, 원형석렬유구 12기와 근대의 호텔 건물지 10여기가 조사된 유적이다. 기와건물지와 옛 길에서는 명문기와, 송녕통보, 자기, 사자형상 청동도장, 청동거울, 청자향로, 해무리굽청자, 중국자기 등이 확인되었다.

가구역 A1B1 남북석축 동쪽 부식토 층에서 호의 동체부에 부착된 수달이 확인되었다. 흑갈색을 띠는 부식토층에는 주로 고려시대의 평기와편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그 아래층인 황갈색 모래점토층에서는 고려시대의 사자형상 청동도장, 11~12세기 대의 중국 요주요(耀州窯) 청자, 정요(定窯)·정덕진요(靖德鎮窯) 백자가 출토되었다. 바닥층인 황갈색 모래점토층에서는 조선시대의 자기는 없고, 철면에 선문이 타날된 평기와가 주로 확인되어 이 모래점토층은 고려시대에 폐기된 문화층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90〉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부지 내 유적 출토 토기편
(출처: 경주대학교 박물관, 2006, p. 517. 도 155-27)

수달이 부착된 토기편에는 일조의 침선과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수달의 머리부분은 결실되었다. 앞 뒤 다리를 양 옆으로 뻗었으며, 꼬리는 뒤쪽으로 향한 모습이다. 수달의 다리에는 선각으로 발을 표현하였다.

② 사천왕사

사천왕사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당시 불법을 통해 당 군을 격퇴했다는 기록이 있는 호국사찰이며, 신라지역에 쌍탑가람배치가 처음 등장한 사찰이다. 특히 문무왕 19(679)년이라는 조성시기와 조각가의 이름이 기록된 녹유신장벽 전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서회랑지 북편에서 출토된 두 개의 토기편에 수달과 뱀 모양 토우가 각각 부착되었다.



〈그림 91〉 사천왕사 출토 토기편-수달·뱀 토우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b, p. 473. 도 339-295(左)·도 339-297(右))

수달 토우가 부착된 토기의 기종은 호로 추정된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잔존하는 호에 3조의 침선으로 4단 구획되었으며, 파상문을 시문한 위에 수달 토우를 부착하였다. 수달이 고개를 쳐 든 모습이다. 앞 뒤 다리를 양옆으로 뻗었으며, 발가락을 표시한 것이 불국사 유적 출토 수달 토우와 유사하다.

뱀 토우 부착 토기편 역시 서회랑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이 토기편 역시 4조의 침선으로 5단을 구획하였으며, 구획 사이에는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호로 추정되는 토기 외면에 뱀 모양 토우를 부착하였다. 뱀이 꼬아리를 튼 모습을 평면 형태로 둥글게 말아 부착하였으며, 뱀의 등에는 점을 찍어 뱀 비늘을 표현하였다.

(2) 독립형 토우

7세기 이후에는 분묘유적보다 생활유적에서 토우 출토 예가 더욱 빈번하지만 토우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출토위치 또한 명확하지 않고 수습된 것들이다. 아래에서는 출토지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예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① 월성해자

월성해자는 신라 궁성의 외곽으로 조성되었다. 월성의 축성관련 기사는 『三國史記』 신라 파사이사금 22(101)년 조(條)에 처음 나와 있으며, 신월성(新月城), 만월성(滿月城), 재성(在城) 등으로 불려졌다. 해자를 축조함에 있어서 월성의 남쪽은 자연단애면(自然斷崖面)을 이용하여 성벽으로 삼았으며, 동·서·북쪽에는 인위적으로 구덩이를 파거나 석축을 쌓아 해자를 축조하여 인공해자로 활용하였다.

월성해자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14년 일본인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가~라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축조 이전의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문지, 해자, 제철유구, 적심 건물지, 석교지를 비롯하여 1~5호 해자 등이 확인되었다.

월성해자는 궁성을 지키는 방어용 시설로써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제레나 의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자료는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條의 기록이다.

여름 4월에 왜인(倭人)이 병선(兵船) 백여 척으로 동쪽 변경을 습격하고 나아가 월성(月城)을 포위하였는데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이 비오는 것과 같았다. 왕성을 지키자 적들이 장차 물러가려고 하였다. [이에] 군사를 내어 공격하여 그들을 패배시키고 북쪽으로 추격하여 바다 어구에 이르니 적들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반이 넘었다.²⁰⁸⁾

208) 夏四月倭人以兵船百餘艘襲東邊進圍月城四面矢石如雨王城守賊將退出兵擊敗之追北至海口賊溺死者過半

두 번째는 4호 해자에서 출토된 동물유체 가운데 말, 사슴, 닭에서는 행위의 목적은 알 수 없지만 도구에 의한 흔적이 정교하게 남아 있다²⁰⁹⁾는 동물유체 분석결과이다.

세 번째는 월성해자에서 다량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고배와 뚜껑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제기형 접시, 완과 대부완 등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출토되어 시기차이를 두고 매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기류 가운데 고배와 뚜껑, 제기형 접시의 출토는 제사 혹은 의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井’字가 표기된 토기들이 다량 출토되어 우물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지만, 위의 내용들과 조합해 볼 때 월성해자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월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의와 관련된 토기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특히 출토 토기 가운데에는 제기(祭器)로 사용되는 기종(器種)인 고배와 뚜껑에서 기호문이 시문된 예가 많으며, 대체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시문된 예가 많으므로 ‘井’은 주술 또는 벽사의 의미로도 추정한다.²¹⁰⁾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월성해자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월성을 수비하는 공간으로서 월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종의 제의가 행해졌던 곳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토우는 총 13점이며, 이 가운데 기마인물형 토우 2점, 인물 토우 6점, 마형 토우 2점 이외에 염소, 땃돼지, 개구리 각 1점씩이다. 대부분 지표에서 수습되었고, 기마인물형 토우 〈그림 92〉, 마형 토우 〈그림 93·94〉, 염소 토우 〈그림 95〉는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09) 유병일·정숙희, 2011, 「월성해자 출토 동물유체분석」, 『月城垓子發掘調査報告書Ⅲ(4號垓子)』, pp. 569-572. 도구는 두 가지 정도로 여겨지며 뼈에 새겨진 예리한 흔적은 손칼이나 이보다 조금 큰 칼을 사용하였으며, 단단한 뼈를 깨트린 도구는 금속도구로 추정하였다.

210) 하병업, 2008, 「『井』字銘과 古代社會의 儀禮」,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은정, 2015, 「경주지역 기호시문토기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명순, 2016, 「신라 기호문토기 고찰」, 『木簡과 文字』 16:85-105.



〈그림 92〉 월성해자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



〈그림 93〉 월성해자 출토 마형 토우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0,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 도 162-6(左), 도 162-7(右))



〈그림 94〉 월성해자 출토 마형 토우



〈그림 95〉 월성해자 출토 염소 토우



(출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a,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V(5호해자), p. 396. 도 526(左), p. 395. 도 525)

② 노동동 12 유적

노동동 12 유적은 4세기~6세기대의 고분밀집지역과 경주시가지의 경계부분에 위치한다. 남쪽에는 대릉원, 서쪽에는 노동·노서고분군, 동남쪽에는 쪽샘지구, 북쪽에는 경주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에서는 고분관련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생활관련 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31기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며, 다량의 기호문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우물과 기호문토기 그리고 토우와의 특별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기의 연못 가운데 신라 통일이전시기로 추정되는 연못에서 기마인물형 토우 1점이 출토되었다.

연못은 유적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며, 규모는 동-서 480m, 남-북 388m의 평면 장방형 형태이다. 생토층인 모래자갈층을 굴착하고 최대 5단까지 냇돌을 누어 쌓았으며, 연못 내부 펄층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²¹¹⁾

연못에서 출토된 공반유물 가운데 기와류는 고식연화문수막새와 단판타날문양 평기와가 출토되었으며, 하한연대를 679년 이전으로 설정 가능하다. 토기류의 경우 삼각집선문, 반원점문, 이중원문, 화문 등 단일문양이고 시문수법 등을 볼 때, 621~660년으로 편년된다. 따라서 이 연못의 존속시기는 634년~660년경인 7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연못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시간차가 크지 않은 폐기동시성을 가진 일괄유물로 볼 수 있다.²¹²⁾ 따라서 이 연못은 신라통일 이전 시기라는 편년 설정이 가능하며, 분묘유적이 아닌 생활유적에서 독립형 토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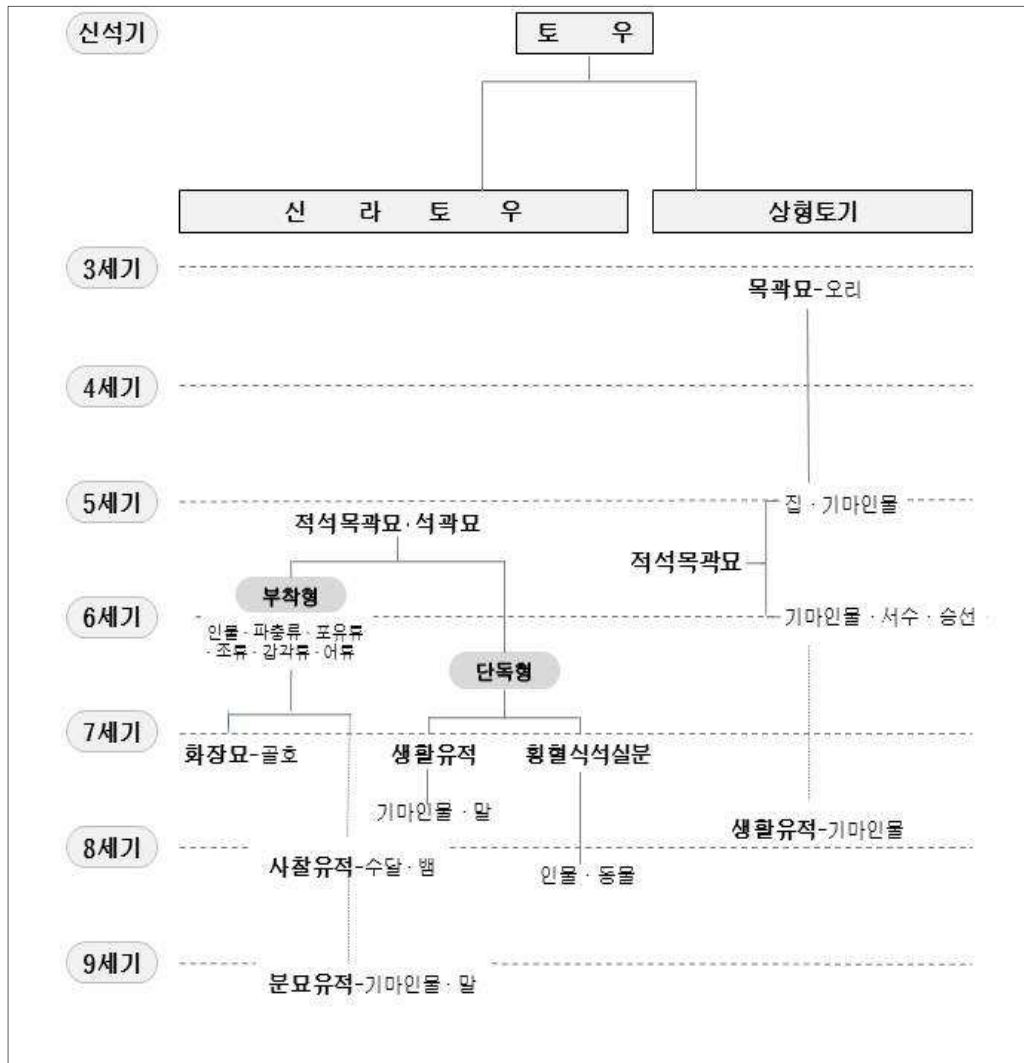
토우의 앞 뒤 다리 하나씩과 인물상이 결실되었다. 어떤 목적의 의례에서 사용 후 인위적으로 훼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파손됨에 따라 폐기한 것인지 명확치가 않다. 그러나 연못 내부에서 주철 토기편과 기호문토기 그리고 복숭아씨가 다량 출토됨에 따라서 도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제의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211)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 유적』, p. 62.

212)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위의 보고서, pp. 243-250.

앞서 III·IV장에서 살펴보았던 40개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시대별, 유형별 양상을 정리해 보면 <표 17> 와 같이 신라 토우의 변천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표 17> 신라 토우 계보²¹³⁾



213) 9세기에 기재된 사찰유적 출토 수달과 뱀이 부착된 토기편의 경우 출토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편이 상태이므로 편년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것이 후대에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편의상 추정 표기해 두었음을 밝혀둔다.

V. 신라 토우를 통해 본 상징성

고대인들은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이 인간에게 알려고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자연계 즉 자연 현상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 조류 등에 신령스러움이 있다고 믿었던 듯하다. 특히 동물들이 주는 재해나 위험 등에 대하여 고대인들은 두려움 또는 경외감을 느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물이나 조류는 점차 두려움의 대상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변화된 듯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三國史記』 기록을 보면 왕의 즉위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자연 현상 또는 기상이변과 기이한 동물을 왕에게 진상품으로 올린 기록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조의 탄생이나 신령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계의 기이한 현상이나 동물의 등장이 수반(隨伴)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중국 청동 예기(禮器)에 새겨진 동물 문양을 희생물(犧牲物) 또는 하늘과 땅이 교통하도록 돕는 동물이라고 보았다.²¹⁴⁾ 이를 뒷받침해주는 문헌 기록을 중국 좌전(左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림은) 덕(德)에 있는 것이지 정(鼎)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하왕조가 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의 산천과 기이한 물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치고, 구주의 목백(제후)에게 금을 조공하게 하여 정(세발술)을 주조하고 거기에 물건의 형상을 새기고 온갖 사물을 모두 갖추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과 괴물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강, 연못, 산, 숲에 들어가도 괴물 같은 것을 만나지 않고, 산천의 괴물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능히 상하가 화합하였으며,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在德不在鼎. 昔夏之方有德也 遠方圖物 貢金九牧 鑄鼎象物 百物而爲之備 使民知神姦 故民入川澤山林 不逢不若 魅 莫能逢之 用能協于上下 以承天休(左傳宣公三年)²¹⁵⁾

214) 張光直, 1983, 『中國青銅時代』, 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pp. 355-387.

215) 오유미, 2001, 「중국 뱀 신화의 상징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pp. 57-58 재인용.

예기에 형상을 새긴 목적은 상하가 화합하여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천지신인(天地神人)이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해주는 각종 동물들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²¹⁶⁾ 제기는 사용할 수 있기는 해도 결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지 않으며, 혼령과 교통하는 데 사용되는 이것들은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들과는 같을 수 없다.²¹⁷⁾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볼 때,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부착형 토우의 경우 제기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라 토우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신라인 역시 토기에 부착시킨 토우를 통해 하늘과 소통하고자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장에서는 먼저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조류 관련 기록과 기이한 현상들과의 개연성을 살펴보고, 토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동물

고대인들은 태양을 비롯한 동물류, 조류는 물론이고 만물에 신비력이 있다고 보았던 듯하다. 이러한 자연계의 현상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자연현상에 의지하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였을 것이다.

신라 토우로도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조류, 어류 등이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사상들이 토우에 투영되어 신앙이나 염원의 대상으로 제작한 듯하다. 따라서 문헌기록 가운데 『三國史記』에 등장하는 동물, 조류, 어류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 내면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용

① 赫居世 五年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

② 眞興王 十四年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改爲

216) 오유미, 2001, 앞의 논문, p. 58.

217) 우홍/김병준 옮김, 2001, 『순간과 영원』, 서울:아카넷, p. 78 각주 45 재인용.

佛寺 賜號曰皇龍

- ③ 眞平王 五十年 春二月 百濟圍楸岑城 王出師擊破之 夏大旱 移市 畫龍祈雨
- ④ 文武王 二十一年 秋七月一日 王薨 諡曰文武 群臣以遺言葬東海口(口 遺事作中)大石上 俗傳王化爲龍 仍指其石爲大王石
- ⑤ 赫居世 三十三年 六十年 秋九月二龍見於金城井中 暴雷雨 震城南門
- ⑥ 儒理尼師今 三十三年 夏四月 龍見金城井 有頃 暴雨自西北來 五月 大風拔木
- ⑦ 炤知麻立干 二十二年 夏四月 暴風拔木 龍見金城井 京都 黃霧四塞 … 冬十一月 王薨
- ⑧ 景德王 二十三年 三月 星孛于東南 龍見楊山下 俄而飛去 二十四年

①은 시조 혁거세의 배우자 알영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고 ②는 신궁을 세우려는 곳에 용이 나타나 절을 짓고 황룡사라 이름하였다는 기록이다. ③은 가뭄이 들자 용을 그려 기우제를 지냈으며, ④는 문무왕이 죽어 동해구 대왕석으로 무덤을 하였으며, 용이 되었다는 기록이다. ⑤~⑧은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나거나 양산에 나타난 다음해에 왕이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왕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의 등장은 신비스러운 일 혹은 기원, 탄생과 죽음에 대한 예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2) 닭

- ① 脫解尼師今 九年 春三月 王夜聞 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 黎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櫝 掛樹枝 白鷄鳴於其下

김알지의 탄생을 알린 내용으로써, 닭 역시 예언자적인 신령스러운 존재이다.

3) 개

- ① 眞平王 五十三年 春二月 白狗上于宮牆 夏五月 伊滄柒宿與伊滄石品謀叛
- ② 聖德王 三十五年 冬十一月 拘登在城鼓樓 吐三日
- ③ 孝成王 三年 秋九月 狐鳴月城宮中 狗咬殺之

①은 반역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②는 왕의 사망 예고, ③은 개가 여우를 물어 죽인 일을 기록한 것이다. 개는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영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4) 뱀

① 奈解尼師今 三十四年 夏四月 蛇鳴南庫三日 秋九月 地震 冬十月 大雪深五尺 三十五年 春三月 王薨
자연재해와 왕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였다.

5) 소

① 婆娑尼師今 五年 夏五月 古陁郡主 獻青牛
왕에게 진상품으로 바친 기록이다.

6) 물고기

- ① 沾解尼師今 十年 春三月 國東海出大魚三 長三丈 高丈有二尺 冬十月晦 日有食之
- ② 奈勿尼師今 夏五月 京都雨魚
- ③ 實聖尼師今 十五年 春三月 東海邊獲大魚 有角 其大盈車 夏五月 吐含山崩 泉水湧 高三丈
- ④ 太宗武烈王 十年 九月 公州基郡江中大魚出死 長百尺 食者死 九月
- ⑤ 宣德王 八年 春二月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沙湌眞珠鎮之 秋七月 東海水赤且熱 魚鼈死
- ⑥ 憲安王 夏四月 降霜 自五月至秋七月 不雨 唐城郡 南河岸 有大魚出 長四十步 高六丈尺

①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크기가 컸다는 기록이고, ②는 빗속에 물고기가 섞여 내렸다는 기록, ③은 뱀이 있고 수레에 찰 만큼 큰 물고기를 잡았고 토함산이 붕괴되었다는 내용과 이듬해 여름 왕이 죽은 기록이다. ④는 큰 물고기

를 먹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일, ⑤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물고기가 죽은 내용이고, ⑥은 기상이변과 물고기에 관한 내용이다.

물고기 관련 기사는 주로 기상이변과 관련된 내용이며, 큰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좋지 않은 일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 일종의 예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7) 호랑이

① 文武王 十三年 夏六月 虎入大宮庭 殺之 秋七月一日 庾信卒

② 文聖王 五年 秋七月 五虎入神宮園

③ 憲康王 十一年 春二月 虎入大宮

①은 호랑이를 죽인 후 다음해 김유신이 죽었다는 내용이고 ②와 ③은 호랑이가 대궐에 들어왔다는 기록이다.

호랑이 관련 기록들이 많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일들로 사람을 놀라게 한 내용들이다.

8) 쥐

① 惠恭王 五年 冬十一月 雉岳縣鼠八千許 向平壤 無雪

쥐 8천여 마리가 이동한 후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은 이상 현상에 대한 기록이다.

9) 새

① 太宗武烈王 十年 九月 何瑟羅州進白鳥

② 太宗武烈王 十八年 五月 北原獻異鳥 羽翮有文 脰有毛

③ 文武王 十七年 春三月 所夫里州獻白鷹

④ 神文王 十一年 十一年 沙火州獻白雀

⑤ 聖德王 八年 春三月 靑州獻白鷹

⑥ 聖德王 十四年 四月 靑州獻白雀

⑦ 聖德王 十九年 五月 完山州進白鵲 秋七月 熊川州獻白鵲

- ⑧ 孝成王 三年 秋九月 完山州獻白鵲
- ⑨ 孝成王 十二年 秋八月 武珍州獻白雉
- ⑩ 景德王 十二年 秋八月 武珍州獻白雉
- ⑪ 元聖王 元年 三月 湏江鎮進赤烏
- ⑫ 元聖王 六年 熊川州 進赤烏
- ⑬ 元聖王 九年 秋八月 奈麻金惱獻白雉
- ⑭ 元聖王 十年 秋七月 漢山州進白鳥
- ⑮ 昭聖王 元年 八月 漢山州 獻白鳥
- ⑯ 哀莊王 二年 秋九月 武珍州進赤烏 牛頭州進白雉
- ⑰ 哀莊王 三年 八月 歙良州進赤烏
- ⑱ 哀莊王 五年 秋七月 歙良州進白鵲
- ⑲ 憲德王 二年 春正月 河西州進赤烏
- ⑳ 憲德王 十七年 秋 插良州獻白鳥

①~㉔까지 새와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왕께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기록이다. 새 종류에는 까치, 공작, 매, 꿩 등으로 다양하다.

10) 사슴

- ① 奈勿尼師今 二十一年 秋七月 夫沙郡進一角鹿 大有年
- ② 太宗武烈王 冬十月 牛首州獻白鹿
- ③ 昭聖王 元年 春三月 冷井縣令廉哲進白鹿

①은 사슴을 진상한 후 다음 해에 대풍년이 들었으며, ②·③은 진상을 한 기록이다. 사슴 또한 영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11) 돼지

- ① 太宗武烈王 冬十月 屈弗郡進白猪 一首二身八足
기이하게 생긴 돼지를 진상하였다는 기록이다.

12) 두꺼비와 뱀

- ① 哀莊王 十年 夏六月 … 碧寺蝦蟆食蛇 秋七月 遣大阿湊金陸珍 入唐謝恩
兼進奉方物 大旱 王叔父彥昇與弟伊湊 悌邕 將兵入內 作亂弑王 王弟休明
侍衛王并害之 追諡王爲哀莊

두꺼비가 뱀을 잡아 먹은 일이 있는 후 반란이 일어나 왕을 시해했다는 기록이다.

13) 말

- ① 赫居世居西干 元年 故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井傍林間 有馬踞而嘶 則往觀
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 ② 奈勿尼師今 四十五年 … 冬十月 王所嘗御內廐馬 跪膝流淚哀鳴
- ③ 善德王末年 眞德王 元年也…又刑白馬 祭於落星之地 祝曰：天道則陽剛 而
陰柔 人道 則君尊而臣果 苟或易之 卽爲大亂
- ④ 扶餘王解夫婁老無子 祭山川求嗣 其所御馬至鯤淵 見大石 相對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 蛙 一作蝸
- ⑤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王棄之 與犬豕
皆不食 又棄之路中 牛馬避之 後棄之野 鳥覆翼之 王欲剖之 不能破 遂還其
母 其母以物裹之
- ⑥ …六月 王興寺衆僧皆見 若有船楫 隧大水 入寺門 有一犬狀如野鹿 自西至
泗泚河岸 向王宮吠之 俄而不知所去 王都群犬集於路上 或吠或哭 移時卽散
有一鬼入宮中 大呼百濟亡百濟亡 卽入地 王怪之 使人掘地 深三尺許有一龜
其背有文 曰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 王問之巫者曰 同月輪者滿也 滿則虧
如月新者未滿也 未滿則漸盈 王怒殺之

①은 혁거세의 탄생을 알린 내용이고, ②는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는 실성이 돌아오고 이듬해에 왕의 죽음 등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영물의 상징이다. ③은 김유신이 비담의 난으로 궁지에 몰렸을 당시 하늘에 제사를 올

릴 때 재물로 백마를 사용하였다.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에서도 시조왕의 탄생이나 나라의 멸망과 연관되어 말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④는 부여왕이 아들이 없어 산천에 기도드린 후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를 얻은 내용에서 금와의 탄생을 알린 것 또한 말이다. ⑤는 고구려 주몽의 탄생설화로써 주몽의 어머니가 낳은 알을 개와 돼지, 소, 말이 피하고 새가 날개로써 덮어주었다는 기록으로 동물, 가축, 조류들의 영험함을 알 수 있다. ⑥은 백제의 멸망을 미린 예고한 기록이다.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조류이며, 주로 왕에게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기록이다.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 제사지낼 때에는 큰 새의 날개를 다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날아가는 것을 뜻한다²¹⁸⁾라는 의미와 연결해 볼 때, 새는 역시 귀하고 신령스럽게 여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말과 닭, 용은 시조 또는 왕, 왕비의 탄생을 알리는 신이한 힘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 소와 돼지, 사슴 역시 진상품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토우에 많이 등장하는 개는 나라의 멸망이나 모반사건 등을 미리 알려주는 영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흰 개는 전염병, 도깨비,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 능력뿐만 아니라, 집 안에 좋은 일을 있게 하고, 미리 재난을 경고하여 예방해 준다고 믿었다.

뱀, 호랑이, 두꺼비 역시 예지의 영물로써 고대인들에게는 영험한 존재였으며, 물고기와 쥐는 기상이변을 미리 알려주는 영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신라 토우로 제작된 동물류는 대체로 신령스러운 능력을 가진 영험한 존재였음을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18) 『三國志』魏書 東夷傳 以大扁羽送死 其意慾使者者飛揚

2. 분묘유적 출토 토우의 상징성

일찍부터 인류는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였던 듯 사체(死體) 처리과정에서 모종의 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이미 시체 위에 붉은 흙을 뿌린다는가 화덕 근처에 매장함은 사자의 생명의 근원으로도 생각되는 피를 보충하고, 열을 가함으로서 그 부활을 기원하는 주술로 생각된다.²¹⁹⁾ 이렇듯 인류는 당시의 문화상과 종교관에 맞게 분묘를 축조하고 사체를 처리하였으며, 장송의례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지만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무덤 내의 부장품에 있어서 시대의 변천에 따른 문화나 사회상의 일면을 파악하는 정도이다.

고대인들에게서 무덤이란 현세와 내세를 잇는 공간으로써 이승과 저승, 천계와 하계를 잇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무덤 안에는 죽은 자를 위한 부장품과 내세로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묻어두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의 사상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이나 모형 등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자를 보호하거나 사자가 이승을 떠나 영원불멸의 세계로 가고자 함을 비는 의미를 지닌 것들로서, 죽은 자를 위한 수호신이자 삶과 죽음의 세계를 잇는 상징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던 토기에 부착된 신라 토우는 불교가 성행하기 이전 원시신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통일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사자의 시봉자 개념인 토용으로 변모됨으로써 그 성격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분묘유적 출토 토우의 상징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 고신라 토우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경주 황남동 일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고신라 토우는 토기에서 분리되어 원형을 잃은 채 보관되어 있으므로 토기에 부착되었던 토우의 조합상 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몇 점 되지는 않지만 완형의 예를 보면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하다.

219) 江上波夫, 「呪術の世界」, 『世界考古學大系』 12, 東京:平凡社, p. 47.

아래에서는 신라인들이 토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던 내제된 의미를 인물 토우와 동물 토우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물 토우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황남동 일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인물 토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남녀 공통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과장되게 표현한 유형이다. 특히 남자 토우의 표현에 있어서 큰 코와 과장된 성기의 표현은 정력, 생명의 힘 즉 생산의 상징을 표현한 것이며, 여성의 과장된 가슴 표현 역시 다산의 상징일 것이다. 이렇듯 생산력과 재생력을 지닌 성기를 노출하고 〈그림 96〉,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림 97〉 새로운 탄생을 기원한 듯 출산이 임박한 모습의 여자 토우 〈그림 98〉를 통해서 피장자의 재생과정을 모의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둘째, 머리에는 무언가를 쓴 듯 얼굴표현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 시체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 〈그림 99〉,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읍하는 모습, 악기 연주, 잡기, 물동이를 옮기는 모습 〈그림 100〉, 지계를 짚을 진 모습 등에서 장례의식과 준비과정에 隨伴되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기마인물형 토우와 승선인물 토우를 통해서 저 세상으로의 인도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첫째 내용과 둘째 내용을 결합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장례의식에서 행해지는 ‘고무(鼓舞) 가무(歌舞)’와 작악(作樂)의 목적은 진혼과 부활의 기원으로 이해하고 있다.²²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장례놀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노래 부르고 춤추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저승으로 보내드렸다.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 『北史 卷九十四列傳第八十二高句麗條』에 초종(初終)을 치를 때에는 모두 곡하고 울지만 장사

220) 나희라, 2008, 『고대한국인의 생사관』, 서울:지식산업사, pp. 110-111. 애도의 엄숙함을 넘어 삶의 활력을 표현하는 노래와 춤을 포함한 놀이의 성격을 띤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림 96〉 황남동 석곽묘 출토 남자 토우
(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97〉 황남동 석곽묘 출토 성애상 토우
(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98〉 황남동 석곽묘 출토 출산 토우
(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99〉 황남동 석곽묘 출토 주검 앞
여자 토우(출처: 손명순 촬영)



〈그림 100〉 황남동 석곽묘 출토 동이 안은 토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p. 120. K883)



〈그림 101〉 황남동 석곽묘 출토 탈 쓴 토우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 토우』, p.
55. 도 89)

지낼 때에는 춤추고 음악으로써 죽은 사람을 보낸다²²¹⁾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三國志 東夷傳 高句麗條』와 『周書 東夷傳 百濟條』에서도 확인이 된다. 일본의 윤공천황이 죽었을 때 신라에서는 각종 악기를 갖춘 악인 80인 등을 보내어 대곡(大哭)하거나 가무(歌舞)하면서 빈궁(殯宮)에 참회하도록 하였다는 기록²²²⁾을 비롯하여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 13(673)년 김유신의 장례를 치를 때 군악대를 백 명씩이나 동원하여 금산원(金山原)에서 북을 치며 피리를 불고 음악을 연주하였으며,²²³⁾ 화랑이었던 해론(奚論)이 전사(戰死)하자 왕이 긴 노래를 지어서 조의(弔儀)를 표하였을 뿐 아니라,²²⁴⁾ 화랑 김흠운(金欽運)이 죽자 신라 사람들은 양산가(陽山歌)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²²⁵⁾ 또한 화랑 관창이 전사하였을 때는 관창의 용모와 같은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추었다²²⁶⁾는 기록이 있다.

다음은 『三國遺事』에 실린 가면과 관련된 기록이다.

신문왕시대에 중 경흥의 성은 수씨요, 웅천주 사람이다. 나이 열여덟 살에 중이 되어 일체불경에 정통하니 명망이 한때에 높았다. 개요 원년(681)에 문무왕이 장차 세상을 떠나려 하면서 신문에게 유촉하기를 “경흥법사는 국사가 될 만하니 나의 부탁을 잊지 말라!”고 하였던 바 신문이 즉위하매 특히 국로를 삼아 삼랑사에 있게 하였더니 갑자기 병이 들어 달포가 되자 웬 여승이 와서 찾아보고 화엄경 중에 있는 지성으로 병을 낫게 한다는 말로써 이르기를 “지금 스님의 병은 걱정으로 인하여 생겼으니 기쁘게 웃으면 나을 것이 외다”하고 곧 열한가지 모양의 탈을 만들어 각각 웃음거리 춤을 지었다. 뽀족도 하고 깎은 듯도 하여 가진 변태가 이루다 말할 수 없어 모두가 입을 가누지 못할 만큼 우스웠던지라 국사의 병이 감쪽같이 씻은 듯 나왔다.

221) 『隨書』 卷八十一 『東夷傳』 高(句)麗. “初終哭泣葬則鼓舞作樂以送之”

222) 『日本書紀』 卷第13 允公天皇

223) 『三國史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下. “給軍樂鼓吹一白人”

224) 閔周冕, 『東京雜記』, 第二 人物, “王聞之 流涕時人無哀悼 爲作長歌”

225) 閔周冕, 위의 책, 第二 人物, “歆運以劒揮之 遂突陣 格殺數人而死 時人爲作陽山歌”

226) 임재해, 1995, 「장례 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비교민속학』 12:274-275.

위의 내용에 따르면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열한가지 모양의 탈을 만들어 각각 웃음거리 춤을 지었으며, 그 웃음거리 춤으로 인하여 웃다가 병이 감쪽같이 치유되었다는 내용이다. 그 탈의 모양이나 춤사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라 토우에 나타난 탈의 모습 〈그림 101〉과 『三國遺事』의 “뽕죽도 하고 깎은 듯도 하다”라는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은 5~6세기의 탈이 신문왕대에도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탈춤으로써 병을 치유하였다는 기록에서 원시신앙과 불교의 습합을 볼 수 있다.

문헌기록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장례의식에서 행해진 가무와 잡기, 무악 행렬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세조 2년 5월조를 보면, 상가(喪家)에서 밤에 제사를 올릴 때에는 남녀 수십 명이 모였고 창아배(娼兒輩)들이 노래와 춤을 추었다.²²⁷⁾ 성종 5(1474)년 정월조를 보면,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서는 장례 때 운구를 하면서 음악을 베풀고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몄을 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서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고 밤이 이슬할 즈음에 비로소 파하였는데 이를 ‘오시(娛屍)’라고 하였다.²²⁸⁾ ‘오시’는 노래와 춤으로 죽은 이를 즐겁게 하는 일종의 축제형 장례의식이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초상이 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밤샘을 하며 노래와 놀이를 펼치며 노는 전통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장례놀이를 비롯하여 상장례에서 연애나 결혼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습속 또한 세계 곳곳에서 확인된다. 고대 돌궐에서는 장일(葬日)에 남녀가 치장을 하고 사체를 묻은 장소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상대를 구하였고,²²⁹⁾ 타이의 카렌족에서도 장일에 남녀가 사체를 에워싸면서 노래를 부르고 구애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²³⁰⁾ 일본의 상장례에서도 성적 의례가 행해진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죽음과 아메노우즈메

227) 崔德源, 1990, 『南道民俗考』, 서울:삼성출판사, p. 459 재인용.

228) 『朝鮮王朝實錄』 成宗五年正月條. “慶尙全羅忠清道 俗尙浮誇 葬送之事 務爲華侈 祭奠油蜜之費 幾至數斛 多辦酒饌 廣招鄉隣 大張聲樂 終夜而罷 名爲娛尸 以此破產者多 貧者難辦累年不葬”

229) 周書 卷50 列傳 第42

230) 鳥越憲三郎, 1986, 「倭族他界觀」, 『村構造他界觀』, 雄山閣, p. 32.

(天宇受賣命)의 춤에 관한 이야기다. 스사노오의 난폭함을 견디다 못한 아마테라스가 하늘의 석실호(石室戸)로 숨자 세계가 암흑으로 변하고 온갖 재앙이 일어났다. 이에 아메누우즈메가 젓가슴과 성기를 노출시키고 춤을 추어 신을 웃게 만들고 아마테라스를 나오게 했다는 신화이다.²³¹⁾ 아마테라스가 하늘의 석실호로 숨어 세계가 암흑으로 변했다는 것은 아마테라스의 죽음을 의미한다.²³²⁾ 살아 있는 자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춤을 추니 아마테라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의 재생을 말한다. 이 신화는 고대 일본의 상장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죽음과 재생의 매개에 性이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성은 생명, 생산, 풍요의 상징이다. 성기를 드러내어 성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상장례는 그것이 죽음 뿐 아니라 생명, 생산, 창조, 탄생 등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³³⁾

이러한 상장례와 성, 생산, 탄생과 관련한 민속놀이가 우리나라 진도지역에서 행해지는 상여놀이, 다시래기에서 볼 수 있다. 다시래기라는 말의 어원은, ‘다시나기(다시 낳다)’ 또는 ‘다시락(多侍樂: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즐긴다)’ 또는 ‘대시래기(待侍래기: 망자의 영혼이 떠나는 것을 기다린다)’에서 나왔다²³⁴⁾고 한다. 다시래기의 하이라이트는 출산장면이다. 다시래기에서 성적 사실과 행위에 이어 아기 낳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성이 죽음과 맞서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자리에서 성을 애기하고 출산 놀이를 하는 것은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뜻이 있다. 상주(喪主)를 위로하고 달랜다는 표층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죽음의 결손을 생명 탄생으로 극복해간다는 문화적 수용태도를 담고 있다. 또한 다시래기는 슬픔과 웃음이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상집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은 죽음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며, 특히 성적인 재담을 주고받고 아이 출산을 연출하는 것은 죽음과 배치되는 연극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시래기는 죽

231) 『古事記』上卷, 天の石室戸

232) 山下晋司, 1996, 「葬制の他界觀」, 『日本古代』 13:277.

233) マゼ・フランソワ, 1982, 「殯解釋の一試論」, 『愛媛 大學教養部紀要』 15(2):614.

234) 이경엽, 2013, 「축제식 상장례를 통해 본 지도 민속의 독특함」, 『남도민속연구』 26:211.

음으로부터 비롯된 상실의 아픔을 웃음과 신명의 활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연극이며,²³⁵⁾ 상장례와 성, 그리고 생명의 출산 관계를 잘 보여준다.²³⁶⁾

이렇듯 성은 인간의 생명력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행위이자 새 생명을 공급하는 생산적인 행위이므로 성이야말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양식인 것이다.²³⁷⁾ 따라서 상장례의 성은 바로 사자의 재생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신라 토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기록이나 해외의 사례 혹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례장면이나 놀이 등을 표현한 것으로 죽은 이의 재생을 기원하며, 천지귀신에게 올리는 주술적 의미를 흙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동물 토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물 토우는 주로 인간의 일대기 혹은 생산의 상징성을 표현하여 사자의 재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동물 토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한 표현일까?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문헌기록에 등장한 동물들은 주로 영험하고 신령스러움의 상징이었다. 바로 천계의 뜻을 전하러 내려온 신을 대신해 인간에게 그 뜻을 전달해주는 매개자이다. 천제가 직접 하계의 생명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천계와 하계의 접촉에 있어서 중개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은 최종수혜자인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 못했으며 하계와의 접촉은 반드시 산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만 이루어졌고 이 경우에 하계를 대표하는 중개자가 필요했을 것인데 바로 동물이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천제의 의지는 신을 통해서 하계로 전달되고 신의 뜻은 동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전달되며 이것이 바로 징조와 약효인 것이다.²³⁸⁾

235) 이경엽, 2004, 『진도다시래기』, 국립문화재연구소, pp. 121-123.

236) 임재해, 2001, 「한국의 장례놀이에서 나타난 죽음과 삶의 형상」,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서울:민속원.

237) 임재해, 2001, 앞의 논문, p. 66.

238) 徐敬浩, 1996, 『山海經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16-317.

토우 유형 가운데에는 재생의 의미를 내포하는 알에서 부화되거나 혹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뱀이나 물고기, 오리, 말, 새와 같이 영계(靈界)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을 토우로 제작하였다. 특히 거북이와 자라는 암늪만 있고 숫늪이 없어서 뱀이 숫늪 노릇을 한다는 말이 있으며,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²³⁹⁾ 이외에도 학 탈을 쓰고 있는 토우가 있다 <그림 101>. 고대부터 학은 영물로서 신앙의 대상이며 길서(吉瑞)의 상징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학 모양 탈을 쓴 토우는 사자를 보내는 의식에서 이루어지던 장송의 행렬이나 춤으로 짐작되며, 장사지낼 때 새의 날개를 함께 물어 주던 것과 그 뜻이 통한다.

신화를 비롯한 민담에서 사람과 동물은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족종교와 종교예술에서 동물은 제물로 희생되는 동물의 신격화 내지는 신이 동물로 상징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토렘숭배는 인간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며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수준에서 관계²⁴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며 특별한 노래 혹은 행위 등은 천지귀신에 통하는 주술적 의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재생을 상징하는 달 동물인 개구리나 뱀 등을 부착하여 영혼의 재생을 위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에서는 벽사의 의미도 엿 볼 수 있다.

고대인은 삶과 죽음이 연속적이며 상보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진정한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해야 하며 또 죽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또한 모든 생명은 서로 연대하고 있고 같은 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는 생각과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교류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상세계를 꿈꾸었다.²⁴¹⁾

과장된 성의 표현과 성 행위, 알에서 부화 또는 허물을 벗는 재생을 상징하는 동물을 표현한 신라 토우를 무덤에 부장한 것은 죽은 자의 재생을 위한 기

239) 주채혁, 1973, 「거북신앙과 그 분포」, 『한국민속학』 6:21-27.

240) 박신정, 1987, 앞의 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p. 24.

241) 나희라, 2004, 「고대의 상장례와 생사관」, 『역사와 현실』 54:191.

원의 표현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라 토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토우로 뱀과 개구리의 결합상을 들 수 있다. 뱀은 거룩한, 신성한 무엇이며, 섬뜩하고, 금지되고, 부정한 것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타부(Taboo) 대상으로서 신성하지만 기피할 수밖에 없는 동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뱀은 두렵고 징그러운 대상으로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영물(靈物)로서 함부로 몰아내거나 해칠 수 없으며 당신(堂神) 또는 업신(業神)으로 숭배되기도 한다.²⁴²⁾ 뱀은 그 자체의 동물적 속성 내지는 이미지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생활 및 정신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었다.²⁴³⁾

뱀이 지닌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로 인해 주술적이고 신성한 곳을 지키는 대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뱀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의 생태적인 특징, 바로 허물을 벗는 능력으로 인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재생 불사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뱀이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과 비슷하게 찢다가 기울고 다시 차오르는 달 역시 재생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²⁴⁴⁾ 태양은 그 모습이 변하지 않지만 달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형체가 변화하며 또한 그 순환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나타남과 사라짐을 끝없이 반복하는 무한한 생명력이야 말로 유한한 생명력을 가진 인간에게는 재생 불사의 상징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다.

3. 생활유적 출토 토우의 상징성

1) 독립형 토우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토우는 대부분 5cm 내외 크기의 부착형인 반면에 7세기이후 생활유적 출토 토우는 독립형이며, 크기와 조형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분묘유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토우가

242) 송영규, 1998, 『12띠의 민속과 상징⑥ 뱀띠』, 국학자료원.

243) 오유미, 2001, 「중국 뱀 신화의 상징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p. 9.

244) 오유미, 2001, 앞의 논문, pp. 45-49.

출토된 반면에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의 종류는 현저히 단순해졌으나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참조>

신라 토우 가운데 유적의 성격 혹은 시대를 불문하고 등장하는 말이 갖는 상징적 의미로는 첫째, 새와 함께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영물로 여겨졌으며 둘째, 악귀나 병마를 막는 부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말은 새와 함께 승천하는 영혼의 조력자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속의 백마 혹은 가야고분에서 다량 출토되는 기마인물형 토기 등 무덤 부장품에 등장하는 말의 대부분이 이러한 관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볼 때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우나 마형 토우는 승천하는 영혼의 조력자의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기왕의 자료들을 보면 마형 토우는 분묘 이외에도 패총이나 주거지를 비롯하여 산성이나 산 정상, 바닷가 등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²⁴⁵⁾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례행위가 이루어진 유적에서는 산 정상부에서 마형 토우가 출토되었으며,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마형 토우는 산성의 수호신이나 산신에게 제사의례를 행한 후 의도적으로 깨트린 것이거나 그대로 폐기(廢棄)한 후에 깨진 것으로 추정²⁴⁶⁾되고 있다. 경주지역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우 역시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것은 결국 토우를 어떤 목적에서든지 사용한 후 파손되어 그냥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에 사용 후 인위적으로 훼손(毀棄)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출토양상을 볼 때, 특정 유구나 유적에서 확인된 예보다는 대부분 표토에서 수습되거나 퇴적층에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위의 폐기 가능성과는 다르게 제의 관련 유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유적으로는 월성해자, 노동동 12 유적이 있으며,

245) 장제근, 2002, 「마형토기 출토 제사유적」, 『고대의 말』, 영남대학교 박물관, pp. 114-120. 전북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김해 부원동 유적, 동래 낙민동 패총유적, 대구 시지동 생활유적을 비롯하여 철제 말과 함께 출토된 하남 이성산성, 천안 위례산성 제사유적,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이 있다.

246) 장제근, 2002, 위의 논문, p. 117.

이들 유적과 유사한 한성백제기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수혈²⁴⁷⁾을 예로 들 수 있다.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유구는 경당지구의 북반부에 위치하며, 층위적으로는 최상층에 해당한다. 장축 13.5m, 단축 5.2m, 최대 깊이 2.4m의 장타원형 수혈로서 풍납토성 내부에서 조사된 단일유구로는 최대급에 속한다. 한성백제기 당시의 구지표층을 굴착하였으며, 수혈의 벽과 바닥에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았다. 유구의 성격은 인위적인 시설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퇴적되었으며, 다량의 유물이 폐기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상부가 오픈된 채 자연적인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출토된 토기 기종의 변화, 동물 뼈의 출토량 등을 고려할 때 여러 번에 걸친 행위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제기(祭器)의 기종(器種)과 기물(器物)을 폐기하는 방식이 달랐으며, 이는 제의(祭儀) 형식의 변화 또는 제의 목적이 달라서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다²⁴⁸⁾고 보았다.

유물 가운데에는 열 마리 분의 동물 머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머리 부분만을 수혈 내에 투기(投棄) 혹은 안치한 것으로 말을 희생으로 삼은 제의의 흔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마형 토우를 비롯한 각종 토제품과 소형의 모조품, 삼족기(三足器)의 다리부분이 훼손(毀棄)된 예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소형의 고급 제기 위주의 토기, 운모와 매실, 도미를 비롯한 생선뼈를 비롯하여 ‘大夫’와 ‘井’銘이 선각된 토기의 존재는 제의의 내용이 도교적이며, 그 목적이 기우(祈雨) 또는 도교의 주문을 상징하는 부호 또는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는 벽사적 의미로 볼 수 있을 개연성이 높다²⁴⁹⁾고 보았다.

247)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풍납토성Ⅳ-경당지구 9호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 p. 17, pp. 319-322. 경당지구 9호 유구에서는 10마리 분의 동물 머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머리 부분만을 수혈 내에 投棄 혹은 안치한 것으로 말을 희생으로 삼은 제의의 흔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마형 토제품, 삼족기의 다리부분이 훼손된 예를 들 수 있다.

松非章・神谷正弘, 1994, 「古代の朝鮮半島および日本列島における馬のについて」, 『考古學雜誌』 80(1):58-59. 말을 희생으로 한 제의에는 水神에 대한 제사, 장송에서의 희생, 토목공사나 전쟁에서의 희생 등의 사례가 있다.

248)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위의 보고서, p. 17.

249)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위의 보고서, p. 321.

따라서 앞서 살펴본 월성해자와 노동동 12 유적 연못에서 출토된 다량의 기호문 토기를 비롯하여 주칠 토기편, 복숭아 씨, 동물유체를 비롯하여 마형 토우의 출토는 경당지구 9호 유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예가 흔치 않으므로 일단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제의 관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2) 부착형 토우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 토우는 대부분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되었으며,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앞의 IV 장 <표 4>에 의하면 사찰유적 두 개소에서 토우가 부착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더욱이 분묘유적에서도 흔히 보이지 않던 수달을 부착한 토기편이 사천왕사와 불국사 경내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수달이 부착된 토기편이 사찰건물지 경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토된 연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수달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다.

釋惠通 氏族未詳 白衣之時 家在南山西麓 銀川洞之口 一日遊舍東溪上 捕一
 獺屠之 弃骨園中 詰旦亡其骨 跡血尋之 骨環舊穴 抱五兒而蹲 郎望見 驚異久之
 感嘆躊躇 便弃俗出家 易名惠通…

“혜통이 출가하기 전 냇가에서 놀다가 수달(獺)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는데, 다음날 새벽에 그 뼈가 없어졌으므로 핏자국을 찾아가 보니 뼈는 옛 굴로 되돌아가서 새끼 다섯을 안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놀래 주저하다가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였다.”²⁵⁰⁾라는 기록이다. 혜통의 출가는 자신의 살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더 중요한 사실은 수달²⁵¹⁾의 죽음과 새끼에 대한 집착 등이 생사의 괴로움을

250) 『三國遺事』 第5卷 神呪 第6 惠通降龍

251) 물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개의 경우 뒷발이 뒤로 향하며, 꼬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토기 편에 부착된 동물은 모두 앞·뒤다리가 양 옆을 향하며, 꼬리가 길므로 수달로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죽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 도입 이후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를 의미한다.²⁵²⁾ 바로 시체를 관상함으로써 죽음을 직시하고 극복하도록 하는 부정관을 관상하는 수행을 의미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상함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러한 인식을 통해 삶과 수명에의 집착을 끊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⁵³⁾

두 번째는 사찰 건물의 기둥에 조각된 수달이다.

지리산 천은사 극락보전 기둥에 수달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찰은 화엄사·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의 하나이다. 828(흥덕왕 3)년 인도 승려 덕운(德雲)이 창건하였으며, 앞뜰에 있는 샘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여 감로사(甘露寺)라 하였다. 임진왜란의 전화(戰火)로 완전히 불타버렸으나, 1610(광해군 2)년에 혜정(惠淨)이 중창하였고, 1679(숙종 5)년에 단유(袒裕)가 중건하여 천은사로 하였다. 중건 당시 감로사의 샘가에는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났으므로 한 승려가 이를 잡아 죽였더니 그 뒤로부터는 샘이 솟아나지 않았고, 샘이 숨었다 해서 천은사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절 이름을 바꾼 뒤 이 사찰에는 원인 모를 화재가 자주 일어나서 절에 큰 걱정거리가 되었고, 재화가 끊이지 않자 주민들은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 주는 뱀을 죽였기 때문이라며 두려워하였다. 그 때 조선 4대 명필의 한 사람인 이광사(李匡師)가 수체(水體)로 물 흐르듯 ‘智異山泉隱寺’라는 글씨를 써서 수기를 붙여 넣은 현판을 일주문에 걸게 한 뒤로는 다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락보전의 아미타불단 양 옆을 떠받치는 기둥에 화기(火氣)를 막는 수달을 조각하여 사찰을 지키는, 화재 예방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00>

수달은 십이지동물과 함께 불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동물이다.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는 한국 수달연구센터장 한성용박사님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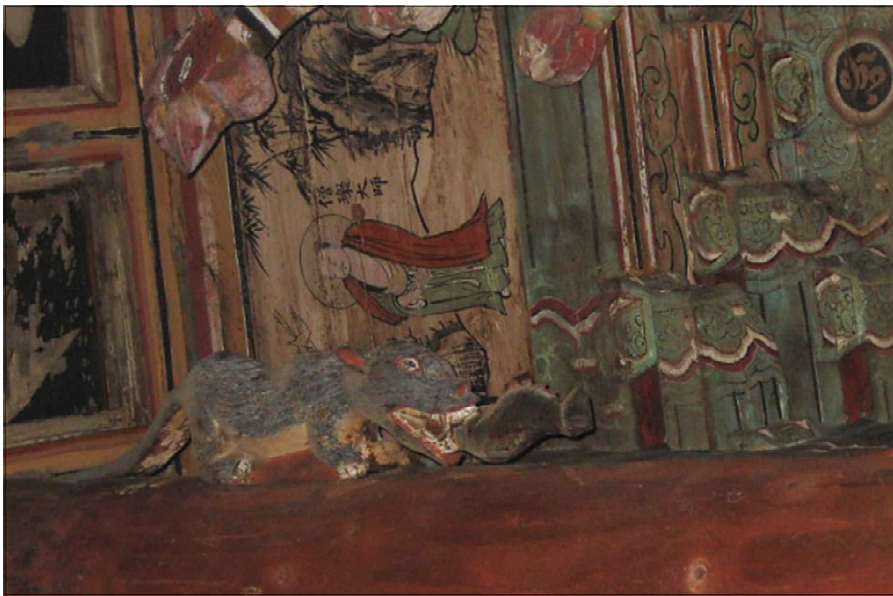
252) 김영미, 2000,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20:152.

253) 김영미, 2000, 위의 논문, p. 153.

특히 사천왕사에서는 뱀이 부착된 토기편도 함께 출토된 것을 보면, 뱀이 가진 환생, 재생의 상징의미로써 사찰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사찰에서 사용된 수달은 해통이 출가하게 된 내용의 주체 혹은 화재예방 등 중생들에게 일종의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본다.

5~6세기 대 분묘유적 출토 토기에서는 부착예가 흔치않았던 수달²⁵⁴⁾을 사찰유적 출토 토기 편에 부착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신라 고유 신앙의 표현에 불교적 내용이 가미된 자료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02〉 지리산 천은사 극락보전- 수달(출처: 손명순 촬영)

254)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p.173. K810을 수달로 표기되어 있어 본고 〈표 7〉 출토지에 따른 토우 유형 분류에는 수달로 표기하였으나 실견 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VI. 결론

선사시대부터 제작되어 온 토우는 각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내포하며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분명하게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저변에는 염원과 주술적인 목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라 토우라 함은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경주 황남동 일대 소형 석곽묘 등에서 집중 출토된 것을 일컫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왕의 신라 토우 연구에서는 신라 토우를 장식용 토우, 토용은 독립형 토우, 상형토기는 용기형 토우로 명명하여 토우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신라 토우 연구가 이렇듯 포괄적이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토우 자료가 많지 않고 둘째, 무덤 부장품이라는 공통점과 人形 등의 형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 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이렇게 개진된 신라 토우의 연구결과 신라 토우의 등장 및 소멸시기, 출토묘제,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신라 토우·토용·상형토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였다.

토우란 기원이나 주술, 의례 그리고 그 예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장난감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 등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반면에 토용은 무덤 부장품으로써 사자를 위한 시봉자 개념의 순장대용품의 지칭하는 것이 용(甬)의 의미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형토기는 광의의 개념으로 토우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기의 개념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고는 상형토기를 제외한 신라 토우 연구로써, 먼저 신라 토우 출토유적의 현황을 파악한 후 시대흐름에 따른 토우의 변화상 그리고 토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던 상징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주지역에서 토우가 출토된 유적을 집적한 결과 40개 유적에서 451점의 토우가 출토되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분류하

여 출토지 위치, 시기 및 유적별 토우의 종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신라 토우 출토지의 위치는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의 경우 황남동 일대에 집중되었으며, 7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생활유적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신라 토우 출토 범위가 확대 되었다. 동으로는 낭산 이서, 서로는 형산강 이동, 남으로는 도당산 이북, 북으로는 소금강산 이남 지역으로 넓게 분포한다.

5세기 중후반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이후 통일신라 말에 이르는 신라 토우의 변화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단계는 5세기 중후반에 해당되며, 주로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었다. 토기에는 사격자문이나 집선문 등 한 종류의 문양으로 간략하게 시문한 위에 뱀과 개구리, 사람, 새 등의 토우 한 두 점을 대칭되는 위치에 부착하였다. 이 단계 토우의 특징은 대체로 통통하게 살 찐 모습이며, 친근감 있게 표현하였다.

II 단계는 신라 토우의 전성기로써 5세기 말~6세기 대에 해당한다.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취한 인물 토우와 다종다양한 동물 토우를 제작하였다. 특히 토우 제작기법에 있어서 펀칭기법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토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문양 혹은 단일문양의 경우 토기 전면(全面)에 시문하였으며, 부착형 토우의 종류와 조합상이 다양해졌다. 인물 토우의 경우 신체의 성적인 부위는 과장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얼굴이나 머리 부분은 두건을 쓴 듯 표현을 생략하거나 줄을 긋는 등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이렇듯 I·II 단계는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 출토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 토우가 주를 이루었다.

III 단계는 7세기 전반 신라통일 이전시기에 해당되며, 신라 토우의 용도에 변화가 보인다. 분묘유적 부장품으로 토우장식 토기를 사용하던 풍습은 쇠퇴한 반면에 생활유적을 중심으로 독립형의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의 출토예가 증가하였다. 앞 단계에서 보이던 인물 토우의 신체 특정부위의 과장된 표현은 사라지고 얼굴이나 의복 표현이 상세해졌다.

IV 단계는 신라통일 이후, 7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비록 출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천동 석실분 출토로 전하는 인물상을 보면 머리에는 복두

를 쓰고 공수 자세를 취한 모습이다. 피장자를 위한 시봉자의 개념으로, 토우에서 토옹으로의 변화 초기 모습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토우 제작기법에서 가운데를 비운 중공형태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V단계는 8세기 이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황혈식석실분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완전히 받아들인 서역인 모습의 토옹으로 변모되었으며, 채색도 이루어졌다. 또한 화곡리 생산유적에서 인화문이 시문된 토우가 출토된 것을 볼 때 이 V단계까지는 토옹과 독립형 토우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통일신라 말 혹은 고려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분묘유적과 사찰유적에서 부착형 토우가 출토되는 것을 볼 때, 신라 토우의 사용이 완전하게 단절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토우의 종류를 보면 분묘유적 출토 토우 중에는 한반도에는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개미핥기, 하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 어류, 갑각류, 조류 등이 제작된 반면 7세기 이후에는 토우의 종류가 단순해졌다. 다만 분묘유적의 표지 유물인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는 생활유적에서 지속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출토량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시 신라인들이 가졌던 말(馬)에 대한 믿음으로, 영물로써 주술적인 대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인이 토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던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부착형 토우에서 보이는 남녀 성행위 혹은 과장된 성기 표현의 본질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며, 임신, 출산, 주검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은 인간 일상의 희로애락의 표현이며, 두 손을 맞잡고 읊하는 모습,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지팡이를 잡은 남자, 가면을 쓰고 춤추는 모습 등은 상장례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장례의식 장면을 포함한 과정을 고배뚜껑이나 장경호의 견부에 부착하여 사자의 혼을 위로하고 부활을 기원하며, 저승에서도 영생을 기원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토기에 장식된 동물류 역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 소를 비롯하

여 재생, 영생의 상징 동물과 벽사의 상징 동물인 뱀과 거북이,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말, 새, 오리,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물고기, 토끼 등이다.

토기에 표현된 문양 또한 태양, 달, 산, 나무 등의 자연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자연계를 결집시키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신라 토우를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한 계층은 왕이나 그에 버금가는 귀족의 신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계층이나 가계, 종교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4~6세기 대 왕족 또는 귀족들의 묘역인 경주 황남동 일대에서도 신라 토우의 출토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분군의 묘역은 혈통이나 가계에 따라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비록 묘제는 석곽묘가 주를 이루고 대형의 고분은 아니지만 대형고분 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볼 때, 특정 계층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월성로고분 일대에서도 가11-1호분에서만 출토된 점, 토우 생산유적인 손곡동·물천리 유적과 화곡리 생산유적 주변에서 匠人들 혹은 왕경인의 무덤에서도 단 한 점의 토우도 출토되지 않은 것을 볼 때, 토우장식 토기를 부장한 집단들은 그들만의 공통분모가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신라 토우를 기원이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무덤에 매납한 기간은 150년 내외로 그리 길지 못한 듯하다. 그 이유는 당시 신라 사회의 시대상의 반영으로 여겨진다. 지증마립간 3(502)년에 순장을 금지하고 그 이후 斯羅, 斯盧 등으로 불리던 國號를 ‘新羅’로 확정하였으며, 상복법(喪服法)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주군현을 정하고 처음으로 지방에 군주를 파견하였다.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흥왕 역시 병부(兵部)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특히 율령의 반포는 신라사회가 더 이상 관습법에 따른 미숙한 사회가 아니라 법령의 규제를 받는 사회로 변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불교가 신앙으로써 지배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신라 토우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토우의 변화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분묘유적의 부장품으로써 사자에 대한 재생과 주술적인 의미로 제작된 토우에서 7세기 이후가 되면 순장대용품인 토용으로 용도는 변하였지만 그 모본(模本)은 신라

토우에서 변화 발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초기 토용에서는 백토(白土) 사용이나 채색이 없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신라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도 토용 가운데 계급이 낮은 인물에서는 고신라식의 복장을 고수하는 것을 볼 때 신라 나름의 독창성은 유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상형토기와 같은 용기의 개념이 아닌 중공형태의 독립형 토우로 발전하여 크기가 커졌다. 무덤 부장품이 아니라 생활유적에서 신앙의 대상 혹은 주술적인 행위에 사용된 후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물과 관련 있는 연못이나 특수시설인 월성해자 등에서 다량의 기호문 토기를 비롯하여 주칠 토기편, 복숭아 씨, 동물유체를 비롯한 기마인물형 토우 또는 마형 토우의 출토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제의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5세기 중후반~6세기 대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던 부착형 토우가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라, 8세기 이후에는 불교적 요소와 습합되어 사찰유적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천왕사와 불국사 경내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토되었으나 출토위치가 불확실하여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불교의 상징적 의미를 토우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으로 판단된다.

넷째, 불교의 유행으로 화장제도가 발달되고 골호(骨壺)의 등장에 따라 무덤 부장품으로써의 부착형 토우는 쇠퇴하였지만 당시 시대상에 맞게 십이지상 혹은 팔괘 등을 토기에 표현하는 것 역시 부착형 토우를 모본으로 한 것이라 여겨진다.

5세기 중후반 분묘유적을 통해 등장한 신라 토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래의 기능과 제작기법, 사용용도 등에 변화를 보였다. 7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무덤 부장품으로서 주술적인 기능은 쇠퇴하였지만 횡혈식석실분에서 시봉자의 개념인 토용으로 변모되기도 하며, 통일신라 말까지는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생활유적에서는 목적이 다른 의례 혹은 행위에 토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신라사회의 시대상에 따라 토우의 종류나 조형, 제작기법 등이 변화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근, 1994, 「신라토우에 관한 연구:원시미술로서 신라토우의 정신성과 현대조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봉원, 2013, 「신라 적석목곽분 출현과 기마민족 이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검토」, 『신라문화』 41:9-133.
- 강우방, 1997, 「신라토우론」, 『신라토우』, 서울:통천문화사, pp. 115-137.
- 강인구, 1997, 「고고학측면에서 본 삼국시대 시기구분 문제」, 『고고학으로 본 한국고대사』, 서울:학연문화사.
- 경북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금장리유적』.
-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경주불국사경내정보박물관건립예정부지발굴조사보고서』.
- 경주대학교박물관, 2009, 『경주동천동고대도시유적경주시택지조성지구내 7B/L』.
- 경주대학교박물관, 2010, 『경주 충효동 100-14번지 - B지구 유적』.
- 고동슬, 1979, 「삼국시대 토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4, 『경주서악지역지표조사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a, 『재매정지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b, 『왕경지구내가스관매설지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 I』.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경주 인왕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a, 『경주 황남동 신라건물지(194 -11·12번지 대릉원 화장실 신축부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b, 『경주 서부동 19번지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a,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b,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Ⅱ』.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경주 쪽샘유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성과.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Ⅲ』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a,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Ⅳ』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b, 『경주 동궁과 월지 I 발굴조사보고서』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c, 『사천왕사 I -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a, 『전 인용사지발굴조사보고서』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b, 『사천왕사Ⅱ-회랑내곽- 발굴조사보고서』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경주 동궁과 월지Ⅱ 발굴조사보고서』 .
- 국립경주박물관, 1987, 『경주 황성동 524-1번지』 .
- 국립경주박물관, 1989, 『신라의 토용』 , 서울:통천문화사.
-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 서울:통천문화사.
-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시, 1990, 『경주시 월성로고분군』 .
- 국립중앙박물관, 2003, 『西域美術』 , 서울: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 서울:국립중앙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 1986, 『國譯 中國正史 朝鮮傳』 .
- 권영필, 1997, 「신라인의 미의식: 북방미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실�크로드 미술』 , 서울:열화당.
- 권준희, 2001a, 「고신라기 토우에 나타난 복식 연구」, 『복식』 51(4):57-69.
- 권준희, 2001b, 「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리나, 1987, 「高麗時代의 四神十二生肖 36禽鏡」,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 논총』 Ⅱ:359-368.
- 김동숙, 2017, 『신라사대계』 총서 21:263-264, 경상북도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김만수, 1994, 「인물토우 형상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 2010, 「신라 석실분 수용의 사회 · 문화적 배경」, 『한국사상과 문화』 54:165-191.
- 김성기, 1999, 「토우 조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남 · 김선아, 2002, 「고신라 두발장식」, 『인체예술학회지』 3(2):55-66.
- 김성혜, 1998, 「신라토우의 음악사학적 조명(1):신라고를 중심으로」, 『한국학

- 보』 91・92:61-101.
- 김성혜, 2000, 「신라토우의 음악사학적 조명(3)」, 『한국학보』 101:25-52.
- 김성혜, 2004, 「삼국시대 신라음악문화사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음악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혜, 2006, 「정창원 신라금의 가야금 관련에 대한 일고찰」,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김성혜, 2007, 『토우로 보는 신라무용과 그 의미』, 『한국무용사학』 6(4):47-78.
- 김성혜, 2009, 『신라토우 속의 음악과 춤』, 서울:민속원.
- 김세원, 2000, 「신라토우를 활용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 『한국공예논총』 3:49-63.
- 김응화, 2008, 「신라토우의 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포장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2):92-100.
- 김인희, 2013, 「신라 토우장식장경호와 동오 혼병을 통해 본 동중국해 사단항로 개척시기」, 『동아시아고대학』 32:227-260.
- 김영미, 2000,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20:145-195.
- 김유식, 2000, 「7~8세기 신라 기와의 需給」, 『경주문화』 7:27-49.
- 김용성, 2003,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42:57-86.
- 김용성, 2009, 『신라왕도의 고층과 그 주변』, 서울:학연문화사.
- 김원룡, 1962, 「삼국시대 동물형토기시고」, 『미술자료』 6:5-10.
- 김원룡, 1968, 「우리미의 재발견: 토우」, 『공간』 3(5):7-17.
- 김원룡, 1973, 『우리미술의 특색』, 서울:신구문화사.
- 김원룡, 1982, 「한국선사시대의 神像에 대하여」, 『역사학보』 94・95:1-18.
- 김인희, 2013, 「신라 토우장식장경호와 東吳 魂瓶을 통해 본 동중국해 사단항로 개척시기」, 『동아시아고대학』 32:227-260.
- 김인환, 1994, 「누드의 조각사」, 『동서미술의 흐름』, 서울:미술공론사.
- 김정진, 2008, 「경주 용강동 고분출토 토용의 복식사적 의의」, 『한복문화』 11(1):11-21.
- 金載元, 1955, 『雙床塚・馬塚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二冊.
- 김재윤, 2008, 「선사시대의 극동 전신상 토우와 환동해 문화권」, 『한국상고사학보』 60:41-72.

- 김재홍, 2014, 「신라 왕경 출토 명문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대사연구』 73:125-158.
- 김창호, 2000, 「경주 황남대총의 축조 연대」, 『영남고고학』 27:75-84.
- 김태훈, 2004, 「신라 토우에 나타난 조형적 분류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 2008, 「신라토우의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 2009, 「신라장식토우의 특징을 응용한 도자 조형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10(4):39-49.
- 김현아, 2011, 「토우를 통해 본 신라인들의 사상과 생활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1999, 「신라토우에 있어서 드로잉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1986, 「고대 신라 토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양, 2010, 「신라시대 토우의 제작기법 고찰」, 『백악논총』 4:1-28.
- 나희라, 2004, 「고대의 상장례와 생사관」, 『역사와 현실』 54:171-195.
-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서울:지식산업사.
- 노용순, 1993, 「韓國 흙구이의 造形性에 관한 연구:토우(土偶)와 독널(甕棺)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도쿄국립박물관, 1998, 『특별전 일본의 고고학』, 일본:동경.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경주 황남동 376 통일신라시대 유적』.
- 대구대학교 박물관, 2002, 『경주 동천동유적』.
- 文化公報部, 1969, 『慶州皇南里一五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文化財管理局古蹟調査報告 二冊.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9,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a,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b,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月城垓字 발굴조사보고서 I』.
- 박광열, 2014,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고고학지』 20:53-77.

- 박광열, 2015, 「통일신라시대 제사와 의례」,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년 신라 문화특강』.
- 박민혜, 1994, 「신라토우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방룡, 1990, 「신라십이지명골호에 대한 소고」, 『신라문화』 7:191-213.
- 박신정, 1986, 「신라 토우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논문.
- 박신정, 1989, 「신라토우에 나타난 원시성 연구」, 『경일대학교논문집』 26:391-400.
- 박용숙, 1990, 『한국미술의 기원』, 서울:예경산업사.
- 박원섭, 1992, 『신라토우에 나타난 조형의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수, 2016, 「경주 황남대총의 역연대와 신라 능원의 형성 과정」, 『신라문화』 47:1-18.
- 박해동, 1985, 「신라토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회화학과 석사학위논문.
-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북천동고분군』 V.
- 북경 중앙미술학원 미술사계 중국미술사교연실 편저/박은화 옮김, 1998, 『간추린 중국미술의 역사』, 서울:시공사.
- 배주영, 1997, 「토우가 한국 현대 조각에 미친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徐敬浩, 1996, 『山海經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선석열, 1987, 「신라 골품제의 성립기반과 그 구조」, 『부산사학』 11:39-76.
- 성림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화곡리 신라분묘군』.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I』.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교동 274번지 남천주변 경관정비공사 구간내 유적』.
- 성애순, 2010, 「주악형 토우에 나타난 도상자료 해제」, 『예술논집』 10:5-26.
- 손명순, 2002, 「신라토우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하)」, 『경북사학』 24:213-275.

- 손명순, 2015, 「경주지역 신라토우 유형 검토」, 『신라문화』 46:69-95.
- 송영규, 1998, 『12띠의 민속과 상징⑥ 뱀띠』, 국학자료원.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a, 『경주 동천동 774번지 유적』.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b, 『경주 성동동 201-1번지 유적』.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c, 『경주 인왕동 412번지 유적』.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d, 『경주노서동 26번지 유적』.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e, 『경주 동산리유적 I』.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주시 광명동 147-3번지 근린생활시설건립부지내 유적』.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경주 교동 56-4유적』.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재매정지 전문가검토회의자료집」.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천관사지 3차 발굴조사보고서』.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신민경, 1996, 「원시가면에 나타난 기호성과 상징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 석사학위논문.
- 신인주, 2002, 「신라상형 주구부토기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영옥, 2006, 「신라토우 인물상에 나타난 상징성과 조형미감 연구」, 『동양예술』 11:218-263.
- 양경애, 1993, 「신라고분출토 토우의 복식 연구」, 『충청전문대학 박물관지』 2:37-54.
- 양경진, 1979, 「신라토우에 나타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 2008, 「마형토우 제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선, 1988, 「신라토기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정석, 1996, 「신라 마립간기 왕권강화과정과 지방정책」, 『한국사학보』 1:229-260.
- 양정석, 1998, 「신라 마립간기 왕의 통치형태」, 『신라문화』 15:28-32.
- 염미란, 1996, 「신라토우에 관한 연구」 I, 『관대논문집』 24:381-400.
- 염미란, 1998, 「신라토우와 토기 문양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 『한국공예논총』 :169-192.

- 오유미, 2001, 「중국 뱀 신화의 상징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우흥, 2001, 『순간과 영원』, 서울:아카넷.
- 유병일·정숙희, 2011, 「월성해자 출토 동물유체분석」, 『月城垓子發掘調查報告書Ⅲ(4號垓子)』.
- 유완하, 1994, 「신라토우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康承·李熙濬, 1993, 『慶州皇城洞石室墳』,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 이경엽, 2004, 『진도다시래기』,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경희, 1978, 「신라토우에 관한 소고:조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난영, 1976, 『신라의 토우』,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난영, 1981, 「漢代 雜伎像과 一部 新羅土偶와의 關係」, 『미술자료』 28:10-18.
- 이난영, 1991, 『토우』, 서울:대원사.
- 이난영, 1997, 「신라의 토우」, 『신라토우』, 서울:통천문화사, pp. 135-148.
- 이달룡, 1976, 「신라 상형토기의 조형성과 생활상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현, 2008, 「인화문 유개완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송란, 2000, 「고신라 고분출토 토우장식토기에 보이는 남방적 요소」, 『고고역사학지』 16:465-495.
- 이승수, 1989, 「신라토우를 응용한 관광토산품 개발에 관한 연구」, 『경주전문대학논문집』 4:375-400.
- 이은창, 1981, 「新羅의 用器에 關한 研究」,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2:125-197.
- 이은창, 1983, 「신라토우에 나타난 민속」,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191-281.
- 이인숙, 1974, 「고신라기 장신구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62:71-72.
- 이종숙, 2006, 「깨어난 토우가 보여준 신라음악문화」, 『한국음악사학보』 37:313-315.
- 이종철 외, 1997,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로서의 성」, 『性, 숭배와 금기의 문화』, 서울:대원사.
- 이정근, 2012, 「신라토우를 통해서 보는 신라인의 미감에 관한 연구:고대 신라의 토우형태에 나타난 조형미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

- 회지』 18(4):473-484.
- 이진원, 2011, 「정창원 신라금과 가야금의 연관성」, 『국악교육』 32:221-246.
- 이희준, 1998, 「4~5세기 신라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1984a, 「신라와 가야토우의 형태 및 표현양식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1984b, 「신라토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조각과 석사학위논문.
- 임상준, 2008, 「한국 토토탐신앙에 나타난 조형물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재해, 1995, 「장례 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비교민속학』 12:265-317.
- 임재해, 2001, 「한국의 장례놀이에 나타난 죽음과 삶의 형상」,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서울:민속원.
- 장제근, 2002, 「마형토기 출토 제사유적」, 『고대의 말』, 영남대학교 박물관, pp. 114-120.
- 장지성, 2008, 「신라토우를 응용한 생활용기 디자인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 1989, 「신라토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민속신앙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영숙, 1994, 「신라토우에 나타난 한국미의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홍일, 1995, 「신라토우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민간신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영현, 2005, 「토우와 인물형상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얼굴 이미지를 中心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鄭在鏞, 1976, 「慶州 皇南洞 味鄒王陵內 舊道路面內 廢古墳 發掘調査」, 『韓國考古學年報』 2:44.
- 朝鮮總督府, 1934,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慶州皇南洞第百九號墳調査報告』.

-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 3, 東京:青雲堂.
- 조수현, 2003, 「경주지역 초기 수혈식석곽묘의 검토」, 『고문화』 61:129-164.
- 조영자, 1975, 「경주 황남리고분 출토 토우의 연구」, 『홍익미술』 4:77-84.
- 조재형, 2004, 「신라토우에 나타난 조형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채혁, 1973, 「거북신앙과 그 분포」, 『한국민속학』 6:19-49.
- 천진기, 1997, 「신라토우의 민속학적 연구:性·動物을 중심으로」, 『특별전 신라토우』, pp. 146-156.
- 천진기, 1998, 「신라토우에 나타난 新羅俗 연구」, 『민속학연구』 5:43-66.
- 천진기, 2003, 「한국문화에 나타난 원숭이(申·猿)의 상징성」, 『국립민속박물관』.
- 최덕원, 1990, 『南道民俗考』, 서울:삼성출판사.
- 최병현, 1981, 「고신라 적석목곽분 연구(하)-묘형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2:1-83.
-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서울:일지사.
- 최병현, 2014,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국고고학보』 90:120-163.
- 최석규, 2010, 『경주개 동경이의 기원과 품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경, 1992, 「신라토우에 나타난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상장례」, 『한국고대사연구』 65:35-75.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경주경마장에정부지 C-I 지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 2 경주 탑동 21-3번지 유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譯註三國史記』, 서울:朝銀文化社.
- 한병삼, 1974, 『토기와 청동기』 제2판,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한병삼, 1979, 「統一新羅の土器」, 『世界陶磁全集』 17.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풍납토성Ⅳ-경당지구 9호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
- 허건, 1981, 「신라의 소조와 조형에 관한 연구:토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아, 1993, 「신라의 동물형 토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洪潛植, 2001, 「6~7世紀代新羅古墳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황기덕, 1975, 『무산 범의구석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124-226.
- 황원길, 1974, 「신라, 가야 이형토기의 조형미연구」, 『마산교육대학논문집』 5:121-133.
- 江上波夫, 「呪術の世界」, 『世界考古學大系』 12:47.
- 古宮博物院, 2007, 『古代陶俑』, 北京:紫禁城出版社.
- 島田貞彦, 1937, 「中央亞細亞和闐出土陶製動物小像に就いて」, 『考古學雜誌』 27・28:508-512.
-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して」, 『神奈川考古』 6:121-170.
- マゼ・フランソワ, 1982, 「殯解釋の一試論」, 『愛媛大學教養部紀要』 15(2):614.
- 山下晋司, 1996, 「葬制の他界觀」, 『日本古代』 13:277.
- 小野美代子, 1984, 『土偶の知識』, 東京:東京美術.
-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編曆-發掘調査三十年回想』, 日本:六興出版.
- 新疆美術攝影出版社出版, 1993, 『中國新疆古代藝術』, China:Urumqi.
- 辛夷, 1985, 「關於殷墟出土的帶手栝的陶俑」, 『史學月刊』 2:106-107.
- 張光直, 1983, 『中國青銅時代』, 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 鳥越憲三郎, 1986, 「倭族他界觀」, 『村構造他界觀』, 日本:雄山閣.
- 佐藤雅彦, 1965, 『中國の土俑』, 東京:美術出版社.

新羅 土偶 研究
- 現況과 變遷을 中心으로 -

손 명 순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강 봉 원

(초록)

본 논문은 경주 황남동 일대 소형 석곽묘 등에서 다량 출토되어 문화적 특성을 드러낸 신라 토우에 관한 연구이다. 경주지역의 40개 유적에서 출토된 451점의 토우를 정리하여 시대와 유적성격에 따른 토우의 종류와 변화상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신라 토우는 시기적으로 7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먼저 5세기 중후반~6세기 대에 제작된 토우는 5cm 내외의 크기로서 토기에 부착된 형태이다. 인물 토우의 경우 신체의 특정부위를 과장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으며, 가무, 잡기 등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동물 토우는 포유류, 어류, 조류, 갑각류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다. 왕릉급 대형무덤의 매장주체부에서는 출토 예가 거의 없고 주로 중·소형의 적석목곽분과 석곽묘에서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출토된 이른 시기 토우는 인간의 일대기를 표현한 것으로, 일상생활중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특히, 장례의식 장면을 표현한 것은 사자의 혼을 위로하고 부활을 기원하며, 저승에서도 영생을 기원하는 소망의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7세기 이후 신라 토우의 종류와 형식, 제작기법, 용도 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였다. 크기가 10cm 이상의 독립형으로, 인물 토우의 경우 신체의 특정부위를 강조하였던 형식은 사라지고 양손을 모아서 예를 표하는 모습 등으로 변화하였다. 동물 토우의 경우 어류, 갑각류 등은 소멸되었으나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

의 양은 증가되었다. 그리고 제작기법에서도 소성 시 터짐 방지를 위해 가운데를 비운 중공(中空) 형태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고신라 토우는 신에 대한 원시적인 기원이나 주술적인 목적을 내포한 무덤 부장품으로 매납되었으나 7세기 이후에는 다양한 용도로 변모하였다는 점이 부각된다. 첫째, 순장대용품으로 피장자에 대한 시봉자의 개념인 토용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우와 마형 토우는 제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토기에 부착되었던 초기형식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불교의 상징적 표현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도입과 성행으로 골호로 변화 발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7세기 이후 토우의 이러한 변화요인은 불교 신봉에 따른 무덤의 축소와 장례문화의 간소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황혈식석실분의 축조와 화장제도의 보편화에 따른 골호의 등장이 불교의 직접적인 영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토기 제작기술의 발달과 지증왕의 순장금지(502년), 법흥왕의 율령반포(520) 등 관습법에 따른 사회가 아닌 법령의 규제를 받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토우도 변화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 신라 토우, 토용, 무덤 부장품, 불교, 골호, 사회적 변화

A Study on Silla Clay Figurines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Changes-

Son, Myeong soon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d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Silla clay figurines excavated from the stone lined tombs in and in the vicinity of Hwangnam-dong, Gyeongju, Korea. A total of 451 clay figurines discovered from 40 site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types and their changes over tim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time period and site function.

Silla clay figurine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before and after the 7th century. The clay figurines from the middle of the 5th to the 6th centuries were about 5cm tall, and attached to the earthenware in their form. In the case of human figures, particular parts of the body were exaggerated or omitted. In the mean time, singing, dancing and other entertaining gestures of human activities were noticeable. Animal figures were made up of various species such as mammals, fishes, birds and crustaceans. No figurine was discovered from the high-mounded royal tombs of Silla. The majority of them were collected mainly from the small or medium sized stone-compiled wooden chamber tombs and the stone lined tombs. Those figurines of the earlier times found to date seem the representation of human life, containing the expressions of human emotions of joy, anger, sorrow and happiness. Especially, the expression of the scene of funeral

ceremony can be interpreted as a desire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ad, and to pray for reincarnation or for an eternal life in the afterlife.

Since the 7th century, many changes seem to have appeared in Silla clay figurines in term of the types, the production techniques, the purpose of use and so on. The independent type of human figurines taller than 10cm emphasizing specific parts of the body disappeared, but they changed into the human form which showed courteous manners with the hands clasped in the front. The animal figurines of fish and crustacean disappeared, but the horseback riding figurines and horse-shaped figurines increased in number.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lso changed into the hollow form in order to prevent figurines from cracking during the firing process.

It is noted that the Old Silla clay figurines have strong characteristics of the burial accessories, which were for shamanistic purpose or primitive prayer for the eternal life of the dead. However, from the 7th century onwards, they have changed and seem to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First, burial mound figures in this time period appear to have functioned substitutes for the sacrificial burials to serve the dead. Second, the horseback riding figurines and horse-shaped figurines found from the dwelling sites are assumed to be used for rituals ceremonies. Third, the early form of the attached to the earthenware type is not completely discontinued, but they have been produced for the symbolic expression of Buddhism. Lastly, due to introduction and prevalence of Buddhism, the clay figurines seem to be transformed and developed into burial urns.

The changes in the clay figurines since the 7th century are interpreted a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tombs in scale and the simplification of funeral ceremony according to Buddhist belief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the horizontal stone chamber, the prevalence of cremation and the appearance of the burial urns seem to be a direct influence of Buddhism. In addition, the changes in Silla clay figurines are also found in the course of the social cha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earthenware production technique, the prohibition of sacrificial burials in 502 during King Jijeung reign, and the promulgation of laws by King

Beopheung in 520 when the society began to be governed by the ordinances not by the customary laws.

keywords : Silla clay figurines, burial mound figures, burial accessories, Buddhism, burial urns, social changes